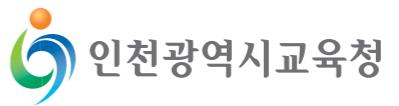


**인천을
풀고
세계로 3**



들어가며

진정으로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 f. 니체 -

인천을 품고 세계로 ‘인천길탐방’ 사업이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뤄지면서 인천의 학생, 교원, 학부모님들께서 인천 내륙과 섬 이곳저곳을 걸어보며 다양한 생각들을 키워왔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탐방길에서 우리 교육공동체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할지 고민 중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탐방길을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을 가진 인천을 걸으며 소소한 생각들과 경험이 위대한 생각으로, 꿈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가지 주제, 20개 탐방길을 개발하였습니다.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인천탐방, 자라나는 인천사랑

인천이해교육이 단순히 과거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관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교육이 되도록 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천길탐방이 학생들에게 꿈을 발견하는 교육, 더 나아가 인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되기 바랍니다.

인천은 70여 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100여 개의 시도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괭이부리말 아이들」, 「남생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인간문제」 등 다양한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인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시재생 공간, 현재까지 운영되는 오래된 가게들, 생태, 산업 현장탐방을 통해 현재의 인천을 살펴보면서 많은 발전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탐방길 체험을 통해 신기술 사용자에서 신기술 개발자로 성장하는 꿈을 키우기 원합니다.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인천을 품고 세계로3」 탐방의 경험이 쌓여 우리 인천교육공동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인천을 마음의 고향, 안식처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천 곳곳을 탐방하면서 학생들의 꿈들이 자신의 고유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정한 학생성공시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2월

도성훈

목차

01

인천의 문화재

P A R T

1-1 인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탐방길	10
1-2 옛 전설이 담긴 강화의 문화재	20
1-3 역사 깊은 사찰과 고려의 왕릉	32
1-4 염하를 따라 걸으며 배우는 외세 침략과 저항의 역사	44
1-5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화도	60

02

문학 속의 인천

P A R T

2-1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작점, 인천의 원도심	76
2-2 오정희 작가의 문학의 뿌리 중국인 거리	90
2-3 노동과 예술의 교차점 강경애의 「인간 문제」 속 인천	106

03

인천의 생태

P A R T

3-1 도심 속 쉼터, 소래산	128
3-2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있는 곳, 계양산	140
3-3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민족의 영산 마니산	156
3-4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 인천대공원	170

04

인천의 공간재생 노력

P A R T

4-1 과거와 현재의 공존으로 활기를 끔꾸는 거리	186
4-2 공간 재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강화도	202

05

인천의 오래된 가게

P A R T

5-1 부평의 오래된 가게	216
5-2 ‘이어가게’를 아시나요	238

06

항만도시 인천

P A R T

6-1 새롭게 변화하는 항만도시 인천	254
6-2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 인천	268

07

스마트 인천탐방

P A R T

7-1 스마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개항장 일대	284
7-2 인천 개항장 거리 스마트 탐방	298

인천을 품고, 세계로

자 · 코스 안내

01 코스 안내

인천의 지역을 7가지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총 20개의 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주제	소주제 및 코스 수
인천의 문화재	문화유산 탐방길(3), 근대역사와 강화도(2)
문학속의 인천	작품 속 인천의 근대역사(3)
인천의 생태	인천의 산(3), 인천의 생태길(1)
인천의 공간재생 노력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 재생길(2)
인천의 오래된 가게	오래된 가게(2)
항만도시 인천	인천의 항만길(2)
스마트 인천탐방	개항장을 AR/VR로 체험하는 스마트탐방길(2)



02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코스



각 코스는 인천의 역사, 지리, 교통, 산업, 민족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스별 관련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인천에 대한 이해를 돋보기, 초·중·고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한 교사용 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 인천 학생, 학부모, 시민이 자유롭게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03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도움자료 제시

● 코스 구간별 거리, 소요 시간 제시

전체 거리는 고등학생 도보 이동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도보 이동 시 소요되는 예상 시간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각 구간별 거리와 시간을 참고하여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학교급, 학년, 교과, 단원 제시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 학년, 교과, 단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시자료이므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키워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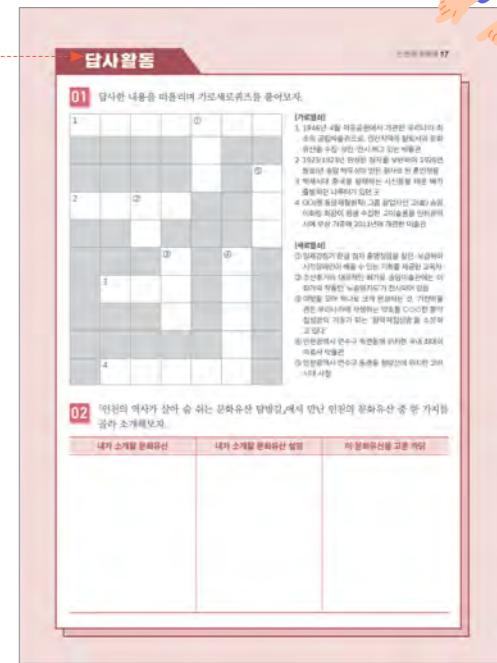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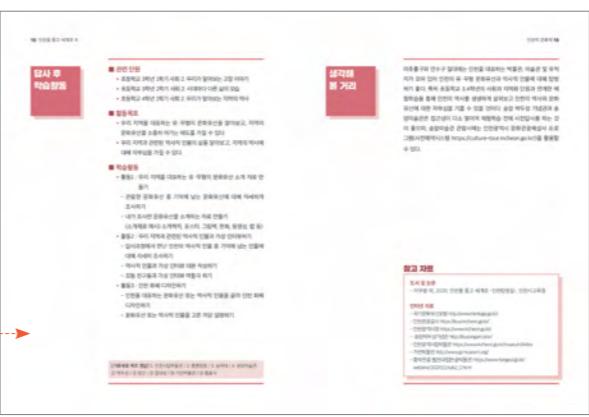
코스별 주제와 특징을 알기 쉽도록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04 학습활동 도움자료 제시

● 학생용 답사 활동지 및 답사 후 수업 활동 제시

답사 활동 과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시하였으며, 필요시 이 부분을 복사하여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활동으로 답사 후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 생각해 볼 거리

각 답사 코스와 관련하여 좀 더 생각해 볼 내용이나 학생들과 심화 학습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 등을 제공하는 생각해 볼 거리를 제시하였습니다.

P A R T

1

인천의 문화재

- 1-1 인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탐방길
- 1-2 옛 전설이 담긴 강화의 문화재
- 1-3 역사 깊은 사찰과 고려의 왕릉
- 1-4 염하를 따라 걸으며 배우는 외세 침략과 저항의 역사
- 1-5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화도



1-1

인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탐방길

역사 | 문화 | 지리

체험코스

- ① 송암 박두성 기념관 → ② 송암 미술관
→ ③ 능허대공원 → ④ 인천시립박물관 → ⑤ 가천박물관

총거리 6.3km
도보시간 2시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 3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3학년 2학기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4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6학년 1학기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키워드

#훈맹정음 #인천의 박물관 #인천의 미술관 #인천의 유적지



1-1

인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탐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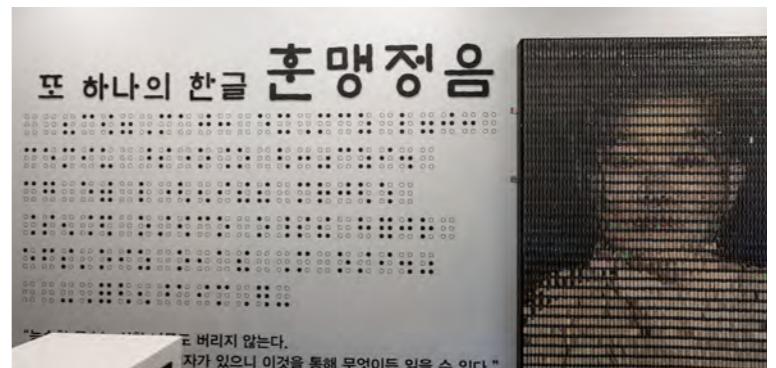
인천의 역사, 예술, 교육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문화 유산 탐방길

인천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 장수왕(475) 때로 매소흘현(賈召忽縣)이었다.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경덕왕 때 한자식으로 바뀌어 소성현(召城縣)이 되었다. 고려 숙종(재위1095~1105) 때 숙종 어머니의 고향이라 하여 경원군(慶源郡)으로 개칭·승격되었고, 그 뒤 인종(재위1122~1146) 때 순덕왕후 이씨의 고향이라 하여 인주(仁州)로 승격되었다. 이자겸으로 난으로 인주 이씨가 몰락하다시피하였으나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7대 동안 고려왕 실과 관련 있는 지역이라 하여 공양왕 2년(1390)에 다시 경원부로 환원되었다.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경원부는 다시 인주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태종 13년(1413) 주(州)자를 가진 도후부의 군·현 명을 산(山), 천(川) 두 글자 중 하나로 개정하도록 하여 현재의 인천(仁川)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인천은 2천 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전통문화와 개항 이후 유입된 근대 문화,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현대문화가 섞여 있어 다양하고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이다. 또한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수많은 외국인이 첫 발을 내딛는 도시이기도 하다.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관문이었으며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시대를 펼쳐나가는 거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코스는 이러한 인천의 역사와 예술, 교육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문화유산 탐방코스이다. 인천의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를 둘러보며 인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발견해 보자.

첫 번째 만남

송암 박두성 기념관

훈맹정음에 새겨진
애맹정신



▲ 송암 박두성 기념관

송암 박두성 기념관은 한글 점자를 창안하여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고 애맹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1888년 4월 26일(양력) 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6번지 달우물마을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라는 흔박의 시대를 살았다. 시각장애인들이 일본어 점자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7년의 노력 끝에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보급하였다. 또한 우편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통신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는 시각장애인의 교육, 재활, 복지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송암 선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유품 및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두 번째 만남

송암 미술관

고풍스러운 예술의 정취

인천 문학산 끝자락에 위치한 송암 미술관은 단아한 소나무 정원과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축물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다. OCI(옛 동양제철화학) 그룹 창업자인 고(故) 송암 이희립 회장이 평생 수집한 고미술품을 인천광역시에 무상 기증해 2011년에 개관했다. 전시실은 크게 1층 공예실과 2층 서화실로 이뤄진다. 공예실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기까지의 도자, 불교 공예, 민속 공예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화실은 정선 등 여러 대가의 회화와 함께 민화, 불화 등을 전시한다. 특히 조선 후기 평양의 모습을 8폭 병풍에 사실적으로 재현한 ‘평양성도 병풍’은 현존하는 평양성도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201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해마다 개최하는 기획특별전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다



▲ 송암 미술관

채로운 주제로 우리 옛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야외 정원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문인석, 장승, 불두, 석탑 등 여러 석조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중국에 위치한 광개토대왕릉비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거대한 모형도 만나볼 수 있다. 송암 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전 시대와 전 장르를 망라한 11,000여 점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열린 문화 공간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능허대

도심에서 만나는
백제의 나루터



▲ 능허대지

능허대는 백제가 중국 동진과 교류를 시작한 372년부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475년까지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을 태운 배가 출발하던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당시 능허대공원 일대의 포구를 한나루, 한 자로는 대진(大津) 또는 한진(漢津)이라 불렀다. 한성에서 마포를 거쳐 양화진~부평~경신역(현 수산동)~사모지고개(삼호현)를 거쳐 이곳 능허대에서 출발, 덕적도를 거쳐 중국 산동반도에 도착하는 해상길이었

네 번 째 만 남

인천시립박물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인천역사의 발자취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자유공원에서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수집·보전·전시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1953년 휴전 후 송학동에 위치한 인천문화원(구 제물포구락부)으로 이전하였다. 1990년 5월 4일 기존 박물관의 노후·협소로 인하여 현 옥련동 부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하까지 총 4개 층으로 시설이 이루어져 있으며,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유물과 유적 그리고 각종 도자기와 서예 및 산수화 등 약 4,700여 점의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다.

다섯 번 째 만 남

가천박물관

우리나라 최대의
의료생활사 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가천박물관은 가천문화재단 부속 박물관으로 1995년 10월 문을 열었다. 가천박물관은 한국사에 나타나는 의료생활사를 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대의 의료사 박물관이다. 1층은 의학사료관으로, 2층은 국보·보물관과 창간호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박물관 중 가장 많은 의학 관련 국가지정문화재를 소



▲ 가천박물관

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장물로는 인천 유일의 국보인 '초조본유가사지론 권 제53'을 들 수 있다. 초조본유가사지론 권 제53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교문화재 가운데 하나로, 불력을 이용해 거란군의 침입을 물리치려 했던 조상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다. 또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초를 집대성한 향약집성방의 기초가 되는 '향약제집성방'과 중국에서 전해오는 한의학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찬한 전문 의학서인 '태산요록' 등 귀중한 보물 13점을 소장하고 있다.

답사활동

01 답사한 내용을 떠올리며 가로세로퀴즈를 풀어보자.

1				①		
						⑤
2		②				
			③		④	
3						
4						

[가로열쇠]

- 1946년 4월 자유공원에서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수집·보전·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 1923(1923년 완성된 점자를 보완하여 1926년 발표)년 송암 박두성이 만든 점자로 된 훈민정음
- 백제시대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을 태운 배가 출발하던 나루터가 있던 곳
- OCIO(옛 동양제철화학) 그룹 창업자인 고(故) 송암 이회림 회장이 평생 수집한 고미술품을 인천광역시에 무상 기증해 2011년에 개관한 미술관

[세로열쇠]

-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보급하여 시각장애인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교육자
-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송암미술관에는 이화가의 작품인 '노송영지도'가 전시되어 있음
- 여럿을 모아 하나로 크게 완성하는 것. '가천박물관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초를 ○○○한 향약집성방의 기초가 되는 '향약제집성방'을 소장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의료사 박물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에 위치한 고려시대 사찰

02 「인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탐방길」에서 만난 인천의 문화유산 중 한 가지를 골라 소개해보자.

내가 소개할 문화유산	내가 소개할 문화유산 설명	이 문화유산을 고른 까닭

답사 후 학습활동

관련 단원

-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활동목표

-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알아보고, 지역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소개 자료 만들기
 - 관람한 문화유산 중 기억에 남는 문화유산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기
 - 내가 조사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
(소개자료 예시) 소개책자, 포스터, 그림책, 만화, 동영상, 랩 등)
- 활동2 :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가상 인터뷰하기
 - 답사과정에서 만난 인천의 역사적 인물 중 기억에 남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 역사적 인물과 가상 인터뷰 대본 작성하기
 - 모둠 친구들과 가상 인터뷰 역할극 하기
- 활동3 : 인천 화폐 디자인하기
 -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또는 역사적 인물을 골라 인천 화폐 디자인하기
 - 문화유산 또는 역사적 인물을 고른 까닭 설명하기

[가로세로 퀴즈 정답] 1. 인천시립박물관 / 2. 훈맹정음 / 3. 능허대 / 4. 송암미술관
 ① 박두성 / ② 정선 / ③ 집대성 / ④ 가천박물관 / ⑤ 흥륜사

생각해 볼 거리

미추홀구와 연수구 일대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유적지가 모여 있어 인천의 유·무형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에 대해 탐방하기 좋다. 특히 초등학교 3,4학년의 사회과 지역화 단원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통해 인천의 역사를 생생하게 살펴보고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송암 박두성 기념관과 송암미술관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 체험학습 전에 사전답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송암미술관 관람시에는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사전예약시스템 <https://culture-tour.incheon.go.kr/>)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이우평 외, 2020, 인천을 품고 세계로 -인천탐방길-, 인천시교육청

인터넷 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인천관광공사 <https://itour.incheon.go.kr/>
- 인천광역시청 <https://www.incheon.go.kr/>
- 송암박두성기념관 <http://ibusongam.or.kr/>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https://www.incheon.go.kr/museum/index>
- 가천박물관 <http://www.gcmuseum.org/>
- 한글박물관 웹진(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webzine/202011/sub2_1.html

1-2

옛 전설이 담긴 강화의 문화재 문화|역사|지리

체험코스

- ① 강화 장정리 5층석탑 → ②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 ③ 강화역사박물관 → ④ 강화고인돌유적
→ ⑤ 백련사 → ⑥ 청련사

총거리 9.2km

도보시간 2시간4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 4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5학년 2학기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중학교]

- 사회 1 문화의 이해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미술 2 미술의 흐름
역사 2 I.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III. 고려의 성립과 변천

[고등학교]

- 한국사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여행지리 III.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키워드

- #강화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고인돌
#강화역사박물관 #청련사 #백련사



1-2

옛 전설이 담긴 강화의 문화재



고려의 문화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고려산 오색 연꽃의 흔적이 담긴 사찰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강화에는 옛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문화재가 있다.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은 고려시대의 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봉고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임시로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수도 개성에 있던 봉은사를 장정리로 옮겨왔지만 새로 옮겨온 봉은사 터가 좁아 석조여래입상을 석탑과 약 300m 떨어진 자리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강화에서는 신석기, 청동기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서 강화를 대표하는 유적은 청동기 유물인 고인돌이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고인돌 무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화도면 사기리와 동막리 등에서 출토된 구석기시대 유물로 볼 때, 약 1만에서 1만 5,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화 내에 160여 개의 고인돌이 있으며 이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만 70여 기에 이른다. 그래서 강화는 전남 화순, 전북 고창과 함께 한반도의 고인돌을 대표하는 3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 장수왕 4년 한 인도 승려가 절터를 찾고 있었는데 강화도 고려산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 색이 다른 다섯 빛깔의 연꽃이 만발한 연못을 발견하였다. 그 승려는 오색 연꽃을 꺾어서 공중으로 날리고 색이 다른 연꽃이 떨어진 다섯 곳에 사찰을 짓도록 하였다. 하얀 연꽃이 떨어진 곳에 백련사(白蓮寺), 노란 연꽃이 떨어진 곳에 황련사(黃蓮寺), 푸른색 연꽃이 떨어진 곳에 청련사(靑蓮寺), 붉은색 연꽃이 떨어진 곳에 적련사(赤蓮寺), 검은색 연꽃이 떨어진 곳에 흑련사(黑蓮寺)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적련사가 산불이 자주난다고 하여 붉을 적(赤)을 쌓을 적(積)으로 바꾸어 적석사가 되었다고 한다. 다섯 절을 창건한 인도 승려는 산 이름도 오련산(五蓮山)이라고 하였는데 후에 이르러 고려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옛 전설이 담긴 문화재는 많다. 차근차근 한 장소씩 찾아가보자.

첫 번째 만남

강화 장정리

5층 석탑

고려시대 임시수도
강화도의 석탑



▲ 강화 장정리 5층석탑(위) / 5층 석탑의 전설(가운데) /
봉은사지 우물터(아래)

강화 장정리 5층석탑은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세워진 5층석탑으로 발견 당시 무너져 있어서 1960년 수리하여 다시 세운 것이다. 석탑은 파손된 곳도 많고, 없어진 부분도 많아서 3층 이상의 몸돌과 5층의 지붕돌, 머리장식 부분 등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이 석탑이 있던 곳은 낮은 언덕에 자리한 절터이며 규모를 알 수 없고, 가름을 배치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탑은 1층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을 새겼다. 탑신부는 1층 몸돌만 두 장의 돌로 짜여있고, 그 이상은 각각 하나의 돌로 되어 있다. 1층 몸돌의 크기에 비해 2층 몸돌의 크기가 매우 줄어 있다. 지붕돌 밑면에 1층은 4단, 나머지 층은 3단의 받침을 두었으며, 추녀 밑은 반듯하다가 네 귀퉁이에서 약간 솟아올라 있다. 탑이 무너졌을 때 추녀마루가 깨져, 솟아오른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 탑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며, 각 부분에 장식이 많이 생략되고, 형식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 이 석탑은 건축 기법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되고, 봉은사 오층 석탑으로 불리기도 한다.(봉은사는 개성에 있던 고려시대의 국가사찰로 고종 19년인 1232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길 때 강화도에 지어졌다.)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두 번 째 만 남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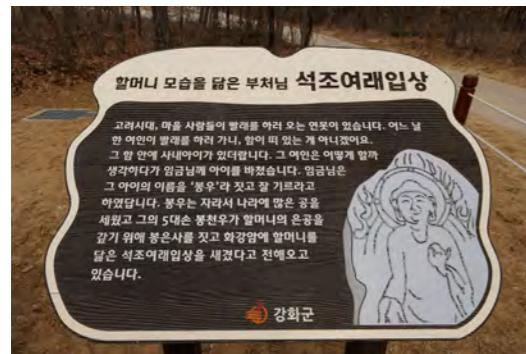
고려시대 임시수도
강화의 불상



▲ 전각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소재한 이 불상은 강화 장정리 오층 석탑과 함께 고려시대 사찰인 봉은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꺼운 판석 위에 조각된 고려시대의 석조여래입상이다. 전체적으로 장대하고 불신의 비례가 좋은 편이나 큰 얼굴, 좁은 어깨, 큰 손 등이 다소 균형감을 깨고 있다. 지금은 전각을 세우고 그 안에 보존하고 있다. 높이 2.8m의 마애불로 머리 위에 큼직한 육계가 솟아 있고 얼굴은 둥근 편으로 입가부터 양쪽 볼과 눈매에 이르기까지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다. 전체적으로 입상의 하반부는 간략하게 조각되어 있다. 평평하고 선으로 조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불상으로 모든 면에서 단순하게 생략되어 보인다. 양감이 있는 얼굴, 좁은 목, 움츠린 어깨, 형식적인 옷주름 등에서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강화 장정리 오층 석탑과 같은 전설을 가지고 있다. 1978년 3월 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위)
석조여래입상의 전설(아래)

세 번 째 만 남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의 문화유산을
연구·보존·전시



▲ 강화역사박물관 외관



▲ 전시실 내부 모습

강화역사박물관은 강화의 문화유산을 보존·연구하여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립박물관이다. 갑곶돈대 옆에 위치해 있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앞에 이전하여 2010년 개관하였다. 상설전시실에는 강화의 선사시대 유적지와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유물과 향교, 전통사찰 소장품 등의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에는 해마다 다채로운 주제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강화 역사의 이해를 돋기 위해 영상실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몇 세기에 걸친 수많은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네 번 째 만 남

강화고인돌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은 우리나라의 탁자식 고인돌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위엄 있는 탁자식 고인돌의 형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근리 고인돌은 주변의 여러 고인돌과 함께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과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



▲ 강화 부근리 지석묘(위) / 고인돌 일부(판석)(아래)
▼ 강화고인돌유적지(고인돌 공원)



된다. 부근리 고인돌군은 사적 제137호로 지정된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해발 50m 내외의 낮은 구릉과 평지에 모두 16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평지에는 사적 제 137호인 강화 부근리 지석묘와 탁자식 고인돌의 고임돌로 추정되는 석재 하나가 세워져 있다. 여기서 북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솔밭에 덮개 돌 밑에 고임돌이 없는 고인돌인 개석식 고인돌 3기가 축조되어 있으며, 사적 제 137호의 동쪽 낮은 구릉에는 탁자식 4기와 개석식 고인돌 4기가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의 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고인돌’과 ‘지석묘’는 같이 쓰는 용어이며 고인돌은 덮개돌을 받침돌로 괴어 놓아서 생긴 명칭이며 한자로는 지석묘(支石墓)라고 한다.

다섯 번째 만남

백련사

하얀 연꽃이 닿은 자리에
지어진 사찰



▲ 백련사 극락전



▲ 백련사 범종각(위) / 백련사 승탑(아래)

백련사는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고려산에 있는 절이다. 고구려 장수왕 4년(416년), 중국 동진(일부에서는 인도라고도 함)의 천축조사가 오련산(지금의 고려산)에 올라갔다가 연못에 다섯 색의 연꽃을 보았다. 오련산 연못에 편 다섯 색의 연꽃 송이를 날려 연꽃이 떨어진 곳이 부처님의 인연이 닿은 곳이라 믿고 연꽃이 떨어진 곳에 백련사(白蓮寺), 노란 연꽃이 떨어진 곳에 황련사(黃蓮寺), 푸른색 연꽃이 떨어진 곳에 청련사(青蓮寺), 붉은색 연꽃이 떨어진 곳에 적련사(赤蓮寺), 검은색 연꽃이 떨어진 곳에 흑련사(黑蓮寺)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적련사가 산불이 자주난다고 하여 붉을 적(赤)을 쌓을 적(積)으로 바꾸어 적석사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적석사, 백련사, 청련사 3곳만 남아있다.

천축조사가 날린 흰색 연꽃이 닿은 자리에 세워진 절이라는 백련사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장소였다.

병인양요 때는 퇴각하는 프랑스군이 장녕전을 불태우자 숙종과 영조의 초상화를 이 절에 피신시켰다고 한다. 고려 불상과 부도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백련사에는 1989년에 보물 제994호로 지정된 고려불상 철아미타 불좌상(鐵阿彌陀佛坐像)이 있었는데 보물로 지정된 그해 12월 안타깝게도 도난당해 지금은 볼 수 없다.

여섯 번째 만남

청련사

파란 연꽃이 닿은 자리에
지어진 사찰



▲ 청련사 큰법당



▲ 청련사 승탑(위) / 청련사 전경(아래)

청련사는 강화읍 국화리 고려산에 있는 사찰로 강화도에는 하나밖에 없는 비구니 절이다. 천축조사가 고려산에서 날린 파란 연꽃이 닿은 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원통해서 청련사를 지은 후 원통암을 다시 지었다고 한다. 그 전설이 과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통암은 1984년 5월 20일 청련사와 합사해 지금은 원통전이라 부른다. 큰법당 안에는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높은 품격과 세련미를 볼 수 있는 보물 제1787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본존으로 있고 불당의 벽면에는 탱화가 걸려 있다. 청련사에서 고려산 정상으로 오르는 낙조봉 능선길은 약 130여 기의 고인돌 군이 눈길을 끌고 고구려 연개소문이 무술을 연마했다는 치마대(馳馬臺)와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오련지도 만날 수 있다.

답사활동

01 답사지역의 사진과 답사지역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을 연결해보자.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이다. 강화도 하점면 부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여러 고인돌과 함께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고려시대에 세워진 5층석탑으로 봉은사 오층 석탑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려시대 한 여인이 빨래터에서 한 아이를 발견하여 임금님에게 바쳤고 '봉우'라는 이름으로 자라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고 후손 '봉천우'가 고마움을 마음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탑이라는 전설이 있다.

고려시대 사찰인 봉은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꺼운 판석 위에 조각된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 높이 2.8m의 마애불로 머리 위에 큼직한 육계가 솟아 있고 얼굴은 둥근편으로 입가부터 양쪽 불과 눈매에 이르기까지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 근처에 있는 박물관으로 강화의 선사시대 유적지와 고려왕릉에서 출토 된 유물과 향교, 전통사찰 소장품 등의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 고려산 연못에 편 다섯 색의 연꽃 송이를 날려 연꽃이 떨어진 곳이 부처님의 인연이 닿은 곳이라 믿고 연꽃이 떨어진 자리마다 절을 세웠다고 하는데 하얀 연꽃이 떨어진 곳에 세워진 절이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고려산 연못에 편 다섯 색의 연꽃 송이 중 파란색 연꽃이 떨어진 자리에 지어진 절이다. 처음에 떨어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원통암을 다시 지었다고 한다. 강화도에 하나밖에 없는 비구니 절이기도 하다.

02 옛 전설이 담긴 강화의 문화재를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답사 노트에 정리해보자.

답사 중 인상에 남는 건물이나 문화재의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하여 이곳에 붙여 봅시다.

강화의 문화재 중 옛 전설이 담긴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써 봅시다.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 중학교 사회 1 문화의 이해
- 중학교 사회 1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 중학교 미술 2 미술의 흐름
- 중학교 역사 2 I.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 중학교 역사 2 III. 고려의 성립과 변천
- 고등학교 한국사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 고등학교 여행지리 III.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 활동목표

- 옛 전설이 담긴 문화재를 살펴보며 옛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문화재를 살펴보며 그 시대의 미술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과 주변의 고인돌의 유적들을 더 조사하면서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옛 전설이 담긴 문화재
 - 강화도에 전설이 있는 문화재 더 찾아보기
 - 옛 전설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역사적 사실 찾아보기
 - 문화재의 특징을 살펴보며 그 시대의 미술적 표현 방법 알아보기
 - 토의를 통해 의견 조정 및 결정하기
- 활동2 : 강화의 고인돌 유적 지도에 표시하고 알아보기
 - 강화 지도를 찾아 인쇄하기
 - 강화 부근리 지석묘 근처 강화 고인돌 유적지 표시하기
 -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표시하기
 - 강화 교산리 고인돌군, 강화삼거리 고인돌군 표시하기
 - 강화 삼거리 고인돌군, 하도리 오류내 고인돌군 표시하기
 - 고인돌의 용도 및 제작 방법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 찾아 적어보기

생각해 볼 거리

우리나라 문화재 중 사람들의 시선이 자주 가거나 통행이 많은 곳의 문화재는 잘 보호·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외지에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덜 한 곳의 문화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을 보면 국가가 지정한 보물이자 문화재이지만 초라하게 보이고 보존을 하지 못해 파손된 부분도 보인다. 문화재를 통해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지혜도 배울 수 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이다. 문화재는 역사 공부의 중요한 자료이자 우리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나라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강화군청 <https://www.ganghwa.go.kr/>
- 인천관광공사 <https://www.ito.or.kr/>
- 강화역사박물관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

1-3

역사 깊은 사찰과 고려의 왕릉

문화 | 역사 | 지리

체험코스

- ① 전등사 → ② 정수사 → ③ 강화 가릉 → ④ 강화 석릉
⑤ 강화 곤릉

총거리 28.1km

도보시간 1시간(차량이동, 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 4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5학년 2학기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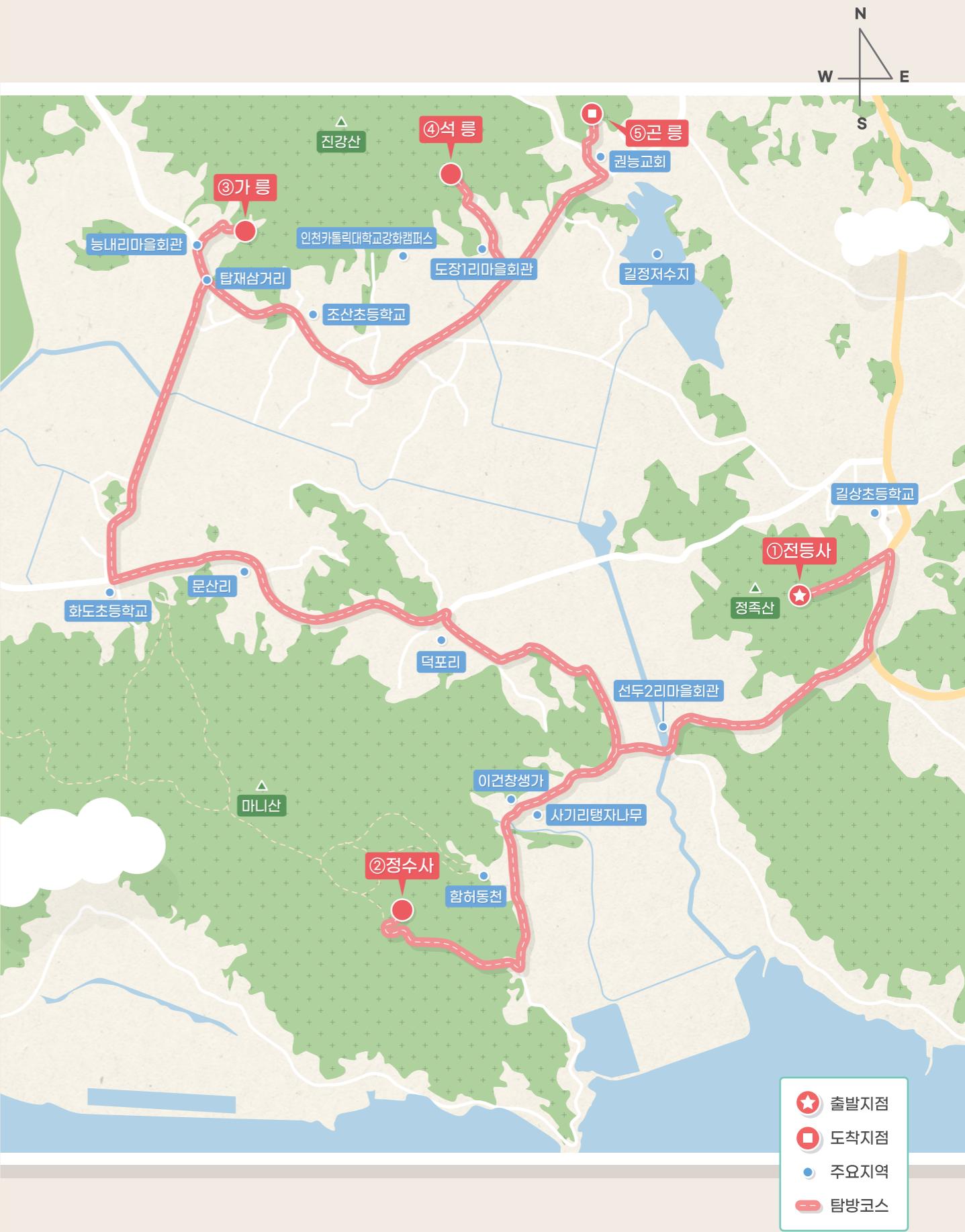
- 사회 1 문화의 이해
사회 1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역사 2 고려의 성립과 변천
I.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III. 고려의 성립과 변천

[고등학교]

- 한국사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키워드

#강화 #전등사 #정수사 #고려의 능 #가릉 #석릉 #곤릉



1-3

역사 깊은 사찰과 고려의 왕릉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과 남쪽에 남아 있는 고려의 능

국내에서 4번째로 큰 섬인 인천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린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는 다채로운 역사·문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인 셈이다.

강화에는 단군의 세 아들과 관련된 설화가 남아 있는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삼랑성)이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전등사와 아름다운 전각이 있고 물이 맑은 절인 정수사가 있다. 이곳들은 한반도의 역사적 장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서 보존해야 할 공간이다.

수도권에 널리 분포된 조선 왕릉은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강화에 있는 고려 왕릉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고려 왕릉은 대다수가 당시 수도였던 개경 근처 오늘날 북한의 개성에 분포하고 있다. 남쪽의 고려 왕릉은 강화에 있는데 강화석릉, 강화곤릉, 강화홍릉, 강화가릉으로 4기의 왕과 왕후의 능이다. 그리고 비록 능호가 밝혀지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규모나 형식 면에서 왕릉급으로 추정되고 있는 능내리 석실분도 있다. 남쪽에서 볼 수 있는 고려의 왕릉을 찾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전등사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찰



▲ 전등사 동문



▲ 전등사 남문 종해루(위) / 전등사 대웅전(아래)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에 위치한 전등사는 삼국시대인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년)때 아도화상이라는 승려가 진종사(眞宗寺)란 이름으로 창건한 절이다. 전등사는 지금까지 1600여 년간 터와 사찰이 모두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찰로 남아있다. 전등사는 고려시대부터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로서 중하게 여겼고, 정화궁주가 절에 대장경과 함께 옥으로 만든 법등을 기증하면서 진종사(眞宗寺)라는 절 이름을 전등사(傳燈寺)로 바꾸었다. 전등사로 오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이다. 단군왕검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정족산성의 일부인 동문이 있고 종해루라는 남문이 있다. 정족산성은 병인양요 당시 승려, 의병, 관군이 힘을 합해 프랑스군을 물리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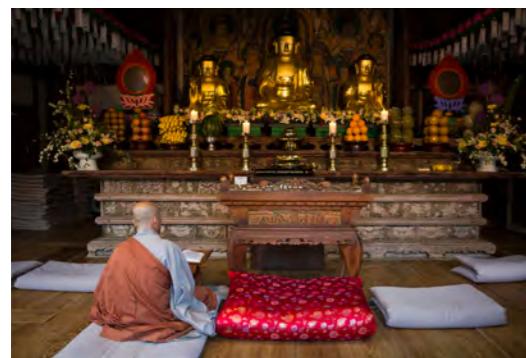
전등사에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대웅전(보물 제178호)을 비롯해 약사전(보물 제179호), 철종(보물 제393호) 등 보물 6점과 여러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전과 약사전에 무수한 병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동문 앞에는 양현수 장군의 승전비가 있다.

대웅전은 1605년 절반이 불에 탔던 것을 1614년~1621년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678년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찰로 지정되어 왕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방화로 정족산성 외부의 암자와 건물들이 방화되어 사



▲ 전등사 약사전



▲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 강화 정족산사고

두 번 째 만 남

정수사맑은 물이 솟아나는 곳의
사찰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사기리 산123-1)에 있는 정수사(精修寺)는 신라 선덕여왕 8년(639년) 회정대사가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 왔다가 그 동쪽에 좋은 기운이 넘치는 땅을 보고 절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다 고려와 조선 초기에 활동하던 함허대사가 조선 세종 5년 (1423년)에 다시 지었는데, 건물 서쪽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이름을 정수사(淨水寺)라 고쳤다고 한다. 정수사 대웅보전은 몸체와 뒷간 부분

라지고, 불상과 법전 등 문화재가 약탈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지만 당시 전등사 스님들이 정족산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문서를 토굴로 옮겨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전등사에는 철종도 있는데 중국 송나라 때 만든 무쇠로 만든 중국 종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병기를 만들려고 지금의 인천 부평 병기창에 갖다 놓은 것을 광복 후에 다시 옮겨놓은 것이다. 정족산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네 곳의 외사고(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중 한 곳이다. 정족산사고가 설치된 계기는 마니산사고가 실화사건으로 많은 사적이 불타버리자 새로이 정족산성에 사고 건물을 짓고 남은 역대 실록들과 서책들을 옮겨 보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임진왜란 때 유일본으로 남은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 본이 묘향산사고로 옮겨졌다가 다시 마니산사고를 거쳐 이곳으로 옮겨졌으며 선원보각이 함께 지어졌다. 실

록은 1910년 이후 서울로 옮겨졌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전등사 철종



▲ 정수사 대웅보전



▲ 정수사 대웅보전 문창살(위) / 정수사 감로수(아래)



에는 연꽃 장식이 새겨져 있다. 조형수법이 세련미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감과 안정감을 준다. 주위에 장대석을 둘러 보호하고 있다.

의 공포가 눈에 띄게 달라 시대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몸체는 조선 초기 주심포계의 전형으로 간결한 모습이지만, 뒷간의 공포는 조선 후기의 장식적 경향이 뚜렷하다. 대웅보전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화려한 연꽃이 다른 법당에서는 보기 드문 형식이다. 또한 연꽃무늬가 조각된 문창살이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다.

정수사 법당 뒤 오른쪽 언덕 위 약 100m 되는 지점에는 함허대사의 부도가 있다. 부도는 스님이 돌아가신 후 화장하고 남은 다비 등의 유해를 모신 묘를 말한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함허대사가 정수사에 입적하자 그의 수도처였던 뒷산 중턱에 현 부도를 봉안한 것이라고 한다. 부재는 화강암이며, 전체 높이는 164cm이다.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단 위에 둥근 모양의 탑신을 놓고 그 위에 옥개석을 얹어 정상의 상륜(相輪)을 장식했다. 기단부

에는 연꽃 장식이 새겨져 있다. 조형수법이 세련미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감과 안정감을 준다. 주위에 장대석을 둘러 보호하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강화 가릉

고려 원종 비의 능



▲ 강화 가릉

▲ 강화 능내리 석실분(위)
가릉 입구에 있는 시(아래)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 16-2에 있는 강화 가릉은 고려 제24대 원종의 비 순경태후 김씨(順敬太后 金氏)의 무덤이다. 순경태후는 최씨 무인집권자 최우의 사위인 김약선의 딸로서 고종 22년(1235년) 원종이 태자가 되자 태자비인 경목현비가 되었으며, 다음해에 충렬왕을 냉고 사망하였다. 원종 3년(1262년) 정순왕후로 추대되고 아들인 충렬왕이 즉위(1274년)하여 순경태후로 높여졌다. 가릉은 강화에 있는 왕릉과는 달리 지상식 석실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석실의 전면에는 유리벽을 설치하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봉분 뒤에는 반달 모양으로 두둑하게 토성(土城)을 둘러쌓거나 돌담을 쌓은 곡장이 있으나 가릉에는 사성(莎城), 곡장(曲牆)이 없이 약간 경사진 평지에 봉분을 쌓아 올린 형태이다. 묘역은 3단의 장대석단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왕릉의 형태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봉분이 붕괴되고 석조물은 파괴된 채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74년 보수하였고,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봉분 주변에는 현재 한 쌍의 석수가 있고 봉분 앞에는 석인상 한 쌍이 남아 있을 뿐 석물들이 파괴 또는 유실되어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강화 가릉 뒤에 왕릉급의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을 강화 능내리 석실분(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8호)이라고 한다. 무덤 앞 양편에는 망주석으로 추정되는 사각 석주가 남아 있으며, 사각 석주의 3면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양이 양각되어 있다. 고려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진 이 고분은

과거 도굴로 인하여 석실이 노출되어 있어 보존·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한 발굴을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에 이르기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석실 내부는 화강암을 잘 다듬어 축조되었으며, 봉분구조물과 석실, 건물지가 양호하게 남아 있어 고려시대 지배계급 묘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청자편, 각종 금은제장식 파편, 유리그릇편·구슬류, 상부원보(祥符元寶) 1점, 은제못, 금박장식관재 등 소량이지만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특히 봉황머리를 나타낸 은제장식편의 경우 문양이 있는 곳에만 도금처리하여 장식적 효과가 뛰어나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봉황문양은 전통적으로 왕비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대몽항쟁기 강화에서 사망하였으나 능이 확인되지 않은 회종의 왕비인 성평왕후나 고종의 왕비인 안혜태후의 묘로 추정하고 있다.

네 번 째 만 남

강화 석릉
(사적 제369호)

고려 회종의 능

▲ 강화 석릉(위)
석릉 입구에 있는 시(아래)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82번지에 있는 강화 석릉은 고려 21대 회종(熙宗, 재위 1204~1237)의 무덤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종 24년(1237년) 8월에 회종이 57세로 법천정사(法天精舍)에서 승하하자 낙진궁(樂眞宮)으로 옮겨졌으며, 10월에 덕정산(德政山) 남쪽 석릉에 장례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회종은 1204년에 신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최충현이 권력을 남용하자 1211년 내시 왕준명(王濬明) 등과 함께 최충현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최충현에 의해 폐위당하여 강화로 쫓겨났다가 이어 용유도로, 교동도로 옮겨졌다가 1219년 귀양에서 풀려나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227년 복위의 음모가 있다는 무고로 다시 강화로 쫓겨났다가 교동으로 옮겨졌고, 법천정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묘역의 하단에는 정자각이 위치 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혼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2단에 1기의 석인상, 봉분 옆에 1기의 석인상이 남아 있다. 특히 석릉은 강화에 있는 다른 왕릉과는 달리 봉분 뒤편에 곡장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조선 현종 때 강화 유수 조복양이 강화의 고려 왕릉을 확인하고 보수하였으며, 매년 능참봉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고 한다. 1895년 이후 관리가 소홀해졌고 일제

하였다. 묘역의 하단에는 정자각이 위치 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혼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2단에 1기의 석인상, 봉분 옆에 1기의 석인상이 남아 있다. 특히 석릉은 강화에 있는 다른 왕릉과는 달리 봉분 뒤편에 곡장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조선 현종 때 강화 유수 조복양이 강화의 고려 왕릉을 확인하고 보수하였으며, 매년 능참봉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고 한다. 1895년 이후 관리가 소홀해졌고 일제

석릉으로 가는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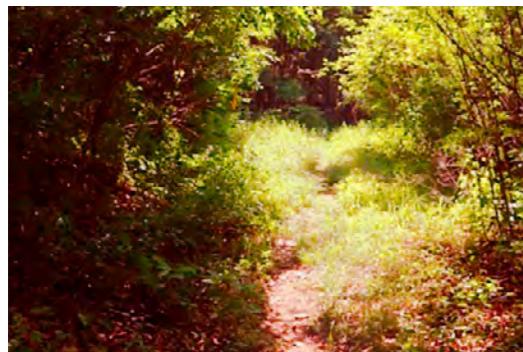


강점기 때에 도굴되어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74년 보수 정화하였다. 2002년에는 남한에 있는 고려왕릉 최초로 발굴하여 유구를 확인하였고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발굴 당시 청자편을 비롯하여 관장식용 금속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다섯 번째 만남

강화 곤릉
[사적 제371호]

강화 강종 비의 능



▲ 강화 곤릉(위) / 강화 곤릉으로 가는 길(가운데)
곤릉 입구에 있는 시(아래)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에 있는 강화 곤릉은 고려 제22대 강종(재위 1211-1213)의 비 원덕태후 유씨(元德太后 柳氏)의 무덤이다. 원덕태후는 종실 신안후(信安侯) 성(城)의 딸로 왕실 동성을 피하기 위하여 유씨라 하였으나 누구의 성을 따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유씨는 강종 1년(1212년)에 왕비로 봉해졌고 연덕궁주(延德宮主)라 하였으며, 고려 23대 고종의 어머니이다. 이후 원덕태후로 추존되었고, 1253년 정강(靖康)의 시호가 더해졌다. 곤릉은 전체적으로 3단으로 되어 있다. 봉분과 석축, 곡장(曲牆)은 붕괴되고 석조물은 없어진 채 폐허가 된 것을 1974년 보수, 정화하였다. 본래 묘역은 고려 후기의 왕실 묘제를 따라 문·무인석의 석조물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묘표만 남아 있다. 상단에는 곡장이 파괴되어 없어졌고 그를 대신해서 봉분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두둑하게 토담을 둘러쌓아 놓았고 그 안에 원형 봉분이 있다. 봉분하단 전면에는 틀레들이 일부 복원되어 있다. 2단 중앙에는 작은 묘표가 있는데, 묘표에는 '고려원덕태후곤릉(高麗元德太后坤陵)'이라 새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2단에는 석인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곤릉에는 석물이 모두 유실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하단에는 정자각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가 정비되어 있다.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였고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답사활동

01 답사지역의 사진과 답사지역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을 연결해보자.



지금까지 1600여 년간 터와 사찰이 모두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고려시대부터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로 소중히 여겼다. 대웅전은 불에 탔던 것을 조선시대에 다시 지은 것으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네 곳의 외사고 중 한 곳이다. 이 사고가 설치된 계기는 마니산사고가 실화사건으로 많은 사적이 불타버리자 새로이 이곳에 건물을 짓고 남은 역대 실록들과 서책들을 옮겨 보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건물 서쪽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이름을 정수사(淨水寺)라고 다시 지었다. 연꽃무늬가 조각된 문창살이 매우 아름다운 대웅보전이 있다.

- 고려 제24대 원종의 비 순경태후 김씨의 무덤이다. 강화에 있는 왕릉과는 달리 지상식 석실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석실의 전면에는 유리벽을 설치하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 고려 21대 희종의 무덤으로 강화에 있는 다른 왕릉과는 달리 봉분 뒤편에 곡장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고려 제22대 강종의 비 원덕태후 유씨의 무덤이다. 봉분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두둑하게 토담을 둘러쌓아 놓았고 그 안에 원형 봉분이 있다.

02 역사 깊은 사찰과 고려의 왕릉을 답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답사 노트에 정리해보자.

답사 중 인상에 남는 사찰의 건물이나 문화재의 사진, 왕릉과 주변의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하여 이곳에 붙여 봅시다.

강화도에는 전등사, 정수사 이외에 역사 깊은 사찰이 더 있고 고려의 왕릉이 하나 더(홍릉)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을 찾아서 내용을 적어 봅시다.

답사 후 학습활동

관련 단원

-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 중학교 사회 1 문화의 이해
- 중학교 사회 1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 중학교 역사 2 고려의 성립과 변천
- 중학교 역사 2 I.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 중학교 역사 2 III. 고려의 성립과 변천
- 고등학교 한국사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활동목표

- 인천에 있는 사찰 중 강화도에 있는 역사 깊은 사찰과 사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며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 고려시대 몽골 침입에 맞선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고려의 왕릉 중 일부가 강화도에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전등사와 정수사 홍보자료 만들기
 - 전등사의 문화재 사진과 자료 찾기
 - 전등사의 역사적 자료 찾아 작성하기
 - 정수사의 문화재 사진과 자료 찾기
 - 홍보자료 만들기 위한 글과 사진 편집하기
 - 모둠별로 선택한 글과 사진으로 홍보자료 제작하기
- 활동2: 고려의 왕릉 조사해보기
 - 한반도에 고려의 왕릉이 남아있는 곳 찾아보기
 - 고려의 왕릉이 강화도에 남아있는 이유 알아보기
 - 몽골의 침입에 맞서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 알아보기
 - 고려 강화도 천도 후 변화된 강화도의 모습 찾아보기

생각해 볼 거리

조선시대의 왕릉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어 잘 알려져 있지만 이에 비해 고려시대의 왕릉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유는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기 때문에 고려의 왕릉은 대부분 북한 개성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고려의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남쪽에는 강화도에 고려의 왕릉이 남아있게 되었다. 고려 왕릉을 조사하면서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이유에 대해, 그리고 몽골 침입 후 대몽 항쟁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난 후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강화군청 <https://www.ganghwa.go.kr/>
- 인천관광공사 <https://www.ito.or.kr/>
- 강화역사박물관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

1-4

염하를 따라 걸으며 배우는 외세 침략과 저항의 역사

역사 | 평화

체험코스

① 갑곶돈대(전쟁박물관) → ② 더리미 선착장 → ③ 용진진
→ ④ 용당돈대 → ⑤ 화도돈대 → ⑥ 오두돈대 → ⑦ 광성보
→ ⑧ 신미순의총 → ⑨ 용두돈대 → ⑩ 손돌목돈대

총거리 8.7km

도보시간 2시간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2학기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5학년2학기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키워드

#강화도 #호국 #강화나들길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1-4

염하를 따라 걸으며 배우는 외세 침략과 저항의 역사



시린 가슴을 거슬러 호국 돈대길 - 강화의 국방 유적

강화도는 대한민국의 방패이다. 한강 하류와 임진강이 만나 바다로 흘러드는 곳으로 고려의 개성 그리고 조선의 서울로 통하는 관문.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략할 때 항상 거쳤던 섬이 바로 강화도다.

강화도는 지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지만, 취약한 지점도 있었다. 강화도의 북쪽에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에서 흘러들어온 퇴적물이 만든 습지가 많아 적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고 서해에 맞닿은 서쪽과 남쪽 지역에는 갯벌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반면 동쪽은 물살이 빠른 염하가 흐르지만 육지와 가까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에 취약했다. 그래서 선조들은 강화도의 해안을 따라 진, 보, 돈대를 쌓고 방어시설을 구축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남

갑곶돈대 (전쟁박물관)

강화대교를 건너 만나는 첫 돈대와 박물관



▲ 갑곶 돈대



▲ 대포

갑곶돈대

사적 제306호 지정. 면적은 3,475㎡이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해안동로 1366번길 18에 위치한다. 김포에서 강화대교를 건너면 첫 신호등에서 좌회전 해 약 350m 가면 주차장이 나온다.

갑곶이라는 이름은 고구려가 통치할 때 강화를 갑비고차(甲比古次)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전해지며, 고려 때 몽골군이 이곳을 건너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우리 군사들이 갑옷

만 벗어서 바다를 메워도 건너갈 수 있을 터인데’라고 한탄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전설도 있다. 그러나 945년 고려 혜종 2년에 고려 전기의 무신인 박술희(朴述熙)를 갑곶(甲串)으로 유배 보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부터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따라서 몽골군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강화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대몽 항쟁, 고려 왕족들 몰살, 정묘호란·병자호란 등을 거치기도 했으며, 1674년(숙종 1년)에는 이곳에서부터 강화부성 인근까지 제방을 쌓아 1결 60부 80속의 농토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1679년(숙종 5년) 강화도에 48개 돈대를 축조할 때 완성되었으며, 이후 53개까지 돈대를 완성하면서 강화 방어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되었다. 돈대 조성 당시 둘레는 113보, 약 135.6m였고 성첩(城堞 : 성벽 위의 낮은 담) 수는 40첩이었다.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이곳에 상륙해 강화부성을 점령하기도 했다. 1876년(고종 13년)에는 일본이 6척의 함선을 이끌고 와서 이곳으로 상륙한 다음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 뒤 갑곶 돈은 허물어지고 일부만 남아있었으나 1976년에 복원 정화 사업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입구 오른쪽에는 조선시대에 선정을 베푼 강화유수 등 각종 영세불망비와 선정비, 금표비, 삼충사적비 등 총 67기의 강화 비석군이 있으며, 관광안내소 입구에서 약 120m 가면 왼쪽에 천연기념물 제78호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가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전각에는 구경 100mm 대포 1문이 있고, 돌출된 성곽 안에는 구경 26mm 불랑기 1문과 구경 84mm 대포 1문이 있다.



▲ 전쟁박물관

전쟁박물관

강화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역사의 고비 때마다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의 거점이었다. 강화 전쟁박물관은 강화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화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주제로 각종 여론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연구, 보존, 수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안동로 1366번길 18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갑곶돈대와 박물관 안내를 위한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다.(관광 안내를 원할 경우 문의처: 032-930-7076)

제1전시실(1층)은 스페터클한 복합영상을 통해 건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겨레를 지켜온 강화의 호국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제관으로 선사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강화지역의 전쟁 역사를 각종 무기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제2전시실(1층)은 봉고의 침략 당시 강화로 수도를 옮겨 항쟁한 역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강화의 전쟁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강화중성의 건설 모습을 디오라마로 재현하였으며, 봉고 장수와 고려 장수의 대결 모습이 실물 크기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실(2층)은 정묘호란·봉자호란과 병인양요·신미양요 당시 나라의 마지막 보루이자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 조선시대 강화의 전쟁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신미양요 당시 미 해병대가 약탈했다가 2007년에 대여 형식으로 반환한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 및 각종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다.

제4전시실(2층)은 조선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강화의 근현대 전

쟁 역사를 소개한 공간으로 초지진의 수비대가 운요호와 교전하는 모습이 디오라마로 연출되어 있으며, 의병전쟁 및 6·25전쟁에서 사용된 다양한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조선말에 개발된 최초의 방탄조끼인 면갑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두 번째 만남

더리미 선착장

다시 풍요를 기다리는
고깃배들의 쉼터



▲ 더리미 포구

더리미 선착장은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마주치는 갑곶 아래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북쪽에 강화읍, 서쪽에 내가면, 남쪽에 불은면을 두고 있는 작은 포구다. 동쪽은 ‘염하(鹽河)’를 사이에 두고 김포시 월곶면과 마주하고 있다. 염하는 김포와 강화도 사이를 흐르는 강화해협의 모습이 강과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더리미’라는 지명에는 두 가지 설이 유래한다. 하나는 ‘작은 마을들이 하나씩 데려지면서 새로운 마을을 이루게 됐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옛날 이 마을 뒤 언덕에 가리정이란 정자가 있어 더할가(加)자를 ‘더’로 풀어서 더리미라고 불렀다고 한다.

40여 년 전 다리가 놓이기 전 더리미 포구는 섬과 육지를 오가는 배로 붐볐다. 거친 물살을 가르고 그물을 들어올리면 새우 뿐 아니라 자연산 장어와 실뱀장어, 볶어, 농어 등 잡어도 많이 잡혔다고 한다. 그러나 강화교, 강화대교, 신강화대교, 초지대교 등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하나 둘 놓여가며 더리미 선착장을 찾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줄었다. 어획량도 예전만 못해 어업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한강에서 매일 같이 흘러 내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어부들의 한숨과 주름은 점점 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리미 포구는 해맞이를 보려는 연인들과 더리미

장어마을을 찾아 민물장어와 갯벌장어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용진진

큰 길 가에 우뚝 선
참경루



▲ 용진진

인천 강화군 선원면 연리 815에 위치한 기념물 제42호로, 강화의 해안 경계 부대인 12진보 가운데 하나이다. 진보의 설치는 효종 대에 시작되었다. 봉림대군 시절 강화에서 직접 병자호란을 겪었던 효종은 보장처로서의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보 설치에 적극성을 보여 8개의 진보를 세웠다.

용진진은 1656년(효종 7년)에 설치되었으며 각 진보에는 첨사(종3품)나 만호(종4품)나 별장(종9품)이 지휘자로 파견되어 해당 병력을 통솔했다. 용진진은 만호가 책임자로 가리산돈대·좌강돈대·용당돈대를 관할했다. 문루는 참경루(斬鯨樓)인데 홍예 부분만 남아있던 것을 복원하고 좌강돈대도 새로 쌓았다. 좌강돈대는 용진돈대라고도 불린다.

네 번 째 만 남

용당돈대

별나무 그늘에서 내려다보는
절벽 아래의 절경



▲ 용당돈대

강화도 동쪽 염하 강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용당돈대(강화군 선원면 연리1번지)는 1679년(숙종 5년) 강화도 해안 방어를 목적으로 강화 해안선을 따라 축조된 48개 돈대 중 하나다.

가라산돈대, 좌강돈대와 함께 용진진의 관할 아래에 있었던 용당돈대는 용진마을 남쪽의 소구산에서 염하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쪽 끝자락 정상에 지형에 맞추어 축조되었기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 긴 타원형

의 모양을 하게 되었으며, 북서와 남동 방향으로는 강화외성과 연결되어 있고 둘레는 119m이다. 돈대 내부에는 7×5m 규모의 건물 터가 있는데, 상주하던 돈병들의 숙소와 무기고 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쪽과 동쪽, 남쪽에 걸쳐 4개의 포좌를 갖고 있는 용당돈대는 해상에서 볼 때 100m 가량 되는 절벽 위에 올려 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안으로 내다보면 강화해협 물길이 뻣히 보이고, 해협 너머로 김포 지역도 잘 조망되는 곳으로 눈이 시원하고 가슴이 탁 트는 아름다운 풍광이다.

한길에서 약 100m쯤 쭉 들어간 곳에 있어 눈에 띄지 않고, 올라가는 데 다소 숨이 가쁘긴 하지만 돈대 한 가운데 솟아 있는 '별나무'란 별명이 붙은 커다란 떡갈나무와 함께 보는 돈대는 나름의 멋이 있다.

다섯 번 째 만 남

화도돈대

아쉬운 복원, 남겨진 숙제



▲ 화도돈대

강화 선원면 연리 54 소재의 문화재 자료 17호인 화도돈대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43년 후인 1679년(숙종 5년) 강화도 해안 지역의 방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축조한 48돈대 중 하나이다. 원래는 화도보 소속이었으나 1710년(숙종 36년) 화도보가 폐지되면서 오두, 광성돈대와 함께 광성보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돈대의 형태는 남북 면이 35m, 동서 면은 32m로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 구조이며 둘레는 129m이다.

기록에 의하면 둘레는 92보, 치첩은 4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돈대의 내부가 한때 과수원으로 경작되는 등 훠손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북쪽에 무너진 성벽의 석재들이 약간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면 성벽의 터만 남아있을 뿐 완전히 소실되었다. 보다 심층적인 고증을 통해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만남

오두돈대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춘
자라 머리 돈대



▲ 오두돈대

오두돈대(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산1번지)는 지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화해협 언저리에 자라의 머리와 같이 돌출한 지형에 설치되어 있으며, 형태는 원형으로 지름이 32m, 둘레가 107m이고 벽체의 두께는 3.5m이다. 처음에는 화도보에 속했으나 1759년(영조 35년)에 광성보 관할 하에 들어갔다. 덕정산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끝자락에서 해안으로 튀어나온 곳의 꼭대기에 축조된 오두돈대는 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염하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곳에 돈대를 둔 것은 광성보를 돌아 나오는 염하의 첫 물굽이여서 관측에 유리 할 뿐 아니라 방어력과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돈대의 동쪽과 남쪽으로 4개의 포좌를 배치하였고 출입문은 서북쪽으로 두었다. 돈대 남쪽 해안가쪽으로 강화외성 끝부분에 돌출된 바위 위에 있는 오두정자는 권율 장군의 정자가 있었던 터로 알려져 있다. 돈대의 북벽과 남벽으로는 강화 외성이 이어졌던 석축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일곱 번째 만남

강화광성보

신미양요의 치열한 격전지

강화광성보

사적 제227호로 지정. 면적은 14만4,632㎡이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1번지에 위치한다. 1658년(효종 9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종9품 별장이 지휘하고, 군관 15명에 토졸 45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광성돈대는 처음에는 네모난 형태로 축조되었으나 이후 원형으로 개축되었고, 처음 축조 당시 둘레는 88보105.6m에 38개의 첨을 설치했다. 광성보 관할 돈대는 화도돈대, 오두돈대, 광성돈대, 광성포대 등이



▲ 광성보

다. 다만 용두돈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며, 현재 광성보 국가 사적 지정 구역에는 용두돈대가 포함되어 있다.

1745년(영조 21년)에 성을 고쳐 쌓으면서 성곽의 형태를 원형으로 고친 것으로 보이며, 성문을 만들고 문루에는 바다를 제압한다는 뜻의 '안해루(按海樓)'라는 현판을 걸었다.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화약고에 불을 질러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양현수(梁憲洙, 1816~1888)장군이 야간에 543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곳을 거쳐 정족산성으로 들어가서 프랑스군을 패퇴시켰다.

1871년(고종 8년) 신미양요 때는 가장 격렬한 격전지로 초지진과 덕진진을 거쳐 광성보에 이른 미군은 상륙하기 전에 포격으로 광성보를 초토화했다. 이미 병인양요 때 광성보에 근무한 바 있던 어재연이 포격을 피할 안전한 장소에 군사들을 숨겼다가 상륙하는 미군에 맞서 싸웠다. 조선군은 물러서지 않고 분전했으나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으며 병사들 대부분이 전사했다. 미군은 광성보 전투 후 소득 없이 물리갔는데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신미양요는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이었다. 광성보 안에는 광성돈대, 어재연·어재순 형제의 충절을 기리는 쌍충비각,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사 장병들을 모신 신미순의총, 손돌목돈대, 용두돈대가 있다.



▲ 쌍충비각

쌍충비각

신미양요 시 광성보 전투에서 순절한 어재연 장군과 아우 어재순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어재연, 어재순 이하 전 수비군은 열세한 병기로도 미국 아세아 함대의 해병대와 치열한 격전을 벌였으나 전 수비군이 장렬히 순국하였는데, 이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비각 안에 2기가 있다. 1기는 강화군민이 건립한 <광성파수순절비(廣城把守殉節碑)>로 비의 규모는 폭 62cm, 높이 168cm, 두께 25cm의 양면비로 1873년에 건립한 것이다. 다른 1기는 어재연과 어재순 순절비인데 폭이 58cm, 높이 177cm, 두께 26.5cm의 양면비로 역시 1873년에

건립했다. 고종 때부터 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왔으며, 1970년부터는 어재연의 후손인 어윤원이 제형을 올려 충절의 뜻을 이으며 추모하고 있다.

여덟 번째 만남

신미순의총

충성을 다한
무명 용사의 합장묘



▲ 신미순의총

쌍충비각 아래에 7기의 봉분으로 1871년(고종 8년) 신미양요 때 광성보 일대에서 미해군과 격전을 벌이다 전사한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다. 53인의 전사자 중 어재연 형제는 고향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토성 안에 안장하고, 그 외의 군관과 무사 51인은 신원을 분별할 수 없어 7기의 분묘에 합장하여 이곳에 안장하고 그 순절을 기리고 있다.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군은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한 명까지도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며 용감히 맞서 싸웠다.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아홉 번째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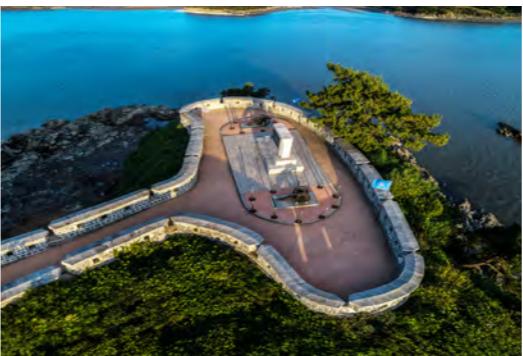
용두돈대

용머리곶에 자리 잡은
천혜의 요새

강화도의 돈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용두돈대는 길게 굽어진 길이, 용의 머리 같다고 하여 용두돈대라 이름 붙여졌다. 이곳은 바다를 바로 맞대고 있는 천혜의 요새이자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승이지만 신미양요 때 미군과 격렬한 전투를 치른 격전지이기도 하다.

좁은 강화해협에 용머리처럼 쑥 내밀고 있는 해안 절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용두돈대는 광성보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협을 따라 용머리처럼 돌출한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축조했다.

돈대가 위치한 지형이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염하의 물길 중에서도 가장 거세다는 손돌목의 한가운데까지 돌출되어 있어 당초 외성의 일



▲ 용두돈대

부 시설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870년대의 고지도에서부터 용두돈대의 명칭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19세기 말 외침을 겪으면서 여기에 돈대 기능을 부여하고 병사를 배치해 돈대로 격상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를 거친 후, 광성보 내 강화 외성의 부속시설이었던 해안가 66m의 용도를 보수해 용두돈대로 명명함으로써 돈대 대열에 올랐다. 그래서인지 여느 돈대와는 달리 용두돈대에는

포좌와 출입문이 없으며 규모도 작다.

강화도의 돈대 중 바다 쪽으로 가장 돌출된 암반 위에 지어진 용두돈대는 한양으로 통하는 수로에 위치한 요충지로 여러 차례 외국 함대들과 벌인 치열한 전투로 성벽에 크게 파괴되었으나 1977년 강화 중요 국방유적 복원 정화 사업으로 다시 복원되었다.

돈대 중앙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쓰인 '강화전적지정화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비 뒷면에는 이은상이 짓고 김충현이 글씨를 쓴 비문이 새겨져 있다.

용두돈대는 신식무기로 무장한 미군에 맞선 끝에 어재연 장군 이하 100여 명의 수비군이 전원 산화한 격전지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총탄이 떨어지면 돌을 던지며 싸우고, 불타서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았던 조선군의 호국정신을 보여준 곳이다. 미군이 비록 전투에는 승리하였지만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하고 서둘러 철수하며 '무력으로는 도저히 이 민족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기록이 있으며, 후세의 역사는 '조선이 전투에서는 졌으나 전쟁에서는 이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열번 째 만남

손돌목돈대

백성의 중심을 의심한
왕의 후회가 깃든 곳

쌍충비각에서 오른쪽으로 약 120m 가면 손돌목돈대(강화군 불은면 해안동로 466번지)가 나온다. 덕진진에 속한 돈대로 원래 이름은 손석 항돈대(損石項墩臺)이고, 순수 우리말로 손돌목돈대라 부르는 것이다.

1679년(숙종 5년) 처음 축조할 때 원형이었으며 지금의 형태도 원형이다. 처음 축조 당시 둘레는 66보약 79.2m이고, 31개의 첨이 설치되었다. 돈대 중앙에는 3칸의 무기고와 3개의 포좌가 있었다.



▲ 손돌목돈대

손돌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진다. 먼저 고려 때 이곳으로 피난 온 왕이 강화해협을 건너려고 했으나 사공 손돌이 아직 바람이 위험해 건널 수 없다고 하자 왕이 그를 모반자로 여겨 처형을 했다. 나중에 손돌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안 왕이 후회하며 제사를 지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하나는 왕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널 때 사공 손돌이 배를 급류 쪽으로 몰자 위험을 느낀 왕이 손돌의 행동을 의심해 죽이려 했는데 죽음을 직감한 손돌은 자기가 죽고 나서는 바가지를 바다에 띠워 그 바가지가 흐르는 방향으로 배를 몰면 안전하게 건널 것이라고 했다. 손돌을 죽인 뒤 달리 방법이 없어 그의 말대로 했더니 배가 급류 쪽으로 가는 듯하면서도 무사히 강화해협을 건널 수 있었다. 이에 왕이 크게 뉘우쳐 손돌의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도 손돌목은 물결이 매우 사납고 위험한 지역이라 배들이 지날 때는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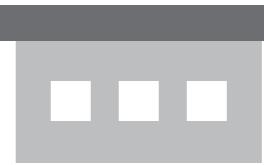
답사활동

01 돈대의 성벽을 살펴봅시다.



①

②



① 성벽에 뚫린 구멍은 침략하는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구멍이다. 침입한 외적이 보는 성벽 바깥쪽의 모습은 ①, ② 중 어느 것일까?

② 멀리 있는 적을 쏘기에 좋은 구멍은 ① ~ ④ 중 어느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함께 말해 보자.

02 다음 한컷 만화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답사 노트에 정리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출처표기 요망

나의 생각	
그렇게 생각한 이유	

친구 이름	친구의 생각

답사 후 학습활동

생각해 볼 거리

관련 단원

- 초등학교 5학년2학기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 초등학교 5학년2학기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활동목표

- 강화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강화도의 역할과 시련의 극복 과정,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바른 역사 인식과 태도를 기른다.

학습활동

- 활동1 : 타임머신 인터뷰 하기
 - 타임머신을 타고 만나고 싶은 과거의 인물 정하기
 - 질문지 작성하기
 - 가상 인터뷰하기
- 활동2 : 비경쟁 토론하기
 - 답사 과정 중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 만들기
 - 친구들과 만든 질문을 공유하며 토론 주제 정하기
 -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 나누기

이 코스는 강화나들길 제2코스의 호국돈대길과 경로가 유사하다. 강화도의 지리적 특성상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그에 맞선 항쟁의 역사 를 지닌 호국돈대길은 시린 역사를 지닌 것이 무색하게 현재로서는 아름다운 풍광에 마음을 먼저 뺏기게 된다. 눈으로 강화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마음으로는 격전의 역사를 지닌 강화의 아픔을 생각해보며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토론 수업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답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최보길,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2005, 살림터
- 5천년의 역사·문화가 살아숨쉬는 강화, 2015, 강화군
- 이광식, 강화돈대순례, 2022, 들메나무
- 강화도 시간여행, 조소현, 2013, 문학동네

인터넷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 강화군청 <https://www.ganghwa.go.kr>
- 중앙신문 <http://www.joongangtv>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인천투어 <https://itour.incheon.go.kr>
- 인천 섬유산 연구소 <https://blog.naver.com/kgr5858>
- 연평도 <http://wwwyeonpyeongdo.com/>



1-5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화도

역사 | 문화

체험코스

- ① 연미정 → ② 황형 장군 묘 → ③ 대산리 고인돌군 →
④ 오읍 약수 → ⑤ 북장대 → ⑥ 북문 → ⑦ 은수물 →
⑧ 강화향교 → ⑨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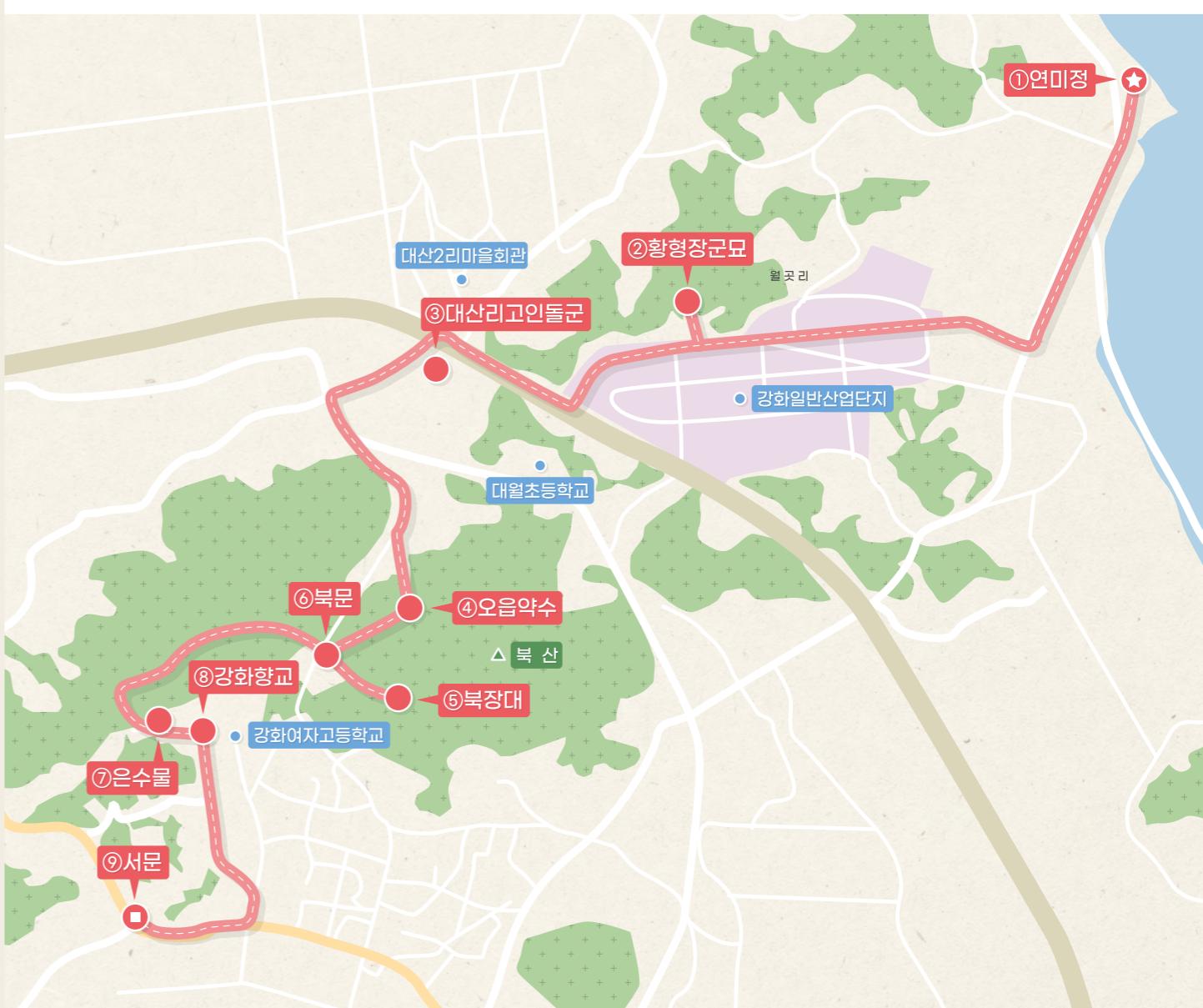
총거리 8.6km
도보시간 3시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 [초등학교]
4학년2학기 도덕 5. 하나되는 우리
5학년2학기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6학년2학기 도덕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키워드

#강화도 #강화도 약수 #강화향교 #연미정 #통일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1-5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화도



천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의 길 - 강화의 과거와 현재

한때 나라의 임시 수도였던 강화는 심도(沈都)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의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강화 중심부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답사하며 강화 타임머신을 타 보자.

몽고와 강화조약을 맺었던 연미정에 서서 북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보고, 예성강과 임진강, 한강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물줄기를 보며 하나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통일된 모습을 그려보고, 북장대 너른 터에서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도 바라보고, 지쳐 목이 마를 땐 맑은 오름 약수를 한 모금 마셔보는 것도 좋겠다.

한 민족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화를 돌아보며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자.

첫 번째 만남

연미정

남과 북에서 시작된 두 강이 만나는 곳



▲ 연미정



▲ 연미정 안내판

한강과 임진강의 합해진 물줄기가 강화도 동북단에 이르러 서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흐르는데, 이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 같다고 해서 정자 이름을 연미정(燕尾停)이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연미정에서는 김포시, 파주시, 북녘 땅 황해도 개풍군이 보인다. 그리고 한강에서 흘러온 물줄기는 하나는 서해로, 또 하나는 염하(강화해협)로 흘러든다. 언제 세워졌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고려 고종이 사립 교육기관인 구재(九齋)의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 공부하게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조선시대 조선 중종 5년(1510년) 삼포왜란 때 공을 세우고 함경도에서 반란은 진압한 황형에게 조선 조정에서 연미정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연미정은 1627년(인조 5년) 정묘호란 당시 강화조약을 체결했던 곳이며, 후금의 침략으로 조선 왕실은 강화로 피난을 왔고, 결국 강화가 함락되어 청나라에 형제의 관계를 약속했던 정묘조약을 체결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강화 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자리로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 정자에 오르면 북으로 개풍군과 파주시, 동으로 김포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옛날에는 서해로부터 서울로 가는 배가 이 정자 밑에 닻을 내려 조류를 기다려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사방으로 탁 트인 연미정은 강화 8경에 꼽힐 만큼 남 다른 절경을 자랑하며 달밤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옛날에는 서해에서 서울로 향하던 배가 모두 연미정 아래에

닻을 내렸다가 조류(潮流)를 기다려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정자는 높다란 주초석(柱礎石) 위에 세워져 있으며,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집이다.

연미정을 중심으로 좌, 우측에 수령이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느티나무는 높이 22m, 둘레가 5m나 되었고 2011년 11월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해왔다. 그러나 좌측의 느티나무는 2019년 9월에 발생한 제 13호 태풍(링링)에 의해 약 1m 정도의 그루터기만 남기고 부러졌는데 남은 그루터기에서 맹아들이 나와 자라고 있어 후계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호 관리 중이라고 한다. 한편, 쓰러진 보호수 부분은 강화 반단이 2점으로 제작되어 강화역사박물관과 소창체험관에 각각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과거에 민간인통제구역이어서 일반인의 출입에 제한이 있었으나, 2008년 민간인통제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탐방하고 있다. 연미정 앞바다는 남한의 한강과 북한의 임진강이 하나되어 서해로 흐르는 만남의 장이자 사방이 탁 트인 시원한 풍경으로 지척의 고향을 그리워만 할 수 밖에 없는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곳이기도 하다.

정자에서 우측으로 바라보이는 섬 유도는 재미있고 훈훈한 일화를 품고 있다. 1996년 홍수 때 북한의 소 한 마리가 유도로 떠내려왔는데 비무장지대라 남북 모두 손을 쓸 수 없었다. 그러나 나날이 야위어가는 소를 보다 못한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하여 우리 군이 구출하였고 '평화의 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후 '평화의 소'는 제주도 출신의 '통일 염원의 소'와 부부의 연을 맺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지금 남북의 주민들은 연미정 앞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만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남과 북에서 시작된 두 개의 강은 연미정 앞을 유유히 돌아 흘러 큰 바다로 함께 나아간다. 남북의 두 강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생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음을 다져 보기 바란다.

두 번 째 만 남

황형 장군 묘

왜적을 무찌른 용감한 장군



▲ 황형 장군 묘(위) / 장무사(아래)

강화 일반 산업 단지 북쪽 황무산 자락의 황형(黃衡, 1459~1520) 장군의 묘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65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2-1번지)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등이 있다. 묘소 아래에는 장군을 모신 사우 장무사가 있고, 그 앞에 높이 270cm, 폭 80cm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황형 장군은 1480년(성종 11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1486년(성종 17년)에 무과 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혜산진 첨절제사·평안도 조방장·절충장군 훈련원도 정·경상우도 수군절도사·의주목사·함경북도절도사 등을 역임했다. 1510년(중종 5년),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제포(薺浦)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그 해 4월, 지중추부사가 된 후 경상좌도 절도사가 되었다. 이때의 공로로 강화도 연미정 지역을 하사 받았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친 후 공조판서를 지내고 특진관이 되어 왕의 자문을 맡았다.

황형은 무예에 능하고 비범할 뿐만 아니라 책략이 많아 장수 재목이라 평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서북 지방의 백성들은 자기 아들 이름을 황형이라고 지을 정도로 당대의 뛰어난 장군이었다고 한다. 시호가 장무(莊武)로 지금의 사우사당 이름도 장무사(莊武祠)라 지어졌다.

세 번 째 만 남

대산리 고인돌

우리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대 건축물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 권력을 가진 지배 계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에 따라 독바우, 거북바우, 두꺼비바우, 개구리바우 등 덮개돌의 모양에 따라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고인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덮개돌의 모양을 표현했던 마을의 고유한 이름은 '고인돌'이라는 이름으로 정형화되었다. 한국에서는 고인돌이라 부르고 한자식 표현으로는 일본과 함께 지석묘(支石墓)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대석개묘(大石蓋墓)라 부른다.



▲ 대산리 고인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고인돌은 전 세계에 약 6만 기 정도 있고, 만주와 한반도에 약 3만 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그중 150여 기가 강화에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반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편평한 덮개돌을 올려 놓은 턱자식과 땅 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반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들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강화 고려산 동쪽 봉우리인 북산의 해발 약 20m 산등성이에 있는 이 대산리 고인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89-1)은 턱자식이다. 약간의 흙과 자갈로 지면을 높이고 그 위에 반침돌을 세운 뒤 덮개돌을 올렸으나 현재는 무너져 내려앉은 상태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3.68m, 너비 2.6m이다. 강화 지역에서 군을 이루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형에 속하는 고인돌로 2000년 12월 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네 번 째 만 남

오음 약수터

숲속 오솔길에 자리잡은
마르지 않는 샘물



▲ 오음 약수터

강화도 읍내 내성인 북산 진송루 부근(고려궁지 정문을 바라보아 원쪽 차도길을 5분, 강화 산성 북문 밖)에 오음약수가 있다. 이곳은 바다 건너 북녘 땅인 개풍군 일대를 마주 바라보는 곳으로서 매년 실향민들의 망향제와 종교단체의 통일축원기도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이 강토를 침입해오자 왕족과 비빈,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강화도로 피신해 와서 내성을 축조할 때, 오랜 가뭄으로 성을 쌓던 장정들이 목이 타서 몹시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니 큰 바위가 깨지면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므로 장정들이 갈증을 풀게 되었고 그 후 이 약수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아끼는 약수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오음(五泣)'이라는 이름은 고려가 병란을 피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였을 때 모두들 떠나온 고향과 가족이 그리워, 한이 사무쳤으므로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신(神)이 울고, 임금과 백성이 울었다는 뜻에서 '다섯 오(五)'에 '울 음(泣)'자를 써 오음(五泣)약수라 불렀다고 한다.

다섯 번 째 만 남

북장대

터만 남아있지만
북녘땅까지도 볼 수 있는
수려한 전망



▲ 북장대(위) / 북장대 터(아래)

강화산성

강화산성(江華山城)은 사적 제132호로 지정. 면적은 78만9,204㎡이며, 강화읍을 에워싸고 있는 산성이다. 고려 시대에 축조되어 시대에 따라 헐리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했으나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고려는 몽골 제국이 침입해 오자 1232년(고종 19년)에 왕도를 강화 도로 옮기고 대몽 항쟁을 시작했다. 1234년 새 왕도인 강화에 왕궁과 성·관아 등이 완성되었는데, 이때 내성(內城)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1237년(고종 24년)에는 외성(外城)을 완성하고, 1250년(고종 37년) 8월에 중성(中城)을 쌓아 삼중의 방어 성곽을 가진 도성이 되었다. 고려 와의 강화가 성립되면서 전쟁을 승리로 끝낸 몽골군은 1259년(고종 46년) 6월에 강화의 내성과 외성을 헐었다. 1270년(원종 11년)에는 강화로 왕도를 옮긴 지 39년 만에 개경으로 천도를 했으며, 그해 6월에는 몽골의 타라대(朶刺歹)가 군사 2,000명을 이끌고 강화에 들어와 재물을 약탈하고 방화를 자행함으로써 강화는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429년(세종 11년)부터 강화 도호부 성터를 정하면서 다시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는 고려 때, 6차에 걸친 몽골의 침입, 조선 시대에는 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병인양요·신미 양요 등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함께한 역사적인 현장이다. 강화산성에는 현재 동서남북의 4개 성문이 남아 있는데 남문인 안파루, 북문인 진송루, 서문인 첨화루와 동문인 망한루이다. 그리고 비밀 통로인 암문 4개, 수문 2개도 남아 있다.

남쪽의 남산에는 높은 곳에서 망을 보기 위한 장대와 성 위에서 몸을 감추기 위한 여장 등의 방어 시설도 갖추고 있었으나 여장은 모두 무너졌다. 현재 성의 동쪽 부분은 없어졌으나, 남·북·쪽 산자락과 서쪽의 성곽은 복원 후 잘 보존되고 있다.

북장대

강화산성에는 남산, 북산 그리고 서문 부근 3곳에 장대를 세워놓고 있다. 그중 북장대는 북산 정상 부근 강화 읍내가 내려다보이는 봉우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북장대는 강화산성의 진송루(강화읍과 산성 북쪽 송해면 지역과 연결해주는 고갯길에 있는 암문의 역할을 하던 북문)에서 동쪽 능선으로 이어진 성곽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으면 오를 수 있다. 북산이 해발 140m로 그리 높지 않은 봉우리인데다 진송루가 고갯길에 위치하고 있어 약 5~10분 정도 걸으면 북장대가 있던 봉우리를 오를 수 있다.

북장대 건물은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봉우리까지 걸어서 올라온 수고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전망이 꽤 뛰어나다. 북장대에 오르면 강화 읍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북쪽으로는 한강하구와 그 너머 북녘땅의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만남

북문

동고의 침입으로
강화로 도읍을 옮긴
고려궁의 든든한 보호막



▲ 북문(진송루)

북문은 고려궁지 왼쪽으로 난 포장도로를 따라 약 400여m를 가면 관청리와 대산리의 경계 지점인 북산의 북문 고개에 위치하고 있다. 북문은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1232) 고려가 대몽항쟁을 위해 축조한 내성에 연결되었던 문이다. 토성이었던 당시의 성은 개경 환도 때 혈리고 조선 초에 개축하였다. 그 뒤 병자호란 때 대부분 파괴된

것을 숙종 37년에 석축으로 완성하였다. 북문은 본래 누각이 없었으나 조선 정조 7년 강화유수 김노진이 누각을 세우고 진송루(鎮松樓)라고 하였다. 그 뒤 북문은 전쟁으로 부서지고 석축만 남아 있었으나 1977년 강화 중요 국방유적 복원정화사업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단장하였다.

북문의 출입구는 2.9×2.5m이고 문 전체의 크기가 11m이다. 문에서 북장대 방향으로 42m의 성벽을 복원하였으며 서문 방향으로 50m의 성벽을 복원하였다.

일곱 번째 만남

은수물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은빛 빨래터



▲ 은수물

강화여자고등학교 정문을 보며 왼쪽으로 들어서면 은수물이 나온다.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은빛을 띤다 해서 은수물이라고 불리는 물이다. 강화 향교 서편에 있는 은수물은 향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물을 길어다 썼다고 한다. 은수물 약수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다뜻하여 수백 명의 주민이 약수를 음용수로 마시는 것은 물론 물이 넘쳐 흘러 빨래터로도 널리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여덟 번째 만남

강화 향교

성리학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향교



▲ 강화향교(외심문)

강화 향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교길 58(관청리)에 위치한 유형문화재 제 34호로, 고려 1127년(인종 5년) 내가면 고천리(고읍)에서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이 향교는 1232년(고종 19년) 강화읍 갑곶리(멱절)로 옮겨지는 등 강화도 내에서 여러 차례 이전을 반복하다가 1731년(영조 7년) 유수 유척



▲ 강화향교 (내심문)

기(渝拓基)가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766년에 유수 이은이 중수함과 동시에 소동문 밖에 있던 비석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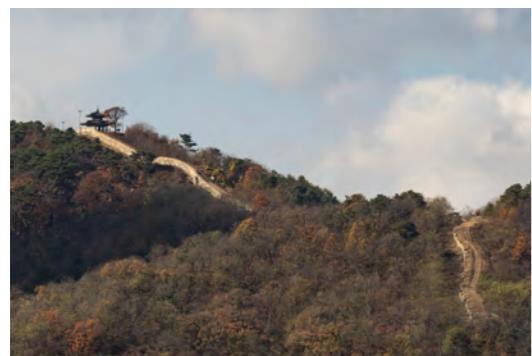
현재 남아있는 강화 향교의 건축물은 대성전, 동무와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와 서재, 외삼문 등의 여러 부속 건물이 있다. 대성전은 여러 성현의 위패를 배향하였고, 봄과 가을에 제사(석전례:釋奠禮)를 거행하는 건축물이다. 명륜당은 향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강당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했으나, 갑오개혁 이후 교육 기능은 사라지고 지금은 제사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

아홉 번째 만남

서문

강화 시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강화산성의 첨화루



▲ 강화산성(위) / 서문(아래)

강화산성은 고려가 몽골에 침입에 대항하여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을 때 도성으로 쌓은 것으로 내성, 중성, 외성으로 이루어졌다. 내성은 1259년 몽골에 의해 헐린 후 조선시대에 돌로 다시 쌓았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다시 파괴하여 1677년(조선 숙종 3년)에 크게 넓혀 고쳐 쌓았다. 강화산성 내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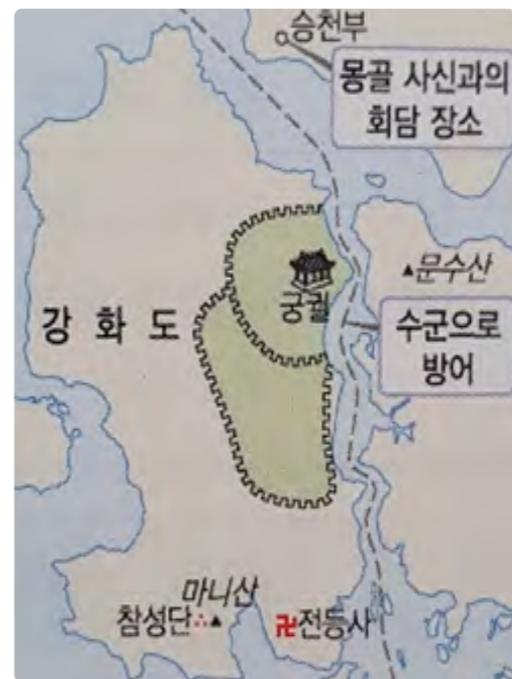
동서남북으로 난 대문 4개, 비밀 통로인 암문 4개, 물이 흐르는 수문 2개, 관축소이자 지휘소인 남장대와 북장대가 있었다.

서문은 강화산성을 연결하는 4대문 중의 하나로 첨화루(瞻華樓)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1711년(숙종 37년) 당시 강화 유수를 지냈던 민진원이 세운 것으로 현판도 그의 글씨이다. 그 뒤 낡아서 무너진 것을 1796년(정조 20년) 유수 김이익이 다시 고쳐 세웠으며 지금의 모습은 1966년에 개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문루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건평 14평이며 누상에 오르면 시내 일대를 바라볼 수 있다.

답사활동

01

몽골의 침략 당시 고려의 임시 도읍지인 강화도를 나타낸 지도를 살펴봅시다.



1. 원쪽 지도와 같이 수도를 옮긴 이유를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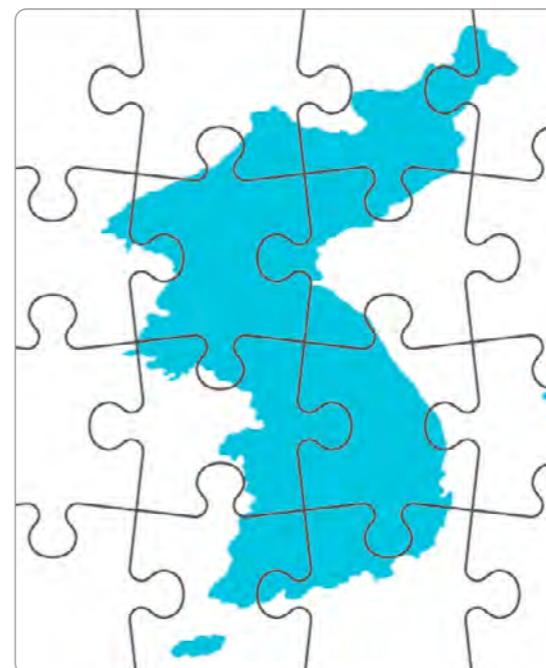
2.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의 저항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고려(강화) 조정	백성

02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통일된 한반도를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을 만들어 봅시다.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초등학교 4학년 도덕 5. 하나되는 우리
- 초등학교 4학년 사회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 초등학교 5학년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초등학교 6학년 도덕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 활동목표

-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 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행정, 교통, 상업, 산업, 관광 등)를 조사하고, 각 중심지의 위치, 기능, 경관의 특성을 탐색한다.
-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탐구한다.

■ 학습활동

- 활동1 : 오늘의 답사 경로 영상 만들기
 - 천연기념물이란?
 -  앱을 활용하여 오늘의 답사 경로, 답사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기
 -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서로 공유하기
- 활동2 : 고인돌 모형 만들기
 - 고인돌을 만드는 원리 알아보기
 - 고인돌 모형 만들기
 - 내가 함께 묻고 싶은 유품 생각해보기

생각해 볼 거리

이 코스는 우리나라의 맨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까지 오천 년을 넘나들며 다양한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코스이다. 우리나라의 기원을 알아보고, 오랜 역사 동안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조상들의 호국 정신과, 지구상에 남은 단 하나의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통일 한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최보길,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 2005, 살림터
- 5천년의 역사·문화가 살아숨쉬는 강화, 2015, 강화군
- 활동 중심 창의 수업 자료집, 2017, 미래엔

인터넷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 강화군청 <https://www.ganghwa.go.kr>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P A R T

2

문학 속의 인천

- 2-1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작점, 인천의 원도심
- 2-2 오정희 작가의 문학의 뿌리, 중국인 거리
- 2-3 노동과 예술의 교차점, 강경애의 「인간 문제」 속 인천





2-1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작점, 인천의 원도심

문학 | 역사 | 사회

체험코스

- ① 인천역 → ② 상상플랫폼 → ③ 하인천어시장 → ④ 대한제분 대한싸이로 → ⑤ 인천상륙작전 레드비치 → ⑥ 북성포구 → ⑦ 호두형포구 → ⑧ 대성목재 저목장 → ⑨ 동일방직 → ⑩ 우리미술관 → ⑪ 만석부두

총거리 4.4km

도보시간 1시간2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중학교]

- 사회1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사회2 인권과 헌법
- 사회2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 사회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 역사2 근·현대 사회의 전개
- 국어1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 국어1 성장으로 가는 길
- 국어3 함께 살아가는 우리
- 국어3 문학으로 느끼는 삶

키워드

#근대화 #산업화 #노동 #양극화 #원도심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2-1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작점, 인천의 원도심



근 대 화 와 산 업 화 의 그 늘 에 서 벗 어 나 새 로 운 도 약 을 꿈 꾸 다

'우리나라 최초~' 이런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천, 그중에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의 시작은 바로 인천이었다. 1882년 개항으로 시작한 근대화의 물결은 경인철도로 이어졌고 많은 산업공단들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레 노동자의 삶과 연결되는 노동운동의 메카였으며 6·25전쟁의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킨 분수령이 된 '인천상륙작전'이 이뤄진 곳이다. 또한 항구도시로 여러 개의 작은 포구들을 갖게 되는데 포구에서의 치열했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은 쇠락해져 가고 도시의 기능이 인천의 다른 신도시들로 많이 이전되었지만 많은 가치와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사와 시간이 살아 숨쉬는 원도심을 탐방해 보자.

첫 번 째 만 남

인천역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작점



▲ 인천역에는 한국철도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물이 있다.



▲ 인천역

한때는 '하인천역'으로 불렸던 인천역. 인천역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점이라는 것에 있다. 처음에 인천역은 지금의 신포동, 사동 일대를 매입하여 짓고자 했으나 당시의 지주였던 일본인들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전환국(예전 인천여고 자리, 지금의 중구 문화원)과 용봉산(자유공원 일대)을 우회하는 선로를 선택하여 지금의 인천역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899년 9월 18일에 인천과 서울 노량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개통된 경인철도는 당시 증기기관차 4대와 객차 6량, 화차 28량으로 운행되었으며 길이는 33.2km에 7개의 역(인천역-축현역-우각동역-부평역-소사역-오류역-노량진역)에 하루 2회 왕복하며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지금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시·종착역이자 환승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먼저 인천과 서울까지의 교통이 너무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경인도로라는 육로가 있었지만 불편하였고 인천과 용산을 오갈 수 있었던 항로가 있었지만 주로 조운(세곡운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조선 정부는 자체적으로 철

* 개통 당시의 열차 요금은 얼마?

경인선 개통 당시의 요금은 일반 서민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비싼 가격이었다고 한다. 객실은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1등 객실에는 외국인과 귀족만 이용할 수 있었다. 2등실은 80전, 3등실은 40전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물가 시세로 환산해 보면 2등실은 계란 100개, 3등실은 닭 두 마리의 값과 같았다고 한다.

도를 놓을 수 있는 여력조차 없던 열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일본에 철도 부설권을 넘겨주게 되고 이후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1896년 미국인 모오스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모오는 자금 부족과 일본인 지주들과의 갈등으로 결국 1899년 일본에게 경인철도 부설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된다.

한편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항 이후 많은 외국인이 머물며 근대도시로서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독자적인 기능을 갖춰 나가던 인천에게는 경인철도의 완성이 서울의 관문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된다. 이전까지는 자유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개항장이 활발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1900년 한강철교가 개통되면서 서울이 이른바 '일일생활권'이 되며 인천은 많은 외국인들이 숙박 없이 거쳐 가는 환승역으로 서의 기능만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 째 만 남

상상플랫폼

시민의 바람으로 시작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 월미산에서 바라본 상상플랫폼 전경, 가운데 예쁜 색깔의 지붕을 얹은 곳이다.

인천역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자리잡은 제8부두에 위치한 상상플랫폼.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위한 7만여 명의 인천시민들의 청원으로 시작되어 인천 내항 제 8부두 안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곡물창고를 지상 4층의 문화와 집회,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이다.

세 번 째 만 남

하인천어시장 (새우젓골목과 뱀골)

새우젓 거래로 활기가
가득한 곳



▲ 하인천어시장(새우젓골목과 뱀골)

인천역 뒤쪽 동일아파트 양편에는 조금은 생소한 '새우젓골목'과 '뱀골'이 자리 잡고 있다. 예전 인천어시장이 동일아파트 자리에 있을 때 새우젓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새우젓 골목'이라 불렸다. '뱀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골목 자체가 좁고 협소하여 마치 뱀처럼 굽게 펴지지 않고 구불구불하다고 하여 '뱀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 여인숙에서 오래 머물던 뱀 사꾼이 잡은 뱀을 미처 관리하지 못해 뱀이 밖으로 빠져나가 동네 전체가 난리법석을 떨어서 '뱀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 등 재미나고 우스운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다. 1930년대까지 전국의 많은 어선들이 북성동에 몰리면서 북성동 안쪽으로 커다란 소금창고가 생기고 그 골목에서 소금과 새우를 이용해 새우젓을 담가 팔아 1973년 여객선 부두와 어시장이 연안동으로 나가기 전까지 '인천 돈의 절반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꽤나 기름진 동네였다고 한다.

네 번 째 만 남

대한제분, 대한싸이로

70년 동안 국내 최대
밀가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향토기업



▲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싸이로 벽화(박병식님 촬영)

대한제분하면 요즘 학생들은 '곰표, 표문'이라는 이미지로 낯익을 것이다. 1952년에 설립된 회사로 인천에서만 70년 동안 국내 최대 밀가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 향토기업이다.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의 원재료와 여러 종류의 프리믹스류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자회사이면서 마주 보고 있는 곳에 대한싸이로라는 생소한 회사가 있다. 싸이로(silo)란 큰 탑 모양의 곡식 저장고를 의미하는 말로

양곡을 선박에서 직접 흡입, 양류처리 하는 기계시설을 일컫는 말이다. 회사 소개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내항 7부두에 있는 그 회사의 16개 싸이로 외벽에 그려진 벽화 때문이다. 이 벽화는 높이 48m, 길이 168m, 폭 31.5m의 규모로 엄청나다. 벽화 디자인은 어린 소년이 물과 밀을 가지고 책 안으로(싸이로 저장고 안) 들어갔다가 어른이 되어 성장해 나오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사계절 북커버 장식과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문구가 디자인되어 있다. 1979년에 만들어진 노후 산업시설을 도시의 산뜻한 랜드마크로 바꾸기 위한 슈퍼 그래픽 사업의 하나였다고 한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의 첫 부분에 나오는 성당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밀가루 공장이 지금의 대한제분 공장이다.

다섯 번째 만남

인천상륙작전 레드비치

인천상륙작전 시
인천을 재탈환한 곳



▲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레드비치) 기념비

1950년 암울했던 6·25전쟁의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상륙지점 3곳(그린비치-월미도 일대, 레드비치-북성포구 일대, 블루비치-용현동 일대) 중 하나인 이곳은 맥아더장군이 상륙한 지점이다. 또한 맥아더장군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부터 월미공원에 이르는 1.9km의 길을 ‘맥아더 길’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제2차 인천상륙작전기념비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겐 생소한 사실로 1951년 2월 한국 해군과 해병대 170명이 이곳 레드비치를 통해 인천을 재탈환했다고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실시된 전쟁이다. 당시 인천은 미군과 유엔군이 점령한 상태였다. 그러나 1950년 9월 15일에 실시된 전쟁은 미군과 유엔군이 점령한 상태였다. 그러나 1950년 9월 15일에 실시된 전쟁은 미군과 유엔군이 점령한 상태였다.

여섯 번째 만남

북성포구

단편소설 「패루 위 고래」에서 묘사된 파시로 유명한 곳



▲ 북성포구의 파시 모습

인천역에서 월미도 쪽인 대한제분 방향으로 걷다보면 ‘북성포구’라는 자그마한 간판이 하나 걸려 있다. 연안부두가 생기기 전까지 폐나 이름 높던 포구이다. 좁은 골목을 따라 대여섯 개의 횟집과 어물전들이 있다.

얼마 전까지 도심 속 포구라는 이미지와 해질녘 고즈넉하게 넘어가는 노을로 많은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도 유명했다. 지금은 북성포구에 대한 매립이 마무리되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해 한창 논쟁 중인 곳이기도 하다. 북성포구는 ‘똥마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고향을 떠난 남쪽으로 내려 온 실향민들이 나뭇조각을 이어 집을 짓고 한두 개 밖에 없던 공동화장실 주변에 눈치껏 배설을 해서 대변이 밀물에 둉뚱 떠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칭이다. 원래 북성포구는 파시(波市, 포구에 도착한 배에서 생선을 거래하는 행위)로 유명하다. 소설가 양진체의 단편소설 「패루 위 고래」에는 북성포구의 파시 모습이 잔잔히 묘사되어 있다.

일곱 번째 만남

호두형 포구

소설 「남생이」에 등장한
호두형 작은 항구



▲ 호두형 포구

‘호두형으로 조그만 항구 한쪽 끝을 향해 머리를 들고 앉은 언덕, 그 서남면 일대는 물매가 깃깃한 비탈을 감아 내리며, 거적문 토담집이 악착스럽게 닦지닥지 붙었다. 거의 방 하나에 부엌이 한 칸, 마당이랄 것이

곧 길이 되고 대문이자 방문이다.’ 소설가 현덕의 「남생이」는 배경을 이렇게 묘사하며 시작한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치 호두처럼 생긴 포구의 모습을 가진 북성곶이다. 작가 현덕의 소설 「남생이」는 1930년대 후반 인천항과 그 주변의 빈민촌을 무대로 ‘부두 하층민의 삶을 어린 노마의 눈으로 예리하게 포착해낸 30년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균형점을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인하대 원종찬 교수)이라는 평가를 받는 소설이다. 자신의 병을 낳게 해 줄 영물이라며 남생이를 애지중지 하는 병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잘 모시고 보살피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



▲ 현덕의 「남생이」 표지

장하겠다는 노마의 모습은 30년대 하층민들의 삶을 세밀하게 표현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만남

대성목재 저목장

소설『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



▲ 대성목재 저목장이 있던 곳

대성목재 저목장은 지금은 사라져 현재 만석비치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저목장은 목재 저장소를 뜻하는데 밀물이 들 때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원목이 떠오르면 지게차가 원목들을 건져내고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곳이다. 저목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나가 원목의 껍질을 벗겨와 집 담벼락에 말려 땡감으로 썼다고 한다.

이 저목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다. 우리에게 '난쏘공'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근한 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년)이다. 이 소설은 출간된 지

40년이 넘은 작품이지만 아직도 현실은 현재진 행형이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은강'은 인천이고 '기계도시'는 만석동과 북성동 일대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노동 착취에 시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 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표지

아홉 번째 만남

동일방직

소설『인간문제』의 무대

강경애는 어쩌면 학생들에게 생소한 작가일 수 있다. 1930년대 작가이고 여류소설가이며 간도에 체류했던 작가이며 지금은 북한 땅인 황해도 장연에서 숨겼다는 여러 이유를 보면 그간 한국의 문학사에서 소외된 이력을 가진 작가일 수 있다. 그러나 강경애는 마치 3~40년 후의 인천 노동 문제를 예견한 듯한 현실 인식과 노동자들의 삶을 직시하는 서사로 식민지와 인천의 노동 현장을 그려내고 있다.

개항과 근대화, 산업화 속에서 인천은 노동자들의 도시였다.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고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 동일방직



▲ 강경애의『인간 문제』 표지

열번 째 만남

우리미술관

소설『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



▲ 우리미술관 전경



▲ 우리미술관에서 실시하는 문화나눔 어린이반 교육 장면

많은 농촌 사람들은 '인천 드림'을 꿈꾸며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하기에 인천은 근대노동 운동의 도시가 되었고 많은 작가들의 문학적 소재가 되는 곳이기도 했다. 앞서 소개한『난생이』-『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식민지 하층민과 산업화 속의 노동자들의 삶을 예리한 관찰과 비판의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스무 살의 티 없이 맑은 여성이었던 선비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지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 인천 방적공장에서 결국 고된 노동으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 예전 '노찾사'의 노래〈사계〉에 나오는 미싱공들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게 된다.

인천 동구 화도진로 192번길에 위치한 우리미술관은 이름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미술관을 지향하는 곳이다. 2015년에 조성된 공간으로 전시관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관, 사무실, 작가가 거주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예술창작 공간인 스튜디오로 구성된 곳이다. 이곳은 김중미의 소설『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작가 김중미는 1987년부터 이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겪은 생활을 고스란히 소설 속에 담아내고 있다.『괭이부리말 아이들』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 중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손



▲ 김중미의 『팽이부리말 아이들』 표지

열 한 번 째 만 남

만석부두

벽화와 꽃길,
아름다운 일몰이 있는 곳



▲ 만석부두

꼽히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단순히 하층민들의 빈곤한 삶을 다루고 사회 문제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가장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 이야기’임에도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500가구 이상이 모여 살던 이곳은 200여 가구만 남아 있고 2011년부터 인천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며 많은 이들이 떠났고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지만 주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던 ‘동네사람’들끼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다.

만석동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말 그대로 쌀과 관련이 있다. 『인천지지(仁川地誌)』에서는 조창에서 거두었던 세곡을 이곳에 적재하였다가 지정기일에 납품하던, 수만 석의 정부미를 약적하여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 만석부두는 주변 공장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쇠락하다가 30년대 목재부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인천항의 보조 하역부두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한국전쟁 후 양곡 등 많은 원조물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후에는 피난민들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부두노동과 뱃일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제3정문을 지나면 만석부두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만날 수 있다. 예전에는 폐선들로 인해 지저분하였지만 지금은 벽화와 꽃길 등을 조성해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주꾸미 낚싯배가 떠나 주말이면 많은 낚시꾼들이 찾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주꾸미 가게와 낚시용품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최근에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가 조성되고 일몰을 즐길 수 있게 전망대도 설치해 놓아 저녁 식사와 아름다운 일몰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답사활동

01 지명이나 대상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찾아 연결해 보자.

- ① 조창의 역할을 하며 수만 석의 정부미를 약적해서 이름지어진 곳 • ④ 강경애
- ② 큰 탑 모양의 곡식을 쌓아두는 저장고를 이르는 말 • ⑤ 은강
- ③ 한국철도의 출발점 역할을 한 역 • ⑥ 싸이로
- ④ 「인간문제」를 통해 식민지 인천의 노동자들의 척박한 삶을 그려낸 소설가 • ⑦ 만석동
- 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배경이 되는 인천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지명 • ⑧ 인천역

02 답사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1. 일제가 인천항과 연결되는 인천역을 만들고 경인철도를 부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김중미의 『팽이부리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 이야기임에도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사 후 학습활동

생각해 볼 거리

관련 단원

- 중학교_사회2-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 중학교_국어3-문학으로 느끼는 삶

활동목표

- 갈등의 내용과 그 해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도시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문학에 드러난 삶과 현실 속의 삶을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다.
- 도시화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문학 작품 속의 삶을 드러내기
 - 작품 속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 이야기하기
 - 문학 작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과 주제를 파악하기
 - 작품 속 인물이 ‘나였다며~’ 가정하여 짧은 글쓰기
- 활동2 : 도시화의 과정 이해하기
 -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의 종류 파악하기
 - 도시 속 포구의 모습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 코스는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발점 역할을 한 인천의 주요 지역과 이를 다룬 문학 작품을 엮는 코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진 않지만 6·25 전쟁 중 설치된 인천의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최인훈의 「광장」, 주안 5공단 여공들의 이야기를 다룬 방현석의 「새벽출정」, 인하대 국문과 교수로 오랜 시간 재직하며 많은 시인들을 배출한 조병화 시인의 이야기, 옛 수인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윤후명의 「협궤열차」 등도 학생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된다. 또한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도 상당히 많다. 「파이란」, 「차이나 타운」, 「범죄의 재구성」, 「대장 김창수」 등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영상콘텐츠를 함께 한다면 더욱 의미 깊은 코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광역시 중구, 2013, 개항 후 인천풍경
- 강덕우 외, 2007, 인천역사문화총서 32, 테마로 찾아보는 인천 개항장 역사 기행,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 연구실
- 인천이야기 전집 6, 2021, 인천문화전람, 경인일보특별취재팀
- 인천이야기 전집 8, 2021, 인천항과 사람들, 경인일보특별취재팀
- 김윤식 외, 2004, 인천 중구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지리교사연구회 「터사랑」, 2005, 인천땅 '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인터넷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진도서관 <http://history.ice.go.kr/>
- 인천광역시 동구청 www.icdonggu.go.kr/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2-2

오정희 작가의 문학의 뿌리, 중국인 거리

문학 | 역사 | 지리

체험코스

① 신흥초등학교(팔판로 → 신사아랫마을) → ② 마루보시 사택(옛 상공회의소 터) → 인천우체국 → 미군부대 PX 터 → 하버파크 호텔) → ③ 미군부대 터 → ④ 첫 선교수녀 도착지 기념비 → ⑤ 오정희 작가 집 터 → ⑥ 자유공원 → ⑦ 중국인 마을 → ⑧ 하인천어시장 → ⑨ 죽항선 철길과 대한제분

총거리 4.5km

도보시간 1시간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 5학년 2학기 사회 / 6학년 2학기 국어

[중학교]

역사1 / 역사2 / 국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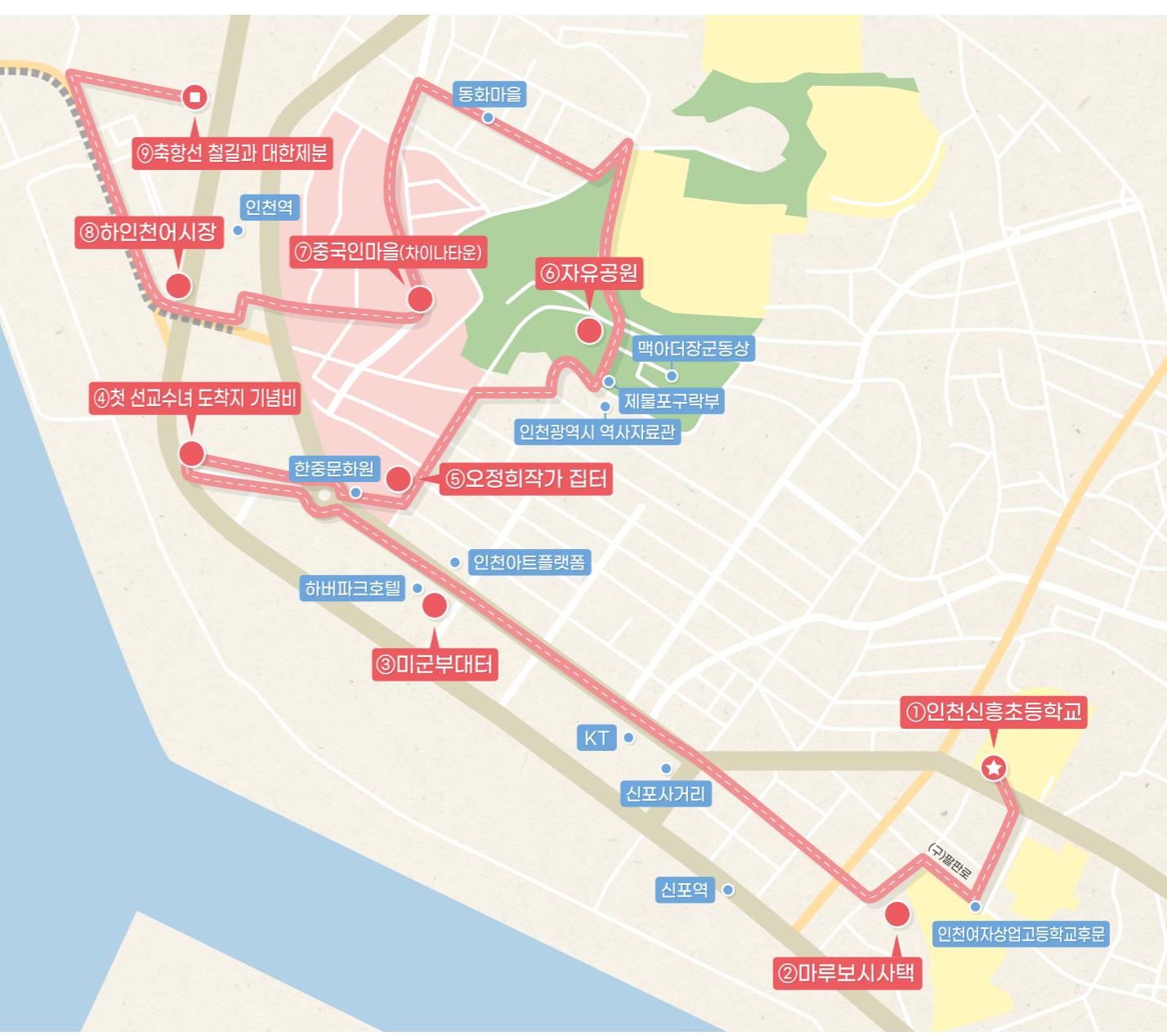
[고등학교]

한국사 /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부 교육과정 단원명은 86p를 확인해 주세요.

키워드

#오정희 #중국인거리 #차이나타운 #1950년대 문학
#1950년대 인천 #6·25전쟁직후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2-2

오정희 작가의 문학의 뿌리, 중국인 거리



『중국인 거리』 속 소녀 오정희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차이나타운 한 바퀴

'단편 미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작품『중국인 거리』의 작가 오정희는 1947년 서울 사직동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6·25 전쟁으로 인해 충남 홍성으로 피란을 갔던 작가의 가족은 1955년 4월 어느날 밤, 소를 실었던 트럭에 실려 인천의 해안 동네에 닿는다. 해인초 냄새가 가득한 거리의 낡은 목조 이층집, 인천 중앙동 1가 19번지가 바로 그의 정서의 뿌리, 문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인 거리』 속 모습은 1955년부터 1959년까지의 인천이다. 휴전 직후의 인천은 어린 소녀가 꿈꾸던 도회지와는 사뭇 달랐다. 초라하고 지저분한 거리, 양공주들의 속옷이 널린 베란다, 화차의 바퀴 사이로 기어들어가 조개탄을 훔치는 아이들, '중국인 거리'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경멸하는 어른들. 소녀가 작은 발로 뛰어다니는 1950년대 후반의 인천은 전쟁으로 인해 곳곳이 폐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은 이어진다. 부서진 집과 극장을 다시 세우고, 새 생명을 낳고, 아이들은 골목 여기저기를 뛰운다. 그리고 어린 소녀였던 주인공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인으로 성장해간다.

작가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때면 이곳, 중국인 거리에 살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중국인 거리』 속 어린 오정희의 발걸음을 따라, 1950년대 후반의 인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만남

인천신흥초등학교

작가 오정희의 탄생

『중국인 거리』 속 어린 '나'는 매일 아침 치옥이를 기다려 학교에 간다. 이 학교는 오정희 작가의 모교 인천신흥초등학교일 것이다. 운동장을 둘러보면 학교 숙직실에서 아이들 몸의 탄가루를 씻기는 담임선생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아침을 먹지 않아 빈속인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 담임선생님이 주는 회충약을 먹고 있을 것 같다. 오정희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약 4년 동안 인천신흥초등학교에 다녔다.

인천신흥초등학교의 역사는 개항의 역사와 함께 발돋움한다. 개항 후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1884년에 일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던 '아사히 소학교'(寺町尋常學校)가 개교하였다. 그리고 광복 후 일본인 학생이 떠나간 아사히 소학교를 인수하여 1946년에 인천신흥국민학교가 개교한다. 약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흥초등학교는 한때 인천창영초등학교와 함께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로 손꼽히기도 했다. 학교에는 이 역사를 간직하기 위한 역사관(학교 별관 2층)이 마련되어 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사진들 속 어딘가에는 오정희 작가의 발자취도 남아 있을 것이다.

오정희 작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글을 잘 썼다는 칭찬을 받고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며 '글 잘 쓰는 아이'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 해 오정희 작가가 경기도 백일장에서 쓴 산문이 특선으로 뽑히고, 이후 작가는 소설가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 1956년 인천신흥초등학교에 근무하며 오정희 작가의 글쓰기 솜씨를 알아봐 준 그 담임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오정희 작가가 있었을지 생각해 본다.



▲ 인천신흥초등학교의 과거(왼쪽)와 현재(오른쪽)

두 번 째 만 남

마루보시 사택

일제 강점기 노동자들의
휴식처



▲ 공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마루보시 사택의 모습.

오전반 수업이 끝나고 하교하는 두 소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인천 여자상업고등학교의 아름다운 담벼락이 이어진다. 팔관로라고 불리었던 담벼락 길을 쭉 따라 걷다가 마치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이 골목 저 골목 들어가다 보면 뾰족한 시옷 자 모양의 장식이 붙은 현관을 가진 집들이 마주보고 있는 골목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이 인천의 마루보시 사택이다. ‘마루보시(丸星)’는 1920년 이후 일제 강점기 조선의 하역운송업을 도맡아 했던 조선운송주식회사로, 현 CJ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전신이다. 마루보시 사택은 바로 이 조선운송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이 살던 집이다. 부두 하역 작업에 투입되며 노동 착취와 임금 차별을 당했던 당시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으로 이사 온 어린 ‘나’가 이룬 새벽의 집 앞 골목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부두로 해물을 받으러 가는 장사꾼들, 그리고 제분 공장으로 향하는 노무자들이었다. 개항 이후 커다란 중공업단지가 조성된 산업도시로 변모한 인천은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 노동자 계층이 형성된 도시였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경영이 강화되면서 일본인의 억압과 수탈이 심해졌고, 노동자들이 이에 대항하며 노동 파업 운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노동자 투쟁은 반일·반제 운동으로도 이어져 항일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마루보시 사택은 이러한 일제 강점기 조선 노동자의 애환을 담고 있는 역사의 유산인 것이다.

마루보시 사택이었던 인중로 164번길 24-34의 집 대문에는 이 건물들이 철거 대상임을 알리는 ‘공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 철거 예정이라고 한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천의 근대 산업 유산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등교하는 『중국인 거리』 속 ‘나’와 치옥이가 출근하는 이 집의 노동자들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세 번 째 만 남

미군부대

6·25 전쟁의 흔적



▲ 미군 부대 내 테니스 코트 위치에 자리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주한미군의 가장 오랜 주둔지인 인천을 배경으로 한 만큼, 『중국인 거리』에는 미군과 미군 부대의 모습이 곳곳에 등장한다. 아침에 치옥 이네 집에 가면 양공주인 매기 언니와 함께 있는 흑인 병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미군 부대의 테니스 코트에서 칼 던지기를 하는 미군 병

사들의 모습을 마음 졸이며 구경하기도 한다. 1945년에 인천항에 상륙했던 미군은 인천항과 월미도에서부터 부평 까지 이어지는 미군기지 벨트를 형성하였다. 지금의 인천 항 부근에 미군 부대가 있었으며, 현재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 자리에 부대 내 테니스 코트가 있었다.

미군 부대와 공생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콤하면서도 서글프다. 함께 사는 미군 병사에게 사랑의 징표로 진주 목걸이를 받은 매기 언니는 미국에 갈 날을 기다린다. 매기 언니의 비스킷을 몰래 꺼내 먹고 향수를 뿐려 보는 치옥 이는 ‘양갈보가 될 거야’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매기 언니와 같은 삶을 꿈꾼다. 실제로 미군 부대가 인천의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PX에서 암암리에 나온 미제 물자는 시중으로 흘러들어가 양키시장을 형성하였다. 가난에 젊주린 사람들은 미군 부대의 쓰레기를 뒤져 돈 될 만한 것들을 건져내기도 했다. 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인천 사람도 많았으니 미군 부대는 전쟁 직후 궁핍했던 인

천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고, 미군 부대와 함께 하는 『중국인 거리』 속 사람들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칼 던지기를 하던 미국 병사들은 갑자기 아이들 쪽으로 칼을 던져 고양이를 무참히 죽이고도 킁킁대고, 매기 언니에게 국제결혼까지 약속했던 미군 병사는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매기 언니를 살해한다. 언제 사랑을 속삭였느냐는 듯, 매기 언니를 죽인 후에도 병사는 깔깔대며 지프를 타고 떠난다. 인천의 역사에도 미군에게 살해당하거나 다치는 일을 겪었던 수많은 ‘매기 언니’가 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란 수많은 ‘제니’가 존재한다. 부인할 수 없는 인천의 아픈 상처이다.

네 번 째 만 남

첫 선교수녀 도착지 기념비

서양 종교가

첫 발을 디딘 곳



▲ 현재 기념탑감리교회가 있는 중구 항동1가 2-14번지의 1954년 항공 사진(위)(출처: 인천광역시 지도포털)과 최근 항공 사진(아래)



▲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답동성당
(출처: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

미군 부대 테니스 코트에서 죽은 고양이의 시체를 들고 달리던 아이들의 발걸음을 상상하며 겉다 보면 첫 선교수녀의 도착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곳을 조금 더 지나 지금의 기념탑감리교회가 있는 곳이 고양이의 시체를 던졌던 부두일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의 항공 지도를 살펴보면 도로가 있는 현재의 모습과 달리 바로

바다와 맞닿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 문물이 드나드는 관문의 역할을 했던 인천은 서양의 종교가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이기도 하다. 1885년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천에 처음 도착하여 한국에 복음을 전하였고, 파리외방전교회의 블랑 주교는 한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제물포에 코스트 신부를 파견해 성당 건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지어진 성당이 인천의 가장 오래된 성당인 답동성당이다.『중국인 거리』속에서도 성당의 종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은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며 수녀의 죽음을, 그리고 죽은 고양이를 떠올린다. 2014년 인천을 다시 찾은 오정희 작가는 여전히 성당의 종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또 어머니를 잃은 제니가 가게 된 '성당의 고아원'도 답동성당의 고아원이다. 1950년대 말 답동성당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꽤 많은 혼혈 고아들이 답동성당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한다. 오정희 작가도 학교 재학생의 10퍼센트 정도가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었으며, 버려진 혼혈 아이들이 고아원에 몰렸다고 회상했다. 아픈 상처를 지닌 인천의 아이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답동성당과 그 종소리였던 것이다.

다섯 번 째 만 남

오정희 작가 집터

작가의 유년 시절을
품은 곳



▲ 복림원이라는 중식당이 된 오정희 작가의 집

그렇다면 이제는 점점 궁금해진다. 해인초 냄새를 맡으며 중국인 거리 곳곳을 누비던 어린 오정희 작가의 집은 도대체 어디였을까? 목조 이층집이었던 오정희 작가의 집은 이제 3층짜리 건물의 중식당이 되었다. 중앙동1가 19-1번지의 '복림원'이 바로 작가의 집이었던 곳이다. 2014년에 인천을 찾았던 오정희 작가는 옛집의 모습을 살펴보고 친구

치옥이의 집과 비슷한 집을 찾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조금만 걸어가면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돼지고기를 사러 가던 푸줏간도 있다. 복림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현재의 청화원(중구 제물량로232번길 9)이다. 중국인 가게들이 있는 언덕의 초입에 있는 곳이라는 작품의 묘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카페였다가 중식당으로 바뀐 현재의 복림원에서 오정희 작가가 살던 과거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현재는 아담하지만 아주 깔끔한 식당이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복림원의 식탁에 앉아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상상해 본다. 주방으로 들어가는 저 좁은 통로가 혹시 오정희 작가가 뛰어 들어가던 골방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을까.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하고, 중풍으로 죽고, 차라리 죽여 달라고 울부짖으며 여덟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전쟁 직후의 불행한 여성들 틈바구니 속에서 '여성'이 된 자신을 확인했던 어린 소녀의 그 골방.

오정희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중국인 거리』 속 어린 자신을 다시 만난다면 '뚜벅뚜벅 걸어가 봐. 네 마음대로 가 봐. 많이 슬퍼하고 많이 아파하고 그래도 웬찮아.'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어린 소녀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오정희 작가의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본다.

여섯번째만남

자유공원

어린 소녀의 마음을 위로 하는 곳



A wide-angle photograph of a landscaped garden. In the foreground, a large white fountain features a blue and white emblem. Stairs lead up through the garden, flanked by flower beds and trees. A tall antenna tower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 자유공원에서 내려다보는 인천항의 모습(위) 맨아래 장군 동상(아래)

할머니의 유품을 묻은 오리나무를 찾는 기준점이 되었던 ‘장군의 동상’은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이다. 맥아더 장군의 동상 주변은 이제 화단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소설 속 ‘나’가 보았던 오리나무가 아직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나무들이 중구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어린 아이의 보폭을 어림잡아 예순다섯 걸음을 걸어보며 생각한다. 70년 전 이렇게 걷던 한 소녀는 이제 ‘혼란에 가득 찬 어제와 오늘과 수없이 다가온 내일들을 뚫뚫그릴 한마디의 말’을 찾았을까?

자유공원은 소설 속 ‘나’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던 곳이기도 했지만, 할머니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중풍에 걸린 할머니를 시골로 보낸 후 할머니의 옷을 정리하며 어린 ‘나’는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공원에 있는 장군의 동상에서부터 할머니의 나이만큼인 예순다섯 발자국 거리에 있는 나무 밑에 할머니의 유품을 묻는다. 어린 ‘나’가 치르는 나름의 장례식이자, 할머니와의 기억을 간직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린 ‘나’는 자신의 성장을 체감한다. 분명 2년 전에는 예순 다섯 번을 걸으면 도착했던 오리나무가 이제는 예순 걸음도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2년 사이에 육체적으로 성장한 자신을 깨닫고 바다를 바라보며 어린 소녀는 ‘인생이란…….’이라는 말을 중얼거린다.

일곱 번째 만남

중국인 마을

진정한 만남과 어울림의 공간



▲ 이국적 풍경의 차이나타운 입구(위)
관광객으로 붐비는 주말의 차이나타운(아래)

지금은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 작품 속 중국인 마을은 청일조계
지 경계 계단이 있는 부근에서부터 인천역까지 이어지는 꽤 큰 구역이
다. 1884년 청의 치외법권 지역이 지정되면서 생겨난 차이나타운은 뛰
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중국 음식점과 이국적인 풍경, 다양한 구경거리
로 인해 주말만 되면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다.

그러나 『중국인 거리』 속 중국인 마을의 모습은 지금의 변화한 모습과 사뭇 다르다. 이 작품 속 중국인 거리는 ‘한국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타자의 공간’이다. 당시 차이나타운은 한국인과 미국인, 중국인, 혼혈아 등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지만 작품 속 인물들은 중국인들을 향한 거부와 차별의 태도를 보인다. 어른들은 그들을 향해 경멸의 어조로 ‘뙤놈들’이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중국인들에게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밀수업자, 아편쟁이, 사람고기로 만두를 빚는 백정’으로 그들을 이식한다.

실제로 6·25 전쟁 후 한국과 중공이 단교하며 화교는 한국 사회에서 외면과 차별을 겪었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는 물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1957년에 공

포된 무역법으로 인해 화교 상인들은 대외 무역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그리고 1953년, 1962년에 시행된 두 차례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현금을 대량 보유하던 화교들은 큰 손실을 당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와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1970년대에는 2만 명 이상의 한국 화교들이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은 어린 ‘나’와 ‘이충집 짧은 남자’의 만남을 통해 차별을 넘어선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인천으로 이사 온 후 어느 순간 자꾸 마주치는 짧은 남자를 보며 ‘나’는 알지 못할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짧은 남자는 ‘나’에게 중국인들이 먹는 빵과 장식품이 담긴 종이 꾸러미를 건넨다. ‘나’는 이 꾸러미를 빙 항아리에 소중히 간직한다. 타지에 사는 이방인으로서 겪는 짧은 남자의 아픔과 성장기의 성숙을 겪는 ‘나’의 아픔이 서로를 위로하는 장면이다. 이 둘의 눈빛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는 다른 국적도, 다

른 언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만남만이 존재할 뿐이다.

차이나타운은 이제 주말만 되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차이나타운이 더 이상 차별과 배척의 타자화된 공간이 아니라, 소설 속 ‘나’와 젊은 남자가 그랬듯 다양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여덟 번째 만남

하인천 어시장

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달려가던 곳



▲ 1972년의 하인천 어시장 풍경(위)(출처 : kkk8155 김식만 블로그)
하인천 어시장이 있던 우회고가교 자리(아래)

하인천 어시장의 역사는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890년 서울에 살다 인천으로 내려온 정홍택 씨 형제가 신포동 부둣가에 어물전을 짓고 수산물을 매시장을 설립했는데, 1900년 초부터 인천 해안에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조성된 일본인 어시장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1936년 1월 어업조합연합회로 흡수되어 북성동 하인천 부둣가로 옮겨 온다. 이 하인천 부두 주변에 어시장의 좌판들과 수십 개의 대형 상회들이 성시를 이루었으며, 여기서 파는 수산물들이 서울과 인천, 경기 지방 곳곳에 공급되었다고 한다. 인천 출신의 김윤식 시인의 글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 까지는 아무 길바닥이나 조기를 말리는 풍경이 흔했고 자유 공원을 중심으로 중구 대부분의 동네 골목길은 조기를 말리느라 펴놓은 가마니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부흥하던 하인천 어시장은 1975년 연안부두 인근으로 옮기며 지금의 인천종합어시장이 되었다.

아홉 번째 만남

축항선 철길과 대한제분

폐허 속 아이들의 놀이터



▲ 축항선 철길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인천, 그리고 궁핍했던 사람들. 이는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배고픔에 젖주린 아이들은 화차의 바퀴 사이로 기어들어가 조개탄을 훔쳐내고, 제분 공장 마당에 깔린 밀을 한 움큼 씩 집어 입 안에 털어 넣는다.『중국인 거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모습은 처참하지도, 처량하지도 않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배를 채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하다. 화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가 인부들이 나오기 전에 조개탄을 갖고 나와야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스릴 넘치는 놀이였을 것이고, 또 이 조개탄은 군고구마, 딱지, 사탕 등 아이들의 즐거움이 되었다. 제분 공장에서 집어 온 밀은 썹다 보면 불어나 마치 풍선껌처럼 풍선을 만들 수 있는 밀껌이 되었다.

아이들이 기어들어가던 화차는 인천역과 남부역을 연결하던 축항선의 화물 열차이다. 1959년에 개통된 축항선은 석탄과 건축 자재 등을 실어 날랐고, 이 석탄들은 전국 각지로 수송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폐선되어 운행이 중단되고 철길만 남아 있다.

철길 건너편에는 제분 공장, 대한제분이 있다. 유엔은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한민국에 경제 분야의 원조를 실시하였다. 식량과 곡물 원조의 많은 양을 차지했던 것이 밀이었는데, 이 밀로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밀가루로 만들기 위한 시설이 필요했다. 마침 인천에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제분주식회사 공장이 방치되고 있었고, 이 제분 공장 건물을 활용하여 1952년에 대한제분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밀가루를 가공하여 민족의 배고픔을 해소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창립한 제분 공장으로 인해『중국인 거리』속 아이들도 배

고음을 달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끊주렸던 1950년대이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이들의 뛰박질이 곧 인천의 생명력이 되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곧 인천의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인 거리』 속 어린 오정희 작가의 발걸음을 따라 바다와 맞닿은 인천의 끄트머리까지 걸어보며, 지금의 인천을 만들어 낸 1950년대의 모든 인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3.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1. 우리 지역의 공공 기관
5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전쟁
6학년 2학기 국어	독서단원_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학교]	역사2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 2.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 4.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역사1 IV.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 - 2.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	IV.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 - 4. 동아시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VI.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1. 냉전 체제와 제3 세계의 형성
국어3 함께 살아가는 우리	문화으로 느끼는 삶
[고등학교]	한국사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 - 6. 개항 이후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한국사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 4.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의 전개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 3.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통합사회 III. 생활 공간과 사회 - 1. 산업화와 도시화
	통합사회 VII. 문화와 다양성 - 4.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한국지리 VI.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 3.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 공간	한국지리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 3.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답사활동

- 01 오정희 작가의 어린 시절을 통해 내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를 떠올려 보자.



- 02 오정희 작가가 쓴 아래의 글을 읽고, 나에게 ‘고향’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고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태어나 태를 묻은 곳이 아닐지도 마음 깊숙한 곳에 따뜻하고 은은한 밑불처럼 묻어두고 있는 곳. 어떤 장소, 어떤 공간, 어떤 마음들. 그래서 언제나 그리운 것들. 나는 서울 사직동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 그곳보다는 오히려 아홉 살 무렵부터 열세 살까지 살았던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고향이라 여기고 있다. 고작 4년 정도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그 전후의 어느 때보다도 길고 깊고 생생하다.

- 오정희, ‘내 마음의 고향’ 중

- 1) 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 보자.

- 2) ‘고향’의 의미를 생각하며 ‘고향’으로 2행시를 지어보자.

고
향

답사 후 학습활동

관련 단원

- 고등학교 통합사회 : VII. 문화와 다양성-4.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 고등학교 문학 : 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활동목표

-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창작한다.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활동

- 활동1 : 인천 차이나타운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 제작하기
 - 모둠별로 인천 차이나타운의 조성 과정, 역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조사하기
 - 모둠별 조사 내용을 발표한 후, 인천 차이나타운이 갖는 가치에 대해 토론하기
 - 조사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인천 차이나타운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 제작하기
 - 제작한 카드 뉴스를 학교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기
- 활동2 : 유년 시절의 추억을 담은 수필 쓰기
 - 지도 사이트의 '거리뷰'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유년 시절 추억 이 담긴 장소를 캡처한 사진 준비하기
 - 모둠을 구성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진 속 장소를 소개하고 그곳에 담긴 자신의 추억 이야기하기
 -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년 시절의 추억을 담은 수필 쓰기: 이때 자신이 생각하는 고향의 의미나, 유년 시절이 지금의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등을 수필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의 성찰을 담은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작성한 수필을 학급 구성원과 공유하기

생각해 볼 거리

오정희 작가의 『중국인 거리』는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과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 있던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더 다채로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답사 전 학생들과 작품을 함께 읽으며 1950년대 후반 인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거나, 이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활용하여 작품 이해 활동을 하면 더욱 의미 있는 답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답사 때에는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며 학생들이 해당 공간과 인천 사회의 시대적 변모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차이나타운을 답사하는 학생들이 관광과 즐길거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온 시간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답사 활동을 구성하면 작품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차별과 혐오가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음을 안내하고 이러한 태도가 현재 우리 사회에도 반복되지 않는지 성찰하도록 한다. 나아가 '나'와 '젊은 남자'의 만남과 같이 다른을 넘어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차이나타운을 답사하며 이러한 공존과 소통의 자세가 잘 드러난 모습을 찾아보도록 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21, 인천문학전람, 다인아트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21, 인천이야기, 다인아트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사진으로 보는 인천 시사, 인천광역시
- 이현식, 2008,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연구-소설의 공간적 배경과 관련하여, 동남어문학회
- 박형준, 2015, 한국문학의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영상

- KBS News, 2021.06.06., 가부장제에 물음표를 던진 소녀의 등장... 오정희 '중국인 거리'
- KBS News, 2021.06.06., 소설 인생 50년 오정희 "쓰는 일은 매혹과 목마름"

인터넷 자료

- 경인일보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885874>

2-3

노동과 예술의 교차점, 강경애의 「인간 문제」 속 인천

문학 | 역사 | 예술 | 지리

체험코스

- ① 최초의 축현역 → ② 우현문 갤러리, 용동 큰우물 → ④ 참외전 청과물시장(공영주차장) → ⑤ 직업소개소와 공동숙박소 → ⑥ (백범 탈출로를 따라 → 개항로) 답동5번지 → ⑦ 답동성당 → ⑧ 긴담모퉁이길 → ⑨ 신흥초등학교 → ⑩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 ⑪ 축항(제2여객터미널)

총거리 4.5km
도보시간 1시간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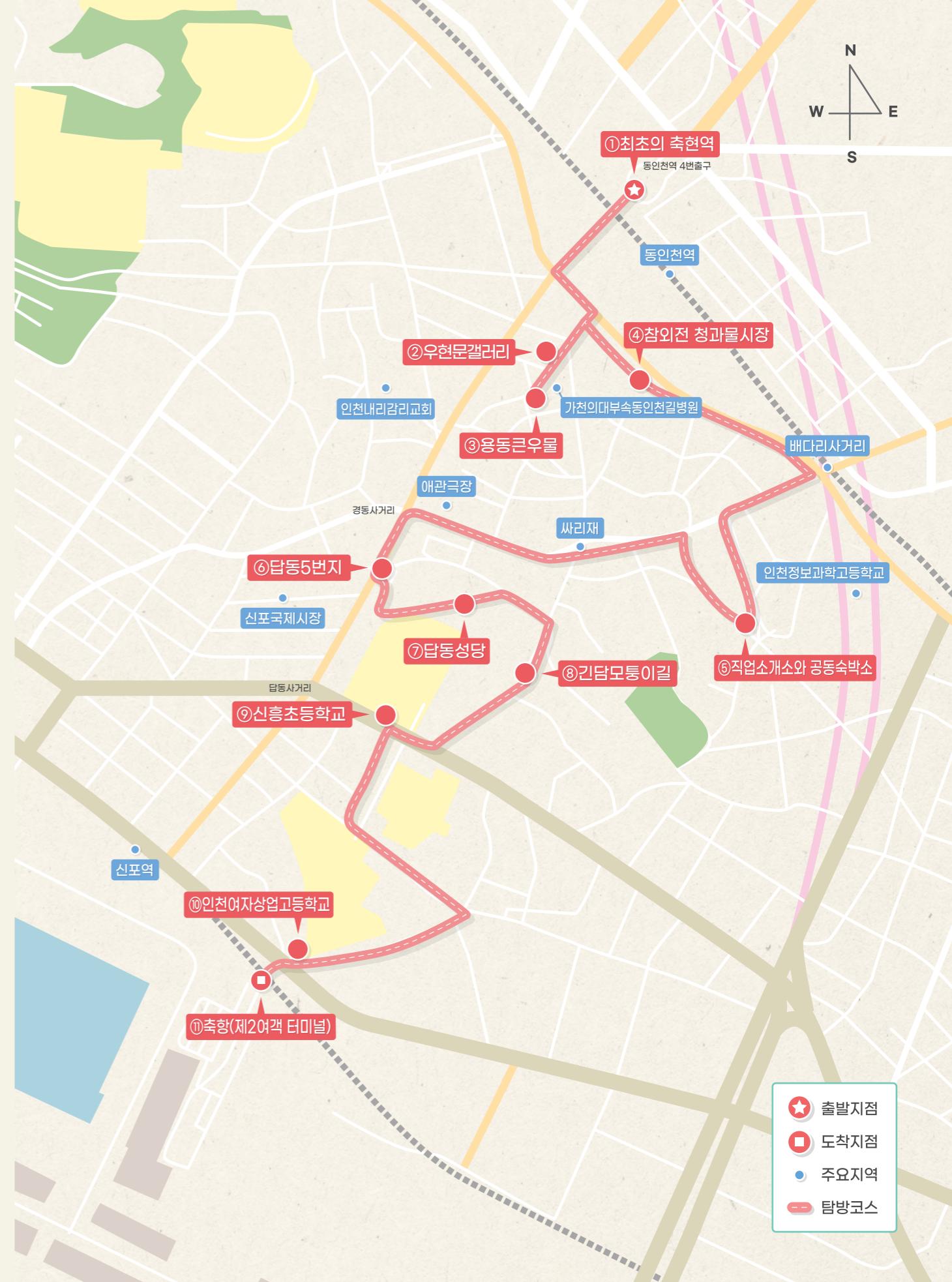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중학교]
국어 3 / 사회 1 / 사회 2 / 역사 1 / 역사2

[고등학교]
한국사 II /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부 교육과정 단원명은 122p를 확인해 주세요.

키워드

#1930년대 인천 #1930년대 문학 #강경애 #인간문제
#고유섭 #박세림 #백범김구 #노동운동사



2-3

노동과 예술의 교차점, 강경애의 「인간 문제」 속 인천



예술의 도시 이자 노동자의 도시였던 1930년대의 인천 속으로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근대 문물이 첫발을 딛는 곳이 되었다. 인천항으로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무역을 통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며 제물포의 모습도 빠르게 변해갔다. 이처럼 근대 문물 수용의 중심지가 되었던 인천은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도시가 된다.

또 한편, 인천은 노동자들의 도시이기도 했다. 인천항을 통해 전해지는 각종 문물을 수송할 근대 시설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교통 시설 건설을 위한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조선공업화정책도 인천의 산업화를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는 공장 건설을 위한 일용직 노동자 및 공장 근무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노동자 계층이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 형성된 인천은 최초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한국 노동 운동이 처음 발화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천의 노동의 역사를 문학으로,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 있다. 강경애의 「인간 문제」이다. 강경애 작가는 황해도 용연 및 서울에 살던 인물들이 인천으로 와 노동 운동에 몸담게 되는 과정을 핍진하게 그렸다. 작품에 묘사된 1930년대의 인천은 당시의 인천을 보지 않았으면 그려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1930년대를 살아간 예술인들과 노동자들, 그들을 그린 강경애의 「인간 문제」를 살펴보며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만남

축현역

한국 근대문학의
또 하나의 산실

일제강점기 당시 용동 큰우물 일대는 고급 요릿집이 들어서고, 권번(기생) 골목이 생기면서 변화가 되었다. 또 1895년 문을 연 극장 협률사가 1926년에 애관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연극과 영화를 상설하면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된다.

그런데 이 일대의 문화 발전을 가속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1899년에 개통된 경인선의 축현역, 지금의 동인천역이다. 축현역은 '싸리재'라는 이름을 한자로 바꾸어(싸리나무 축, 고개 현) 만든 이름이다. 제물포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를 연결하는 경인선의 노선 중 하나였던 축현역은 이용하는 승객이 점점 늘어나 1920년대에는 경성역과 평양역 다음으로 승객 수가 많은 역이 되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서울과의 교류가 원활해지면서 인천은 근대 문화가 꽂피우는 공간이 된다.

인천과 서울 사이의 거리를 1시간 40분으로 단축시킨 경인선 개통으로 인해 생긴 변화가 또 있다. 인천에서 수학하던 학생들이 경인선을 통해 서울로 통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시간이 넘는 통학 시간을 함께

하던 학생들은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를 결성하고 문예부를 만들어 간행물을 발행하며 문학 기량을 높였다. 고유섭도 이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 문예부 소속이었는데, 1925년 동아일보에 경인선의 풍경을 노래한 시조 '경인팔경(京仁八景)'을 발표했다고 한다. 고유섭 외에도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 문예부가 배출한 문인은 김동석, 정노풍, 함세덕, 현덕, 배인철, 진우촌 등이 있다. 현덕은 1930년대 후반 인천항 인근 빈민촌의 모습과 부두하역 노동의 풍경을 상세히 묘사한 「남생이」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문단에 등단한다.

조선명 문학평론가는 "경인선은 한국 근대문학의 또 다른 산실이었다."라고 말했고, 인하대 최원식 교수는 "경인선은 일제의 군사적 목적 아래 계획됐지만, 뜻밖에도 인천의 문화 역량을 한층 북돋았다."라며 그 침병 노릇을 맡아 한 경인기차통학생들의 근거지가 축현역이었다고 말한다. 철도는 교통수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매개체였으며, 작가들의 상상력과



▲ 사진엽서로 쓰인 축현역의 모습(위)(출처: 인천시립박물관)
과 축현역의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현재 동인천역 4번 출구의 모습(아래)

감수성을 촉발하여 인천의 근대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두 번 째 만 남

우현문 갤러리와 용동 큰우물

고유섭의 미학이 움튼 곳

조선 후기의 우물이자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된 용동 큰우물 뒤편에는 기념비가 하나 있다. 한국 미학의 선구자였던 우현 고유섭의 생가 자리를 기념하는 것이다.

1905년에 인천에서 태어나 경성제국대학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던 고유섭은 서양, 일본, 중국 등 각국의 미술사 강의를 접하면서 한 가지 포부를 품게 된다. 그것은 바로 조선미술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가 조선 미술사의 출현을 요망하기는 소학 시대(小學時代)부터 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 자신의 원성(願成)으로 전화되기는 대학 시대부터이다.” - 우현 고유섭, 「학난(學難)」 중

우현은 대학 졸업 후 경성제국대학 미학연구실의 조수로 근무하면서 한국 특유의 미의 본질을 찾기 위해 한국의 불교조각과 탑, 고구려 미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을 다니며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국 각지에 세워진 탑을 직접 답사한 후 「한국 탑파의 연구」라는 책을 간행하여 우리나라 탑 변천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논의를 세웠다. 또한 1930년경부터는 회화사 연구를 시작하여 규장각 장서에서 회화에 관한 옛 문헌을 발췌하며 우리 미술사의 뼈대가 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는 추후 한국회화사의 기틀이 된 『조선회화집성』이다.

우리 미술사 전반에 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하며 우리 미술사 정립을 위해 힘쓰던 우현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한다. 비록 그가 꿈꾸었던 '조선미술사'의 완성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지만,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화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빛날 수 있었다.

기념비 근처에 있는 우현문 갤러리는 미술문화 발



▲ 우현 고유섭의 생가를 기리는 기념비(위)
고유섭 생가터(아래)

전에 힘쓴 우현 고유섭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인천의 미술을 세계에 선보이겠다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고유섭 선생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 주변 상권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골목예술제 등 인천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곳이다.

한편, 용동 큰우물 정자 현판의 글씨는 인천의 명필이었던 동정(東庭) 박세림의 것이다. 글씨를 단숨에 써 내리는 서법으로 널리 알려진 박세림은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자신만의 서체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글씨가 과거 인천 사람들의 생명 줄과 같은 역할을 했던 용동 큰우물의 가치를 돌보이게 한다.

고유섭과 박세림. 용동 큰우물은 인천에서 나고 자란 한국 예술의 큰 인물들의 정신을 품고 있는 곳이다.

세 번 째 만 남

참외전 청과물 시장

치열한 삶의 현장

근대의 인천이 문화가 꽂피우는 도시였다고는 하지만, 식민지배하 조선에서 살아가는 인천 사람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기만 할 리 없다. 문인의 삶을 꿈꾸며 경인선에 올라타는 학생들 뒤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펼쳐진다.

동인천역 광장 건너편에 있는 동인천역1공영주차장(중구 큰우물로 29번길 3-6)으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는 여러 개의 청과물 가게가 늘어서 있다. 주변에 식재료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청과물 가게가 잇달아 있을까? 1910년대부터 상인들이 과일을 늘어놓고 팔았던 채미전, 참외전 거리의 흔적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1908년에 축현역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이다. 공간이 꽤 넓은 데다가 축현역 승객이 점점 늘어나며 유동 인구도 늘어나다 보니 이곳은 상인들이 장사하기 좋은 곳이 되었다. 1910년대부터 일본인들이 과수원을 운영하며 복숭아, 배, 사과 등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1930년대에 '공설 청과물 시장'이 형성됐다.

특히 여름이면 부천 소사와 서울 오류동의 참외 상인들까지도 축현역에 모이면서 거리가 온통 노란빛이었다고 한다. 청과물 시장은 매일 아침 청과물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생산자와 우마차 주인, 지게꾼 등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 공설 청과물 시장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쳤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되는 여름철에는 좌판 노점상도 하루에 20~30만 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번성했던 청과물 시장은 1982년에 도로 확장을 위해 철로 변 일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위축되었다. 1997년까지 운영되던 공설 청과물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남동구 구월동 농축산물 시장이 문을 열며 이곳으로 옮겨 가고, 현재는 몇몇 개의 청과물 가게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궁핍과 억압 속에서도 매일 매일을 살아나가기 위해 무거운 과일을 채미전 거리까지 끌고 온 상인들, 과일이 썩기 전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소리 높이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설움과 애환의 삶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달큰한 참외 향기가 가득했길 바란다.

네 번 째 만 남

직업소개소와 공동숙박소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



▲ 카페 '팟알' 사장인 백영임 씨가 짹은 일제강점기 공동숙박소 철거현장

그렇다면 이제, 강경애의 「인간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간 문제」의 주인공은 셋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지주에게 유린당한 후 고향을 떠나 인천 방적공장에 취직한 선비, 엘리트 청년이지만 ‘노동자의 참 동무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인천으로 향하는 신철, 지주에게 억울하게 땅을 잃고 삶의 희망을 찾아 인천에 와서 부두 노동자가 되는 첫째. 황해도 용연에서 스쳐 지났던 인물들은 인천에서 노동자의 모습으로 조우한다.

농촌에서 지주와 갈등하며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인천 드림’을 꿈꾸며 제물포로 몰려들었다. 구인을 원하는 곳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920년 7월 1일에 인천직업소

개소가 설치되었다. 율목리 58번지(지금의 율목동 33번지 부근)에 설치된 직업소개소는 1932년에 내동 84번지(지금의 개항로 45번길 9)로 신축 이전한다. 1930년부터 초선총독부관방문서과에서 매월 진행한 『조선총독부조사월보』에 직업소개소의 실적 조사 자료가 남아 있는데, 1935년 한 해 동안 1,572명의 구인자, 1,902명의 구직자가 인천부 직업소개소를 찾았다고 한다.

일자리가 있으면 잠자리도 필요한 법. 직업소개소는 그 부설기관으로 공동숙박소를 병설하였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역사박물관의 자료에 따르면 1936년에 조선 사람 만 명 정도가 머물렀다고 한다. 요금은 5전에서 7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3등 여인숙이 1박에 40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무척 저렴한 가격이다.

노동자들의 지친 몸을 달래주었던 공동숙박소 건물은 2020년 4월 8일 철거되었다. 이 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연구자들이 건물의 철거를 막으려 했지만 이 건물이 근대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속 인천을 살아갔던 노동자들의 삶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섯 번 째 만 남

백범의 탈출로

백범과 인천의 인연이
남긴 발자취



▲ 인천 감리서에 수감된 아들 김구를 따라와 헤드렛일을 하며 아들을 돌본 꽈냑원 여사의 모습

백범의 탈출로 인천은 각종 상인들뿐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던 도시였다. 개항 이후 미곡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삶의 기반을 잃은 농민들에게 인천은 경인철도 건설, 축항 건설 등으로 일자리가 많은 희망의 도시였다. 그러나 축항 공사에 투입된 모두가 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미곡 유출을 목적으로 축항 건설을 서두른 일본 총독부는 봄 농사로 인해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경성 감옥과 인천 분감의 조선인 죄수들을 강제 노역에 투입하였다. 이 일로 인천 땅을 밟게 된 역사 속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이다.

김구는 안악 사건으로 경성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1914년에 인천 감옥으로 이감되어 축항 공사 현장에서 강제 노역을 한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 심정이 『백범일기』에 고스란히 기록



▲ 인천기독병원 근처의 백범 탈출로

되어 있다.

'아침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 매고 축항 공사장으로 출역을 간다. 훑지개를 등에 지고 10여 장의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여기서 서대문감옥 생활을 회고하면 속담에 '누워서 팔딱 먹기'라, 불과 반나절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다리로 올라갈 때, 여러 번 떨어져 죽을 결심을 하였다.'

사실 인천과 백범 선생의 인연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896년 21세의 의혈청년이었던 김구는 치하포에서 쓰치다를 맨손으로 처단한 일로 체포되어 1896년 7월 인천 감리서에 이감되었

다. 사형 직전에 집행정지령이 내려 간신히 생명을 건진 김구는, 이듬해 봄에 인천 감리서를 탈옥한다. 이 과정 역시 『백범일지』에 생생히 담겨 있다. 현재는 스카이 타워 아파트가 있는 인천 감리서의 담을 넘고, 지금의 인천기독병원 근처에서 답동성당의 십자가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중구는 개항장거리 일대에 김구 역사거리를 조성하고 노역 현장을 담은 조형물, 김구와 그의 어머니 꽈낙원 여사의 동상 등을 두어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인천은 내 일생에 있어 뜻깊은 곳'이라고 말한 김구는 1946년 전국 순회 당시 인천에 가장 먼저 방문한다. 21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곳, 일제의 수탈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곳인 인천을 광복 후에 다시 방문한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차마 상상하기 어렵다. 아마 그 마음은 1945년 8월 15일을 맞은 모든 인천인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만남

외리 3번지, 김철수의 집 「인간 문제」 속 노동 운동의 시작점

'인천부 외리 3번지 김철수'. 신문 배달을 하는 밤송이 동무가 인천으로 가 이 사람을 찾아가라며 신철에게 알려준 주소이다. 철수를 만난 신철은 공장 건축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로 일하며 고역을 치르고, 이후에는 노동자들을 의식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부 외리는 지금의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인근이다. 그런데 노동 운동의 중심인물인 김철수가 왜 인천부 외리에 사는 인물로 설정되

었을까? '인천부 외리'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일제강점기에 항일 및 사회주의 운동에 뜻을 두었던 여러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934년 10월 10일 〈매일신보〉 기사에는 '신수복'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이 기사에는 정태옥이라는 인물이 인천의 신수복, 우종식, 이억근 등과 접촉하여 1932년 8월 1일에 '반전(反戰) 데이' 격문을 인천에 뿐리고 '공산청년인천조직준비위원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수복과 이억근이라는 이름은 1932년 벌어진 메이데이 격문 사건에도 등장한다. 1932년 3월 어느 날 청년들이 신수복의 집에 모여 항일과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돋기 위한 국제적색구원회(MOPR)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신수복이 이 조직의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모인 신수복의 집이 인천부 외리 232번지이다.

인천부 외리와 관련된 기록은 이외에도 또 있다. 1930년 2월 28일 아침, 현재의 중구와 동구 일대에 '3·1운동 11주년 기념을 맞아 전조선민중에게 격함'이라는 유인물이 뿐려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는 그 정도를 더하고 있어 2000만 생령의 고통과 비애는 극에 달해 있다. (중략) 노동하는 자는 조선의 노농 군중이고 영화와 향락을 누리는 자는 일본의 자본가와 지주가 아닌가!'

이 사건이 있은 후 체포된 청년은 '이리청년동맹'으로 보내는 우편물을 가지고 있었고, '인천부 외리 27번지에 사는 천일 정미소 직공 김덕룡으로 모르는 사람이 우편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추후 이 격문 사건의 배후는 인천상업학교 출신의 유명한 사회주의자 이승엽임이 밝혀진다.

인천부 외리 3번지의 김철수가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 인물 중 누군가를 모델로 한 것인지, 작가의 완전한 창작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사회주의에 뜻을 둔 청년들이 인천부 외리에서 활동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조선농촌을 파멸시키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그들의 모습에서 김철수의 모습이 그려진다.

일곱 번째 만남

사정 5번지, 신철의 집과 답동 성당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동자들의 결의가 싹튼 곳

처음 벽돌 지는 일을 하게 된 신철에게 다가와 피가 배 그의 손에 섬 피를 대준 외눈까풀의 노동자.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었던 첫째에게 신철은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한다.

‘사정(寺町)으로 올라가누라면 천주교회당이 있지요. 그 집을 지나 공동변소가 있지유. 그 우에는 장작 패어 파는 집이 있습니다. 바루 그 우에 조고만 초가집이 있지유. 그 집 뒷방이 바루 나 있는 방이오. 꼭 오시우.’

이 천주교회당이 답동 성당이다. 신철의 집은 답동 성당 근처, 현재의 우현로 50번 길의 좁은 골목 안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골목을 찾아가면 건물 사이 좁은 틈새로 또 하나의 골목이 보인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다닐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몇 개의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아마 신철은 이 집들 중 어딘가의 뒷방에 묵었을 것이다. 이 방에서 첫째는 신철에게 사회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해 배우면서 계급의식을 깨우치게 된다.

첫째뿐 아니라 간난이도 신철의 집을 찾아온다. 서울에서 일하며 일찍부터 노동 운동에 눈을 뜯은 간난이는 밀령에 따라 인천의 방적공장에 취직한 후 신철의 집을 찾아간다. 이후 간난이가 공장 내에서 추진하던 의식화 운동은 신철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다.

비록 부두 노동자 파업 사건 이후 검거된 신철은 이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지만, 작은 방에 앉아 조선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안타까워하



▲ 우현로50번길의 좁은 골목(왼쪽). 안으로 들어가면 신철이 살았을 법한 집들(오른쪽)이 보인다.

고,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신철과 첫째 간난의 마음만은 이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만남

긴담모퉁이길

새벽의 잔광과 함께 하는 노동자의 길



▲ 동본원사길에서 내려다보는 긴담모퉁이길

동무들이 노동 현장에 대해 말해준 내용을 되새기며 거리로 나온 신철은 새벽 거리의 노동자들을 본다. 목에 타월을 걸고 제각기 일터를 찾아가는 노동자들, 도시락을 들고 정미소로 가는 부인들, 그리고 이들을 비추는 전등불까지. 신철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노동자의 도시 인천’을 실감하고, 인텔리가 아닌 ‘노동자’가 된 자신을 자각한다. 관념으로서의 노동이 아닌 실제의 노동을 체험하기 전까지 신철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은 아름다운 돌담이 이어지는 긴담모퉁이길이다.



▲ 국밥집 위치의 정육점

긴담모퉁이길 주변에는 일본인 관료 및 사업가들의 고급 주택이 있었지만, 사실 이 길은 노동자들의 길이었다. 답동 성당과 기독병원 근처에 주로 거주했던 조선 노동자들은 긴담모퉁이길을 따라 걸어오다가 남성 노동자들은 부두 노동자로, 여성 노동자들은 정미소로 갈라졌다.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긴담모퉁이길을 메웠을까? 긴담모퉁이길 위에 있는 동본원사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노동자들의 행렬로 가득 찬 긴담모퉁이길을 상상해 보면 ‘노동자의 인천 같다!’라고 한 신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신철은 노동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길가에 늘어앉은 국밥집’을 찾아 들어간다. 긴담모퉁이길을 내려오다 보면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는 빨간 간판의 정육점이 있는데, 이곳이

신철이 밥을 먹었을 국밥집의 위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양을 먹는 노동자들의 모습에 기함했던 신철은 첫날 노동을 해 본 후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양의 밥을 먹는지 이해하게 된다. 보통 양의 밥으로는 버틸 수 없는, 튼튼하고 강인한 첫째마저도 계단을 오르며 어지럼증을 느끼게 하는 고된 노동이 매일 그들 앞에 베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긴 담모퉁이길은 매일 아침 또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나서야 했던 조선 노동자들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

아 흡 번 째 만 남

축항 부두

부품이 아닌 인간으로서
일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진 곳



▲ 1900년대 초 인천항 하역 노동자의 모습(위)(출처: 인천 역사자료관)과 부두 노동자 파업의 장이었던 인천항 제1 부두(아래)

「인간 문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축항 부두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은 신철과 첫째의 삶을 뒤바꾸어 놓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동방적 신축공사 현장에서 처음 만났던 신철과 첫째는 축항 부두에서 두 번째로 조우하고, 축항 부두에서의 마지막 만남을 뒤로한 채 갈림길을 걷게 된다.

첫 번째 노동을 나갔던 신철은 기운을 차리고 며칠 후 다시 축항 부두로 나간다. 부두로 나온 신철은 지금의 인천 우체국 부근에서 붉은 끈을 받는데, 이 일표는 하역물품을 지게에 옮겨 싣는 일을 하는 노동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신철은 축항을 ‘조선의 심장 지대’로 표현하며, 몇 천 톤이나 되어 보이는 큰 기선이 열을 지어 있는 축항의 거대한 규모에 감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신철은 하역물품을 나르는 일에도 고역을 치른다. 겨우 일을 마친 신철이 받은 일당은 95전이다. 그나마 이것은 임금이 많은 일이었고, 첫날의 벽돌 나르는 일에서는 46 전의 임금을 받는다. 당시 물가를 보면 계란 10개가 47 전, 맥주 1병이 34전이었다고 한다. 신철은 이 돈을 받고 세상에 버림받은 듯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자각 한다. 신철이 일당을 받은 곳은 지금의 청실홍설 건물 부근인데, 축항에서 이곳까지 올라오는 길(지금의 신포동 복지센터 부근)에는 가부키좌, 표관, 죽원관 등 일본인들이 설립한 극장과 작품 속 ‘킹바이’와 같은 술집들이 늘어서 있어 모던 결과 모던 보이들이 향락을 즐기던 곳이었다. 이 모던 보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고작 맥

주 3병 값에 불과한 임금을 받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당시의 부두 노동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적은 임금 때문만이 아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80전이었는데, 일본인 노동자는 2원(1원=100전)을 받았다. 일본인 노동자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은 조선 노동자들은 결국 부두 노동자 파업을 벌인다.

축항에는 기선이 즉 들어와서 부두에 대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때 노동자 몇 사람은 그들의 대표로 요구 조건을 제출하려고 해륙운수조합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의 대표 노동자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기까지 꼼작하지 않고 사무실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해가 별겋게 타올랐다. 그들은 저 해를 바라보면서 단결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함을 깨달았다.

1930년대의 인천에는 세 번의 부두 노동자 파업이 벌어진다. 1933년에 노동자 400여 명이 객주조합을 대상으로 동맹파업을 벌였는데, 벼한 가마니를 운반하는 데 주는 임금을 1전 5리에서 1전 2리로 인하한 것과 이 결정을 노동자들과의 합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1935년 6월 12일에는 부두 노동자들이 일제히 동맹파업에 돌입한다. 한 단체의 독점으로 인해 다른 단체의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자 이들의 구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1만여 명에 달하는 부두 노동자들이 참여한 큰 규모의 노동 운동이었다.

「인간 문제」 속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강경애 작가가 인천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들을 모티브로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가 목적 없이 살아가던 농촌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떨치고, 도시 계급 운동의 주역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첫째와 노동자들은 아마도 지금의 인천세관 역사공원이 있는 큰 사거리에서, 부두 건너편의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가만히, 그저 가만히 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각성, 단결의 무한한 힘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인천으로 찾아왔던 그들이 부품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주장하며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났던 순간을, 지금 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해 본다.

더 알아보기

노동자로서, 삶의 주체로서의 각성 '동일방적 인천공장'

인천이 배경인 「인간 문제」의 후반부는 누가 뭐래도 간난이와 선비가 주인공이다. 지금 주에게 억울하게 유린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간난이와 선비는 인천의 대동방적공장에 취직하며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삶을 벗어던지고 주도면밀한 노동 운동의 주체로 거듭난다. 이 대동방적공장은 1934년 인천 만석동에 들어선 동양방적 인천공장이다. 작품을 읽다 보면 '강경에 작가가 실제로 동양방적 공장에서 일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 속에는 공장의 모습과 여직공들의 삶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 동양방적 공장 기숙사의 현재 모습

동양방적 인천공장은 일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1911년 일본 내에 제정된 '공장법'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는 11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긴다. 이에 따라 원래 2교대로 운영하던 일본의 방적공장들이 3교대로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적 공장들이 공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조선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조선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온 방적 공장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할 리 없다. 선비는 고된 노동에 지쳐가고, 공장 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기 위해 공장에 취직한 간난이는 선비에게 공장의 검은 속내를 일깨운다.

"선비야! 저 봐라, 지금 야근까지 시키면서도 우리들에게 안남미 밥만 먹이고, 저금이니 저축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작을 하여 우리들을 속여서 돈 한 푼 우리 손에 쥐어보지 못하게 하고 죽도록 우리들을 일만 시키자는 것이란다. 원유회를 한다느니, 야학을 한다느니. 또 몸을 튼튼케 하기 위하여 운동을 시킨다는 것도, 그 이상 무엇을 더 빼앗기 위하여 눈 가지고 아웅 하는 수작이란다……."

공장 밖에서 전하는 쪽지를 몰래 들여와 기숙사 각 방에 전달하며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일깨운 간난이. 실제로 동양방적 공장에서는 개업 이후 노동쟁의가 반발했으며, 인천 지역의 노동 운동을 이끈 '적색노동그룹'이 동양방적 인천공장의 노동 운동에 주력을 쏟기도 했다. 동양방적 이외에도 인천 곳곳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이 일어났다. 인천의 13개 정미소 여공 3천여 명은 '선미여공조합'을 조직해 활동하였는데, 이 내용이 「인간 문제」 속 부두 노동자들의 말에도 등장한다. 또

한 성냥 공장이었던 조선인천주식회사의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임금 인하 횡령, 그리고 일본인 감독의 성적 희롱에 항의하는 동맹파업을 하기도 했다.

동일방적 인천공장이 된 만석동 37-2번지를 찾아가면 아직도 동양방적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과 그 담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여공들이 머물던 기숙사이다. 여공들을 억압했던 공장의 높은 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탈출을 감행하는 간난이가 여린 선비의 어깨를 올라타고 담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그려진다. 간난이처럼 탈출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던 모양인지, 기숙사 건물 담벼락에는 초소 형태의 낡은 건축물이 있다. 직원들의 월담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 건립 당시의 동양방적 공장(위)(출처: 인천시립박물관)
의 모습과 담벼락의 초소(아래)(출처: 경인일보)

는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공장에 정용된 여성 노동자 중에 폐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공기와 햇볕도 통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황해도 용연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품었던 선비와 첫째는 선비의 죽음 이후에야 다시 만나게 된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인간 문제」를 고민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로 성장한 선비와 첫째. 지금의 인천은 그 시절을 살아가던 수많은 '선비'와 '첫째'가 죽음을 무릅쓰는 투쟁으로 이룩한 결실이다.

답사활동

01 (가)의 답사 장소와 관련 있는 사건을 (나)에서 찾아 연결해 보자.

(가)

(나)



•



•



•



•



•

- 백범 김구의 탄출

- 우현 고유섭의 출생

- 부두 노동자 파업

- 여성 노동자 동맹 파업

-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 결성

02 「인간 문제」의 세 인물인 선비, 첫째, 신철 중 한 명을 골라 편지를 써 보자.

○ ○에게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2.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5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전쟁

6학년 2학기 국어 독서단원_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학교]

국어3 문학 속의 세상

사회1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사회2 인권과 헌법

역사2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 1. 국민 국가의 수립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 2.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역사1 II.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 4. 크리스천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고등학교]

한국사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 - 6. 개항 이후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한국사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 4.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의 전개

통합사회 III. 생활 공간과 사회 - 1. 산업화와 도시화

한국지리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 3. 공업 발달과 지역 변화

한국지리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4.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한국지리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 3.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답사 후 학습활동

관련 단원

- 고등학교 한국사 :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 고등학교 문학 : 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활동목표

- 1930년대의 사회·문화의 변화 양상과 사회 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학습활동

- 활동1 : 1930년대 농민 운동 및 노동 운동의 격문 포스터 창작하기
 - 1930년대에 일어났던 농민 운동 및 노동 운동에 대해 조사하기
 - 당시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저항한 이유, 그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잘 담은 격문 작성하기
 - 작성한 격문을 그림 등이 들어간 포스터 형태로 완성하기
 - 모둠별로 완성한 격문 포스터 발표하기
- 활동2 : 소설을 통해 1930년대와 현대 사회의 노동 현실 비교하기
 - 학급 학생들과 「인간 문제」(강경애) 답사 후 현대 사회의 노동 현실을 담은 현대 소설을 모둠별로 선택해 독서하기(『땀 흘리는 소설』(김혜진 외) 속 단편 소설 활용 가능)
 - 모둠별로 현대 소설에 드러난 현대 사회의 노동 현실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기
 - 현대 사회의 노동 현실을 소재로 토의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하기
 - 「인간 문제」 속 1930년대의 노동 현실과 현대 소설 속 현대 사회의 노동 현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 현대 사회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 토의 후 발표하기

생각해 볼 거리

강경애 작가의 『인간 문제』는 노동자 도시였던 인천의 특성과 노동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인천의 역사를 잘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 장소들은 현재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답사 시 학생들에게 과거 사진을 보여주거나 작품의 내용을 떠올리며 과거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보도록 유도하면 의미 있는 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1930년대의 노동운동이 민족 운동,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졌음을 이해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작품 속 인물들의 노동운동이 지닌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작품을 함께 읽는 활동을 통해 작품 감상을 폭넓게 할 수도 있다. 이기영의 『고향』은 1930년대 농촌 사회 속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뿐 아니라 노동 운동에 참여하는 여직공의 모습도 담겨 있어 「인간 문제」와 함께 읽기 좋은 작품이다. 식민지 수탈의 현실을 담은 채만식의 「탁류」, 농촌 착취 문제를 다룬 김정한의 「사하촌」 등도 있다. 동시대의 작품뿐 아니라 현재의 노동 문제를 담은 소설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노동 현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21, 인천문학전람, 다인아트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21, 인천이야기, 다인아트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사진으로 보는 인천 시사, 인천광역시
- 최학승, 2008, 『인간 문제』와 인천, 한국학 연구

영상

- 한국근대문학관 공식 유튜브, 걸어서 '인간 문제' 속으로 "인천의 노동운동"
- 한국근대문학관 공식 유튜브, 걸어서 '인간 문제' 속으로 "인간문제를 통해 읽는 인천의 역사"

인터넷 자료

- 경인일보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836619>
- 한국근대문학관 <http://lit.ifac.or.kr/>

P A R T

3

인천의 생태

- 3-1 도심 속 쉼터, 소래산
- 3-2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있는 곳
- 3-3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민족의 영산
- 3-4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 인천대공원



3-1

도심 속 쉼터, 소래산 문화 | 역사

체험코스

- ① 장수동 은행나무 → ②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아래
→ ③ 소래터널 및 송전탑 → ④ 쉼터 → (마애보살입상)
→ ⑤ 소래산정상 → ⑥ 헬기장 → ⑦ 김재로묘 → ⑧ 연락
골 추어마을

총거리 4.5km
도보시간 2시간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 3학년 1학기 사회 1. 우리 고장의 모습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이야기
3학년 1학기 사회 3.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4학년 2학기 과학 1. 식물의 생활

[중학교]

- 사회 1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역사 2 V. 조선 사회의 변동

[고등학교]

-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한국지리 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키워드

#인천의 명산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장수동 은행나무
#보양음식마을



3-1

도심 속 쉼터, 소래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

1992년 12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된 장수동 만의골 은행나무는 주민들의 보살핌으로 800년 이상 마을을 지키다가 2021년 문화재청이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라는 명칭으로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 지정했다.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을의 수호신이 된 장수동 은행나무처럼 인천광역시의 명산인 소래산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만들며 사라질뻔한 산이다.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내게 되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소래산 지키기 운동'으로 소래산을 깎아내는 것이 아닌 터널을 만드는 것으로 변형하여 건설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 속 쉼터로서의 소래산은 제 모습을 유지하며 다양한 이야기와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었다.

소래산은 이처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곳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발전해 온 고장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장소이다.

첫 번째 만남

장수동 은행나무

마을의 수호신



▲ 마을의 터줏대감 장수동 은행나무



▲ 남동둘레길 1코스 장수동 은행나무 스템프

은행나무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 할 만큼 오래된 나무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유교와 불교가 전해질 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나무는 가을에 노란빛이 매우 아름답고 병충해가 없으며 넓고 깊은 그늘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정자나무 또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는다.

2021년 2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승격된 인천광역시 기념물인 장수동 은행나무(남동구 장수동 63-6)는 나이가 8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오래된 나무이다. 뿌리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다섯 개로 고르게 갈라지면서 높게 솟아올라 있고 나뭇가지가 마치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진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높이 30m, 둘레 8.6m이며 5개의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뻗어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액운이나 돌림병이 돌면 나무에 제물을 차려놓고 정성을 들여 빌기도 했고 해마다 음력 7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내면서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했다고 한다. 장수동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살아온 나무로 민속적·생물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두 번 째 만 남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아래

등산객들의 쉼터



▲ 등산객들의 쉼터



▲ 소래산 입구 체육광장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주요 도시 및 인천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 순환 고속도로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다리 아래에는 소래산 등산객들과 장수동 은행나무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소래산 입구 체육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아래에 조성된 체육광장에는 족구장 1면, 운동기구 16종, 휴게 쉼터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체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인천대공원 동문이, 우측으로는 장수동 은행나무와 만의골로 이어져 있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쉬어 가는 장소이다.

고속도로 다리 아래의 넓은 그늘과 시원한 바람은 체육광장에서 운동하는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지친 피로를 풀어주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소래터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서창동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을 잇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터널이다. 길이는 일산 방면 446m, 판교 방면 421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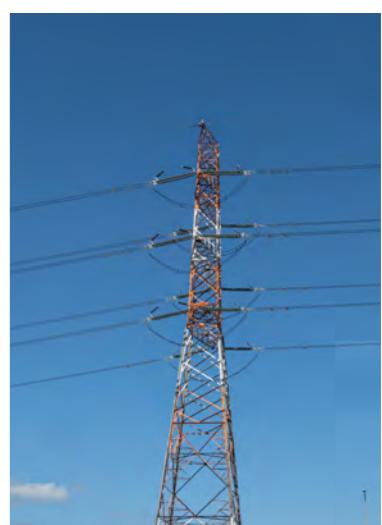
본래 이 터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장수 구간 착공 당시 설계로는 터널을 건설할 계획이 없었으며, 절개 공법으로 소래산을 깎아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래산 일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사 저지 운동으로 인해 1997년 2월



▲ 소래산 살리기 시민운동(위) / 소래터널 전경(아래)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왼쪽) / 소래산 송전탑(오른쪽)



네 번 째 만 남

소래산 쉼터

다양한 꽃들이
반겨주는 곳



▲ 소래산 쉼터에 조성된 꽃밭

세 번 째 만 남

소래터널 및 송전탑

시민들에 의해 탄생한 터널



▲ 소래산 쉼터

소래산 중턱에는 등산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이 쉼터는 인천광역시나 시흥시 소유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이다. 이 땅의 주인은 2011년부터 등산객들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홀로 이 쉼터를 조성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기자기한 꽃밭과 편안하게 앉아서 쉬어 갈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테이블과 의자가 꽤 넓은 공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들로 사시사철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다섯 번째 만남

소래산 정상

낙조가 아름다운 명산

소래산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산 정상에서 보는 낙조가 매우 아름다운 산이다.

소래란 지명은 지형이 소라처럼 생겼다는 설과 냇가에 금이 많다는 설, 솔내(松川)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지형이 좁다는 등의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리(맨 꼭대기)의 발음이 바뀐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소래산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높이는 299m다. 정상에 서면 날씨가 맑은 날은 시흥 시가지와 서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소래산 약 5km에 이르는 산책로 주변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지압로, 쉼터 등이 있고, 우리 꽃 야생화원, 철쭉화원을 비롯해 만남의 숲, 독서의 숲, 쉬어가는 숲 등이 조성되어 있다.

소래산 중턱의 장군바위(병풍바위) 암벽에는 2001년 보물 제1324호로 지정된 소래산 마애보살 입상(始興蘇萊山磨崖菩薩立像)이 새겨져 있다. 높이 12.3m, 어깨너비 3.75m의 거불(巨佛)로 우리나라 석불 조각에 있어 최대에 속한다. 6.25전쟁 때 영국군이 웃대야리 방앗간에서 대포를 쏘았으나, 바위 양편만 손상되고 불상은 아무 피해도 없어 영험한 바위라 하여 일 년 내내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1988년 9월 14일 서울올림픽 때는 성화 봉송 축하행사의 하나인 탁본 전시회에 탁본이 전시되어 보살의 자비로 서울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소래산 중턱에는 소래산 약수터가 있는데 전하는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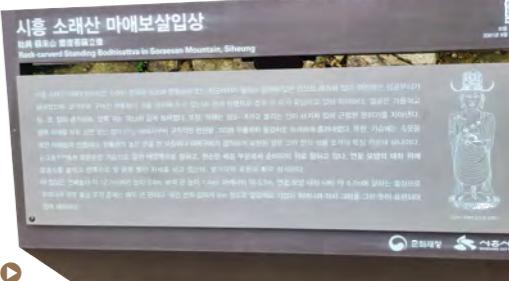


▲ 소래산 정상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기로는 앉은뱅이가 이 약수를 마시고 일어섰다고 한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약수는 마르지 않으며, 이곳 우물 세 개를 치우고 나면 여지없이 비가 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명산이다.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안내판

여섯 번째 만남

헬기장촉각을 다투는
인명 구조 장소

▲ 소래산 헬기장

소래산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면 인명 구조 및 육군 17사단 훈련을 위한 헬기장이 있다. 이 헬기장은 소래산을 등반하다 산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빠른 인명 구조를 위해 헬기가 이착륙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육군 17사단 주둔지 내 전술헬기장으로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 등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일곱 번째 만남

김재로 묘영조가 사랑한
조선시대 문신

김재로 묘(남동구 운연동 산64-13)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청사(淸沙) 김재로(1682~1759)의 묘소로 인천광역시 기념물 3호로 지정되었다. 김재로는 숙종 28년(1702)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숙종 36년(1710)에는 춘당대 문과에 급제하여 겸설서(兼說書)를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간 후 부재학, 대사간, 우의정, 좌의정 등 주요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 김재로 묘

특히 지춘추관사로 있을 때 실록 도청 당상을 겸직하여 『경종수정실록』편찬에 참여하였으며, 관중추부사 때에는 청나라에 가서『명사(明史)』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현재 운연동 만의 골 입구 동산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의 묘역에는 봉분 아래부분에 돌레돌을 두른 묘와 묘비·망주석·장명등(長明燈: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등)·돌짐승 한 쌍이 있으며, 주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호암미술관에는 그의 36세 때의 모습과 51세 때의 모습을 그린 영정 2폭이 보관되어 있다.

여덟 번째 만남

연락골 추어마을

산자락에 자리한
보양 음식 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에는 보양음식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추어탕을 주메뉴로 한 음식점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연락골 추어마을이다. 추어마을은 1990년대 형성되었다. 원래 논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촌마을이었으나 논 미꾸라지가 많이 잡히면서 주민들이 추어탕을 즐겨 만들었고 그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문 음식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세 곳이 영업을 시작했으나 현재는 10여 곳으로 음식점이 늘었다.

추어탕은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보양 음식이다. 이곳 추어탕은 고추장을 넣어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고추장과 미꾸라지, 국수와 수제비가 어우러져 걸쭉하고 얼큰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

미꾸라지 특유의 비린내와 흙내를 없애기 위해 산초가루와 들깻가루, 부추가 필수 양념으로 들어간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거나 갈아서 만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식재료의 경우 동네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이용해 더욱 신선하다. 시골처럼 편안한 분위기의 마을로 인근에는 소래산과 인천대공원 등이 자리해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다.



▲ 연락골 추어마을 입구(위) / 연락골 추어마을 추어탕(아래)

답사활동

- 01 남동 둘레길 1코스 장수은행나무 스템프를 아래에 찍어봅시다.

- 02 지도를 보고 체험한 장소의 이름을 현 위치 다음부터 적어봅시다.



답사 후 학습활동

관련 단원

-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 1. 우리 고장의 모습
-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 3.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과학 : 1. 식물의 생활
- 중학교 사회1-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중학교 역사2-V. 조선 사회의 변동-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 고등학교 한국사-IV. 대한민국의 발전-5.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 고등학교 한국지리-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1.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활동목표

-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을 파악하여 고장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 전통 문화재를 살펴보며 옛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여러 가지 모습 살펴보기
 -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모습 살펴보기
 -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대표하는 자연, 인문환경을 조사하기
 - 지도에 조사한 내용 표시하기
- 활동2 :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활용하여 디지털 영상지도로 파악하기
 - 주제를 정해 디지털 영상지도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 살펴보기
 - 주제 예시: 자연과 관련 있는 곳,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곳, 교통시설,
 - 문화유산 또는 유명한 관광지, 기타
 -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소개하고 싶은 장소 떠올려 소개자료 만들기
 - 우리 고장 소개하기 및 소개 활동 소감 나누기

생각해 볼 거리

소래산을 등반할 수 있는 등산로 코스는 다양하다.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와 소래터널 옆으로 조성된 만의골 등산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자연의 보존을 위해 학생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질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이다.

800년 이상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한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와 그 나무를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편리한 교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깎여 나갈뻔한 소래산을 지킨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연보호 운동으로 조성된 소래터널, 자신의 사유지를 등산객을 위해 내어놓고 자연과 숲을 헤치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산을 오른다면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강옥엽 외, 2018, 인천으로 통하였느냐, 인천역사자료관
- 1000 명산 견문록(서울, 경기, 인천), 2011, 유정열
-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2020,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터넷 자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https://www.namdong.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 100선 <https://itour.incheon.go.kr/main/main.do>
- 디지털시흥문화대전 <http://siheung.grandculture.net/siheung>



3-2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있는 곳 지리 | 역사

체험코스

- ① 계산고등학교 → ② 계양산성박물관 → ③ 계양산성 → ④ 하느재 → ⑤ 계양산 정상 → ⑥ 중심성 → ⑦ 징매이고개 생태터널 → ⑧ 계양산 장미원 → ⑨ 계양문화회관

총거리 4.4km

도보시간 2시간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 3학년 도덕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 6학년 과학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 5학년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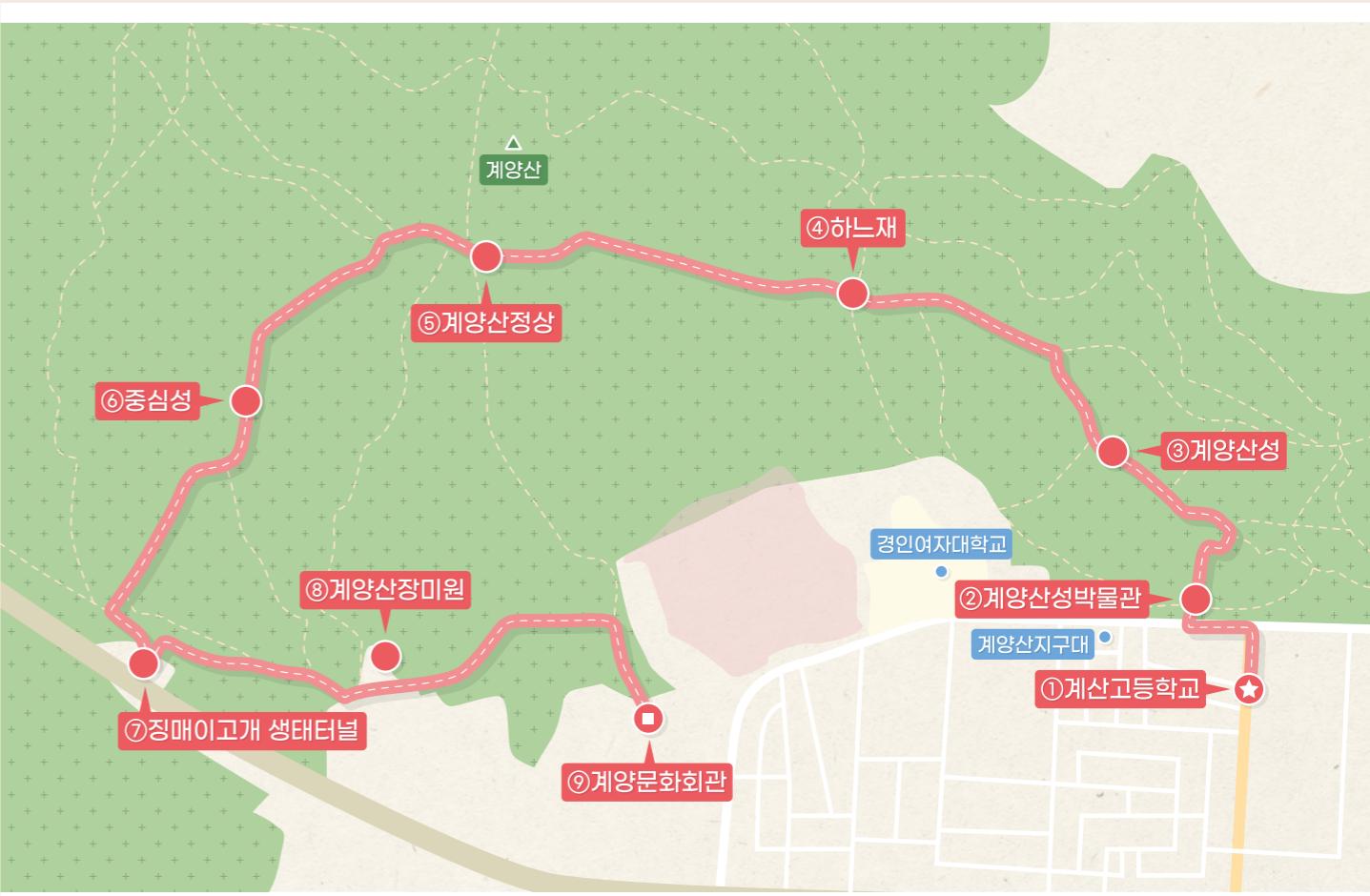
- 사회1 Ⅱ.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사회2 X.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 역사2 Ⅰ.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3. 삼국의 성립과 발전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4. 왜란·호란의 발발과 영향

[고등학교]

- 한국사 Ⅰ.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 한국지리 Ⅱ.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1.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키워드

#계양산성박물관 #계양산 #계양산성 #생태터널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3-2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있는 곳



인간 중심을 넘어 모두가 함께 하는 곳

산지는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평지에 비해 기온이 낮으며, 경사진 지형을 이루고 있어 농업에 불리하고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살기 불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지에서 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산지는 각종 지하자원과 삼림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방어에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산지, 산지 주변 환경, 사물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지명 등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터전으로 생각하며 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주체가 아닌 함께 어울려 가는 존재로서 산을 생각하였다.

산이 주는 혜택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권을 유지해 주는 데서부터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과한 욕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생태계가 파괴돼 많은 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계양산과 주변의 공간을 살펴보면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북돋우면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

첫 번째 만남

계산고등학교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계양산 자락에 위치한 계산고등학교는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세상에서 미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1987년에 개교하였다. 짧은 역사를 지난 계양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로 개교 후 36년 간 약 15,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창의 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계산고등학교



▲ 우리나라 최초의 벨로드롬 경기장 인천 계산동 사이클 경기장(1988)(출처 : 부평구청, www.icbp.go.kr)



▲ 국제벨로드롬 경기장

(출처 : 인천시설관리공단, www.insiseol.or.kr)

계산고등학교가 위치한 자리는 원래 사이클경기장의 일부 공간이다. 처음에는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 15(현재 안산초등학교로 사용 중)에 위치하였다가 1999년에 사이클경기장이 철거되고, 2001년에 이곳에 학교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우리나라의 사이클 종목은 1958년 도쿄 아시안게임에서 도로 전종목을 석권할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사이클 강국이다. 도로종목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트랙경기(벨로드롬)는 성적이 좋지 못하였다. 국제규격으로 된 벨로드롬 경기장이 없어 제대로 된 연습과 경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83년 인천 계산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벨로드롬 경기장이 세워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 벨로드롬 경기장이 건설되었다. 그 결과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은 벨로드롬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사이클 강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당시 사이클 경기장은 경기장뿐만 아니라 계산동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당시 북구(오늘날의 부평구와 계양구)의 많은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국제규격이 취소되고 제대로 된 대회를 개최되지 못하면서 1999년에 철거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산고등학교와 계산국민체육센터, 계양도서관이 건립되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 철거로 인하여 계산동 사이클 경기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클부를 창단했던 계산중, 계산여중, 임학중 등 인근 학교의 사이클부는 연습장소를 잃게 되어 사이클부 운영에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관련 체육 단체의 대체 경기장 확보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6년 계양경기장(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자리 내에 국제벨로드롬 경기장이 건립되었다.

두 번 째 만 남

계양산성박물관

산성에 가서 역사를 배운다



▲ 계양산성박물관 전경 (출처 : 계양구청, www.gyeyang.go.kr)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이자 경기만 방어체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산성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5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인천시에서는 계양산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성의 발달사와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0년 5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성 전문박물관인 '계양산성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계양 산성박물관(계양구 계양산로 101)은 연면적 1,998㎡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등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의 상설전시실에서는 '역사의 테'라는 주제 아래 '우리나라 산성의 발달사'와 '계양산성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자료를 2개의 전시실에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 계양산성박물관 전경 (출처 : 계양구청, www.gyeyang.go.kr)

제1 전시실 '산성역사실'은 성곽 문화와 우리나라 산성의 기원, 삼국 시대의 산성, 고려~조선시대 산성의 변천, 산성의 형태 분류와 구성요소, 한반도와 세계의 산성 유산 등 산성의 역사 전반을 다루고 있다. 산성의 발달사를 설명하는 영상자료, 그래픽페널, 모형, 발굴유물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제2 전시실 '계양산성실'은 10차에 걸친

계양산성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계양산성의 유적 현황과 출토 유물을 다루고 있다. 계양산성에 대한 역사기록, 발굴조사 성과, 유적의 분포현황, 삼국시대 목간 등의 발굴 유물과, 계양산성 축조 모형 등 다양한 전시자료를 통해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박물관 2층에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 기념 특별전'을 시작으로 매년 1회 '계양의 역사'와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기획전시를 개최해 선사시대 이래 계양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인과 학생,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강좌와 체험교실, 유적답사,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이다. 관람료는 성인(19세 이상~64세이하) 1,000 원,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은 관람료가 면제된다.

세 번 째 만 남

계양산성

전략적 요충지



▲ 계양산성과 계양산성박물관

(출처 : 계양구청, www.gyeyang.go.kr)

인천의 대표적인 산성 유적으로 문학산성과 계양산성이 있다. 이 중 계양산성은 2020년 5월 22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56호)로 지정된 인천의 고대 문화를 상징하는 산성으로 고려 말까지 활발히 사용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산성 유적이다.

계양산 일대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육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1168~1241)의 문집『계양망해지(桂陽望海志)』에는 '계양군에서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육지에 통할 뿐, 세 면이 모두 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물 가였던 계양산 주변은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 모두 개간되어 육지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변이 물가였을 정도로 지대가 낮았던 부평 지역에 솟은 계양산은 인근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인천의 북부와 한강 하류 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을 축조하여 군사적으로 공격과 방어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 계양산성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 계양산성 내부

(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https://museum.gyeyang.go.kr>)

에 의하면 계양산성이 삼국시대에 쌓여진 석성이며, 1,937척의 길이로 축조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조선시대 들어가면 성이 폐지되고 일제강점기에는 공동묘지로 이용되면서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갔으나 2003년부터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와 1,000여 기의 분묘 이전, 사유지 매입, 성곽 보수 등을 거쳐 현재 상당 부분 복원이 이루어졌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의 성곽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것으로 총 길이가 1,184m이다. 성벽은 능선에서 사면부로 연결되면서 여러 지점의 계곡 부분을 감싸안고 축조(테뫼식)되었고, 성의 형태는 북서-남동의 장타원형에 가깝다.

성곽의 시설로는 성벽 일부만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나 조사를 통해 성문, 치성(雉城), 집수정(集水井), 건물터 등이 발굴되었다. 산성은 수직에 가깝게 양쪽에서 돌을 쌓아 만든 내외협축식 성벽으로 만들어졌고, 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계양산 인근에서 채취되었다. 성곽의 각 시설들은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된 이후 구간별로 개보수되어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문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하여 변형된 듯한 문 입구도 조사되었다.

네 번 째 만 남

하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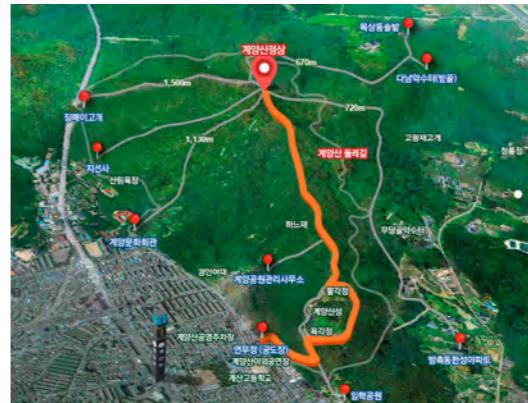
하늘과 맞닿은 곳

하느재는 계양산과 고성산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고려 때 심일리¹의 수주 김씨와 황어향²의 수주 이씨의 두 세력이 경계로 하였던 고개로 남쪽에서 가파른 이 고개를 넘으면 북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삼림이 우거진 산골길이 다남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평의 중심지는 예로부터 계양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북쪽 마을 사람들이 산을 돌아가면 너무 멀어 지름길인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고개가 어찌나 높고 가파른지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다 하여 '하늘재'라 부르던 것이 '하느재'로 변음되었다고 한다. 또 '하누재'로 부르기도 하는데 고개를 넘을 때 땀이 비오듯이 많이 흐른다는 뜻의 '한우현(汗雨峴)'이 변음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소반재'로도 불렸는데, 이는 고갯마루에 올라가면 편편한 잔디밭이 있어 꼭 '소반'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1. 현재 계양국민체육공원. 과거에 부평 김씨가 많이 살았다.

2. 황어면이라 불리었다. 향(鄉)은 소(所), 부곡(部曲)과 함께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고려 때까지 존속하였던 일종의 특수집단인데 조선에 들어오면서 군현체제의 일부로 수용되어 황어현이 되었다가 황어면이 되었다. 황어란 영어를 말하는데 이곳은 비가 오면 한강에서 잉어가 많이 올라와 잉어산지로 유명하여 이름도 황어면이 되었다.

▲ 계양산 등산로 (출처 : 계양구청, www.gyeyang.go.kr)

▲ 인천종주길 전체코스

(출처 : 인천시청, www.incheon.go.kr)

계양산 등산로는 총 9가지 코스가 있는데, 짧게는 50여 분부터 길어도 2시간 남짓이 걸린다. 산행은 주로 연무정(궁도장)에서 시작하여 팔각정을 거쳐 산 정상에 올랐다가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타고 하산하는 경우가 많다. 계양산 등산로는 계양산야외공연장, 징매이고개, 다남 약수터(밤골) 등 총 9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하느재는 계양공원관리사무소, 계양산야외공연장, 임학공원에서 올라가는 코스 중 간에 위치하며 이곳에는 쉼터가 있어 계양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본격적인 계양산 등반 전 각오를 다지는 장소이자 한 숨 돌리는 휴식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인천 종주길은 한남정맥의 일부분인 S자형 녹지축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인천시가 계양산에서 송도 국제도시까지 약 63.9km에 이르는 녹지축을 연결해서 복원한 등산 및 트래킹용 종주길이다. 코스는 계양산에서 시작하여 중구봉, 원적산, 만월산, 거마산, 소래산, 관모산, 상아산, 장수천, 승기천,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등 12개의 산, 2개의 하천, 7개의 공원이 연결되어 있으며 야생동물 서식지나 문화재 지역을 지나게 되어 많은 힐링을 받을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인천 종

▲ 인천 종주길 제1코스(출처 : 계양산성박물관, <https://museum.gyeyang.go.kr>)

주길 제1코스는 전체거리 3.74km로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1분이다. 계산고등학교 앞 계양산로 건너편 지점에서 출발하여 하느재를 지나고 계양산 정상을 지나 경명대로 생태이용 통로를 도착지점으로 하는 구간이다.

다섯 번째 만남

계양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 오른 산

계양산은 해발 395m로 강화도를 제외하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서울 서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부평문화권의 중심이 된다. 계산동, 목상동, 다남동, 공촌동 등에 걸쳐 있으면, 면적은 주변 녹지를 포함하여 약 383만 6천㎡이다,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강화도 등 주변 섬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김포공항과 북한산, 북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남쪽으로는 계양구가 펼쳐진다.

고려 말 이규보의 『망해지』에서 계양산 주변은 삼면이 물이라 했던 것을 보면 옛날의 계양산은 황해 바다와 굴포천 범람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던 봉우리이었다. 한강과 그 주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하여 삼국시대에 계양산성을 축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황해안과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방어를 위해 정매이고개에 중심성을 쌓았고 지금도 계양산성과 중심성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강화도의 마니산이 형(兄)산, 계양산은 아우(弟) 산으로 홍수 때 마니산에서 떠내려와 생겼다는 전설이 있기도 하다. 계양산의 이름은 고려 때에는 수주악, 안남산이라 불렸고 고종 때부터 '계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양의 이름은 여러 유래가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계양'은 계수나무와 회양목에서 왔다는 설이다. 하지만 계양산에 두 나무가 많았었다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고, 계양산의 '양(陽 : 별, 양지, 밝다)과 회양목의 '양(楊, 버들, 벼드나무)'은 서로 다르다.

계양산의 '계'는 산이나 높은 곳을 뜻하는 '부리'가 변해오다 지명이 한자로 정착되는 시기에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다.

최근 환경과 생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양산을 중



▲ 계양산 (출처 : 계양구청, www.gyeyang.go.kr)

심으로 환경교육 및 자연탐구 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계양산에는 80여 종의 나무의 250여 종의 풀을 비롯하여 모두 330여 종의 식물과 산새, 도롱뇽, 개구리, 가재 등이 서식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숲이 줄어들고 있는 인천의 도시 생태 환경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여섯 번째 만남

중심성 백성의 마음을 담다



▲ 중심성지 안내판

정매이고개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던 중심성은 현재 산성의 흔적만이 일부 남아있다. 소선시대에 인천이 외세의 강요로 개항하게 될 무렵 부평부사 박희방은 서구 열강의 침입이 잦아지자 인천만과 강화도를 방비하기 위해 서울로 들오는 길목인 부평을 수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883년 새로운 성을 쌓으라는 명령에 따라 지역관리와 백들을 설득하여 함께 성을 쌓았다. 축조 당시 부족한 자금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거두어 보충하였고 손수 돌을 직접 나르면 성을 완성 시켰다. 이에 외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성을 축조했다는 뜻에서 무리 중(衆), 마음 심(心)을 써서 중심성이라 이름을 붙였다.

일곱 번째 만남

정매이고개 생태터널

생명의 길



▲ 정매이고개

정매이고개

계산동에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경명대로의 고개가 정매이고개다. 한자로는 경명현(景明峴)이라고도 한다. 인천에서 가장 높고 긴 고갯길로 백제 초기부터 공촌동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을 서울로 수송하기 위

한 소금통로 역할을 했으며, 고려 때에는 삼남 지방에서 개성으로 통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계양산을 수주악이라 불렀던 고려시대에서 수주고개(樹州峴)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 봉고의 침입 이후 매를 길들여 꿩, 비둘기 등을 잡는 농고식 사냥방법이 들어와 성행하면서, 도성 안에 매방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매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커지게 되자, 충렬왕 때 이를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재위 당시 다섯 차례나 와서 좋은 매를 징매하였다 하여 징매이고개라 부르게 되었고, 이를 한자로 표시할 때 경명현(景明峴)이라 표시하였다.

이 고개에는 조선 태종의 큰아들 양녕대군에 얹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양녕은 젊은 시절 세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건달들과 어우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징매이고개에도 며칠씩 매 사냥을 나온 적이 있는 양녕은 함길도 절제사가 태종에게 바치는 좋은 매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다른 매로 바꿔 진상하도록 해서 태종의 노여움을 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숲이 우거진 이곳을 조선시대 임꺽정이 은거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도적을 피해 이 고개를 무사히 건너려면 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해서 천명이고개라고도 불리었다.



▲ 징매이 고개 생태터널

징매이고개 생태터널

오늘날의 징매이고개는 차량 통행이 많은 번잡한 곳이 됐지만, 옛날엔 임꺽정이 자신의 근거지를 삼을 만큼 외지고 험한 고개였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양쪽에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과 중구봉이 자리하고 있어 인천생태계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계양산과 중구봉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명대로가 개설되면서 산줄기가 끊어지게 되어 두 지역 사이의 동물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생명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이다. 생태계 단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생태복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태통로가 건설되었다.

생태통로는 도로나 땅을 건설하게 되면서 끊어진 생태공간을 인공적으로 이어주는 구조물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이자 마음 놓고 쉴 수 있

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생명의 길이다. 해당 지역의 지형과 야생동물의 습성에 따라 터널형 또는 육교형으로 만들어 진다.

2009년 완성된 징매이고개 생태통로는 길이 80m, 폭 100m, 높이 12m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로 만들어진 아치 형태의 터널이다. 인천의 S자형 녹지축을 잇고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과 서구 공촌동의 중구봉을 연결한다. 터널 위에는 2~5m 두께의 흙을 덮어 2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물론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안전통로를 조성했다. 또한 이곳에는 인공습지 역할을 하는 저류조 2개와 너구리 등 동물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돌무더기, 조류먹이 공급대가 각각 10개, 동물 유도펜스 등 이곳을 지나는 동물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완비돼 있다. CCTV도 4개나 설치돼 어떤 동물들이 생태통로를 지나다니는지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만남

계양산 장미원

인천의 꽃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곳



▲ 계양산 장미원

장미는 인천의 시화(市花).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오랜 세월 인천 시민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어 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능동과 정열의 꽃밭에서 능동적이고 정열적인 인천 시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시화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계양산 장미원은 봄, 여름, 가을 내내 장미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장미 공원으로 면적 4,667㎡에 장미 67종 11,366주와 금낭화 등 야생화도 13종 12,000여 본에 달하는 꽃을 심어 놓았다. 벽천분수와 물레방아, 원두막과 수로 등 시설물도 다양하게 설치하여 여유 있게 산책하면서 마음껏 꽃밭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장미원에는 장미 외에도 여러 종의 꽃들이 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죽, 여름에는 상사화, 가을에는 구철초, 국화가 대표적이다. 계양산에 자생하는 다양한 나무들과 분수, 정자, 곤충을 소재로 한 조형물들이 있어 가족 또는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장미원에는 이규보를 기리는 시비(詩碑)가 있다. 고려의 문신이자 문장가인 이규보는 계양도호부 부사(1219년 5월~1220년 6월)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문과 글을 남겼다. 이때 남긴 시문들이 『동국여지승람』과 『부평읍지』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고, 재임 기간 당시 저술한 『망해지』와 『초정기』는 과거 계양산과 주변 지역의 풍경을 알려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아 흡 번 째 만 남

계양문화회관

열렬한 사랑,
계양구민의 휴식 공간



❶ 계양문화회관

계양문화회관은 계양 구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공연과 음악 등의 예술활동을 감상할 수 있는 객석 공간(총 795석)이 마련되어 있다. 공연으로는 시립예술단 정기 공연,

기획공연, 연극공연 및 영화상영을 하며, 전시회와 발표회, 문화 강좌를 실시한다. 세미나, 교육, 공연 연습을 위한 공간을 대관하고 있으며 각종 취미생활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상설 운영되고 있다.

답사활동

01

계양산을 아름답게! 여러분이 계양산을 아름답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이유
1	
2	
3	
4	
5	

02

가보고 싶은 계양산! 계양산 답사과정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3곳 이상 말해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장소	이유
1		
2		
3		

답사 후 학습활동

생각해 볼 거리

관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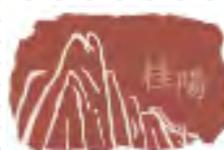
- 중학교_사회1-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고등학교_한국지리-II.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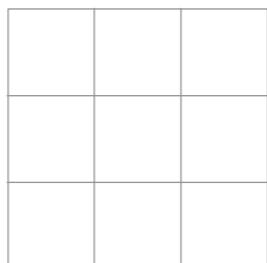
- 산지 지역의 특징을 알아보고 주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 계양산의 인문·자연 환경을 소개할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답사 지역을 빙고 판에 적어 보고 빙고 게임을 해보자
 - 답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계양산 관련 정보를 빙고 판(3x3)에 적는다.
 - 한명 씩 돌아가면서 말하고 빙고 판에서 지운다.
 - 빙고 두 줄을 완성한 개인은 ‘빙고’를 외친다.
- 활동2 : 계양산 알리기
 - 빙고 판에 기록 장소 중 2개의 장소를 선정한다.
 - 선정한 장소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린다.
 - 장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장소를 선정한 까닭을 기록한다.



성곽은 외부 세력의 침입이나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물이다. 우리나라의 성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마천의 「사기」에 기원전 1세기 무렵 고조선의 도성으로 지어진 왕검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후 고



BINGO

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던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성곽의 축조 방법이나 구조가 크게 발달했으며, 이때 쌓은 성곽들은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 시대에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는 바탕이 되었다.

성곽의 종류는 축조 목적과 기능에 따라 왕궁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도성, 지방의 중심지에 쌓은 읍성, 유사시 방어와 도피를 위해 쌓은 산성, 국경과 요새지에 쌓은 장성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축성 재료에 따라 석성, 토성, 목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축조 위치에 따라 산성, 평산성, 장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군사적 목적을 가진 산성이 대다수이다. 평상시에 산성은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전시에는 피난처로 사용됐다. 산성은 산악지형의 지리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다. 한국의 산성은 산등성이를 따라 축성되어 불규칙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멀리서 보면, 전체 구조물이 자연환경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성곽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렵게 축성돼 있다. 이러한 인상적인 성벽이 산과 절벽을 따라 축성됐고, 우월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의 산과 하천, 2005, 인천광역시
- 인천의 지명(상), 2015, 인천광역시
- 인천역사 6호-인천지명의 재발견, 2009, 인천시광역시
- 인천의 둘레길과 종주길, 이야기를 담다, 2019, 인천광역시

인터넷 자료

-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동구청 www.icdonggu.go.kr/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https://idph.kr/>
- 한국관광공사 <http://www.koreatriptips.com>
- 계양구청 www.gyeyang.go.kr
- 인천뉴스 www.incheonnews.com
- 계양산성박물관 <https://museum.gyeyang.go.kr/>
- 인천시설관리공단 www.insiseol.or.kr
-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 부평구청, www.icbp.go.kr

3-3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민족의 영산

지리 | 역사

체험코스

① 마니산 입구 → ② 한겨레얼체험공원 → ③ 단군등산로 →
④ 능선 → ⑤ 참성단 → ⑥ 계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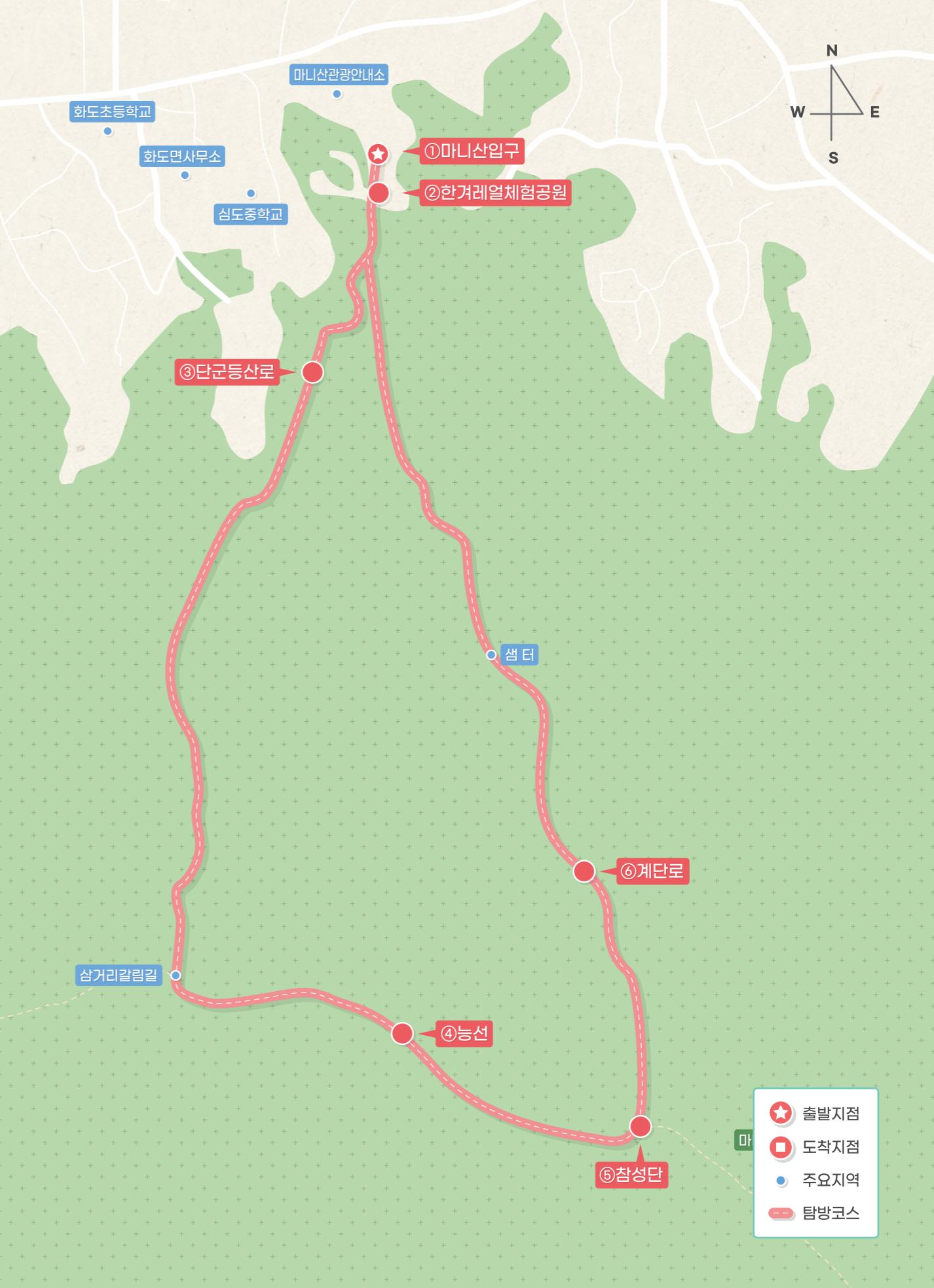
총거리 5.8km
도보시간 3시간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
한국지리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의 모습

키워드

#마니산 #참성단 #한겨레얼체험공원 #단군
#전국체전 성화



3-3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민족의 영산



암릉을 타고 서해를 조망하는 강화마니산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었고, 지정문화재를 포함해 500건이 넘는 유적들이 분포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의미 있는 곳이다. 마니산(摩尼山)은 강화 제1봉이자 단군 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이다. 마니산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산 자체로서도 적당한 높이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암릉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정상과 능선에서 보는 시원한 조망이 일품이어서 일반 관광객과 산객들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마니산과 참성단은 한반도의 기원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강화도 남서단에 위치하고 한라산과 백두산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마니산 정상에는 단군성조께서 하늘에 제천의식을 봉행하신 참성단이 있으며, ‘88 세계 장애인 올림픽’을 비롯하여 매년 전국체전 때마다 성화를 채화·봉송하고 있는 민족의 영산이다. 등산로를 따라 돌계단을 올라가노라면 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으며, 동쪽 기슭으로 신라 선덕여왕 때 지은 정수사 법당 살문짝 꽃무늬의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다. 최근 조성된 ‘한겨레일 체험공원’에서는 단군 이야기길을 통해 단군의 역사적·시대적 의미를 체험·학습할 수 있다. 또한 ‘마니산 치유의 숲’은 소나무 산림유전자 보호림으로 다양한 피톤치드가 뿐만 아니라, 곧게 뻗은 소나무와 삼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다.

첫 번째 만남

마니산

생기가 넘치는
민족의 영산(靈山)



▲ 마니산 항공 사진



▲ 마니산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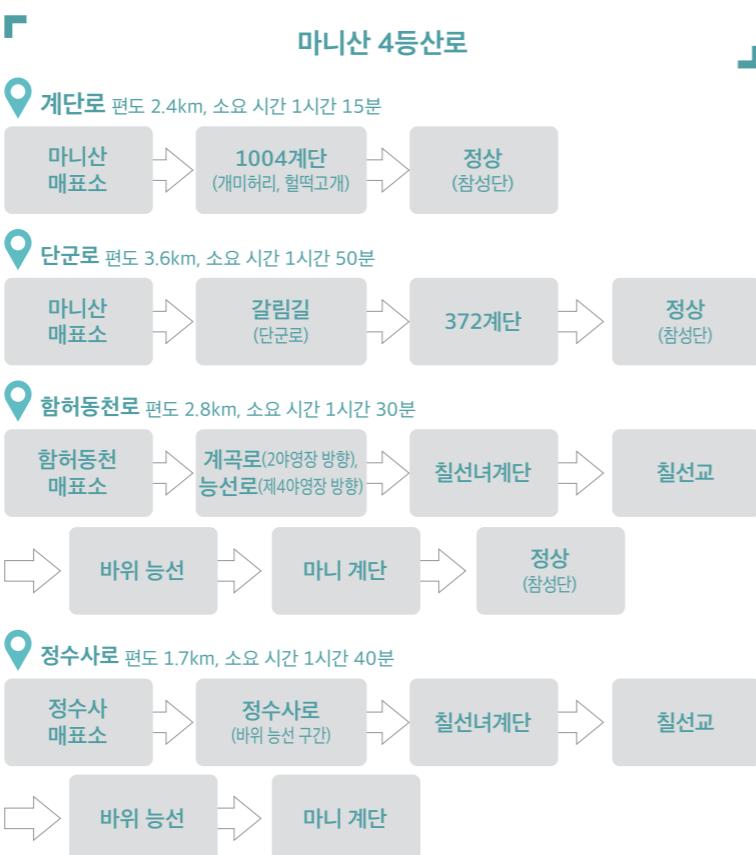
강화도 마니산(摩尼山 472m)은 개국(開國) 신화의 주인공인 단군왕검이 정상에 6m 높이의 참성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를 올렸다는 민족의 영산(靈山) 가운데 한 곳이다. 마니산은 원래 마리산으로 불렸으며 ‘마리’는 머리의 옛말로 강화도에서 제일 높은 산의 머리를 뜻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의 머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강화 섬 위의 하늘을 혼자 떠받들고 있는 모양새가 의젓하다 해서 으뜸가는 머리(옛말 마리·

摩利)산으로 강화 주민들은 그런 이유로 지금도 이 산을 마리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상에 단군이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6m 높이의 참성단이 있어서, 해마다 개천절에 큰 제사를 하늘에 올리고 전국체육대회 성화를 채화하고 있다. 1999년에 한국정신과학학회가 국내 10여 군데의 지기(地氣)를 측정한 결과 가장 기(氣)가 센 전국 제1의 생기처(生氣處)로 이름이나서 풍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니산(摩尼山 472m) 정상에 서면 강화도 남쪽의 넓은 바다와 갯벌이 펼쳐져 있고, 강화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마니산이 있는 고가도는 강화도 본섬과 떨어져 있던 섬이었는데, 조선 후기 간척 때문에 육지로 연결되었다. 과거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피신하였던 고려 왕실은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농경지 확장의 필요성 때문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농토로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왕의 피난처, ‘보장처’로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간척을 하게 되었다. 조선 숙종 때(1706년)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던 마니산이 ‘고가도(古加島)’란 섬에 속해 있었는데 강화도 본섬과 연결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

게 된 것이다.

마니산은 다소 경사가 가파르지만,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고 난이도 별로 나뉘어 있어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산행을 즐기기 좋다.



두 번 째 만 남

한겨레얼체험공원

생기(生氣)의 숲,
다시 열리는 하늘을 향한
한겨레의 얼

마니산 입구에는 단군의 역사적·시대별 의미를 담은 '한겨레얼체험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의 실물을 재현한 '개천마당', 신단수가 있는 '천부인광장', '단군놀이터', '치유의 숲 길', '한겨레얼체험관' 등이 있다. 천부인광장에는 환웅이 환인으로부터 받은 신의 물건인 거울, 칼, 종이 있으며, 단군신화의 핵심 중 하나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마니산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개천마당은 참성단을 재현해 놓고 성화 채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참성단의 모습을 가까이 살펴볼 수 있다. 단군의 역사적·시대별 의미를 담은 단군이야기길을 통해 학생들이나 가족 단



▲ 참성단을 재현한 개천마당(위)



▲ 참성단을 재현한 개천마당(위) / 천부인 광장(아래)

위 관광객들이 역사를 체험·학습할 수 있다.

마니산 정상에 올라야 볼 수 있었던 참성단을 마니산 입구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개천마당에 똑같은 실물 모형을 재현해 놓은 참성단과 성화 체험 시설이 있으며, 맞은편 천부인광장에서는 단군 신화 속 신성한 나무인 신단수 조형물과 청동 거울 등 고조선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겨레 얼 체험관은 강화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단군, 고조선, 마니산 등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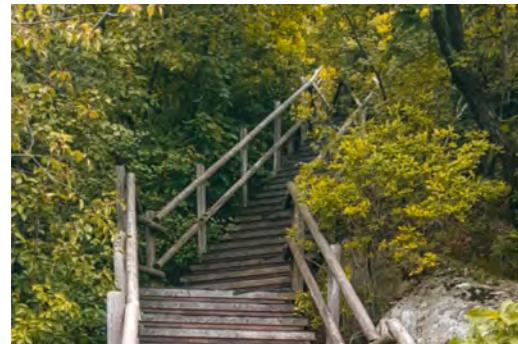
시·체험관으로 단군 신화의 의미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온 역사를 배울 수 있다. 주요 전시내용은 개천대제 및 단군신화, 참성단·삼랑성·마니산의 단군 유적과 강화도의 역사 및 전설을 알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또한 매년 전국체전의 성화 채화지로서 성화 채화 관련 물품, 단군 관련 유물, 단군대제, 칠선녀 성무 등의 전시 및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개천마당 뒤로는 '치유의 숲길'이 연결되어 있다. 소나무 산림 유전자 보호림으로 다양한 피톤치드 방출이 검증된 숲이다. '마니산 치유의 숲'은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로 연속 선정되었다. 웰니스 관광지는 육체, 심리, 정신적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과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여행지를 말한다. '금체험 프로그램'은 1시간 30분 코스로 금 해설사와 함께 마니산 치유의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 느끼기, 기체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단군 이야기 길을 걸으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

세 번 째 만 남

단군등산로

마니산 정상과 참성단으로
오르는 길



▲ 단군등산로(위) / 372계단(아래)

마니산의 정문 격인 상방리 매표소에서 20여 분을 걷다 보면 계단로와 단군로 갈림길이 나온다. 계단로는 참성단까지 2.1km로 가깝지만 계속 이어진 계단을 오르는 등산로이고, 단군로는 3.1km로 대체로 경사가

급하지 않고 완만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어 등산 초보들이 선호하는 등산로다. 오르막을 조금 걷다 보면 평평한 평지가 나와 금길을 걷는 듯 숨고르기를 하며 걸을 수 있으며 중간중간에 계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단군등산로로 올라가 계단로로 내려오는 등산로를 선택하면 서로 다른 성격의 산행을 경험할 수 있으며 총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단군등산로 입구에서 오르다 보면 1차 쉼터를 지나 웅녀계단을 만날 수 있다. 인간 세계를 다스리러 내려온 환웅과 마늘을 먹고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 건국이야기를 기억해 볼 수 있다. 2차 쉼터를 지나 능선길에 오르면 화강암 암릉과 가슴까지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전망이 펼쳐진다.

정상에 오르기 직전 깔딱고개라고 부르는 372계단이 나온다. 372개의 계단을 오르면 정상에 있는 참성단이 가까이 보이고 올망졸망 이어지는 암릉을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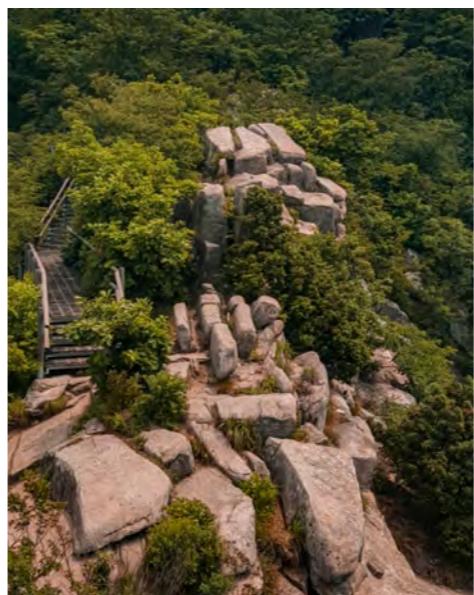
게 된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강화도의 푸른 바다와 넓은 평야와 평화로운 마을을 볼 수 있다.

네 번 째 만 남

능선

근육질 산세의 기운이
넘치는 화강암 암릉

마니산을 하늘에서 보면 근육질의 바위가 서해를 배경으로 용이 승천하듯 꾸불꾸불 이어져 있다. 마니산 정상에 있는 헬리포트에서 정수사, 함허동천 방향으로 넓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능선이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다. 마니산 등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암릉은 기(氣)를 받기 위해 맨발로 걷는 등산객도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도 많고 굽은 밖줄을 잡고 오르내리는 바위도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등산화를 꼭 신어야 한다. 화강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단일 암석으로 전체 국토

▲ 암릉 등산로(위)
정상에서 함허동천 방향의 암릉 구간(아래)

다섯 번 째 만 남

참성단(塹星壇)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

의 30%를 구성하고 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금강산, 설악산, 북한산도 산 정상부에 웅장한 봉우리와 아름다운 능선을 이루고 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서서히 냉각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부드러운 곡선미를 보이다가도 칼로 베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의 바위로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마니산 암릉은 산의 능선 위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곳으로 둑글넓적한 화강암으로 돌탑을 쌓은 것 같다. 또한 거대한 화강암의 판상절리도 볼 수 있으며 산정 부근은 경사가 심하고 화강암의 기암절벽이 솟아있어 마치 돌을 일부러 조각하여 쌓아 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암석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마니산 정상에 있는 참성단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제단이라고 전해진다. 경주의 첨성대처럼 기초는 하늘을 상징해 둑글게 쌓고, 단은 땅을 본받아 네모로 쌓아 하원 상방형을 이룬다. 이는 '하늘은 둑글고 땅은 네모이다.'라는 선조들의 천지관(天地觀) 사상이 반영돼 있다. 산신으로 변한 단군이 마니산에서 지내며 민족 만대의 영화와 발전을 위해 봄·가을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릴 참성단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단군이 참성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고려·조선시대에도 국가 제사를 행하였다. 이런 제천의식은 1955년 전국체전의 성화 채화를 계기로 부활되었으며, 개천대제(開天大祭)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거행하고 있다. 우리 민족



▲ 제천행사(위) / 성무(아래)

의 뿌리를 단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는 참성단에서 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천절에 남북평화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제천 행사가 거행되며, 전국체육대회 성화가 7선녀에 의해 채화(採火)되고 있다. 칠선녀는 단군왕검이 마니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선녀 7명이 그릇을 받들고 있었다는 기록에서 유래하여 칠선녀가 전국체전 때마다 성무 공연과 성화 채화를 해왔다. 개천절 행사를 진행할 때 강화여고 신입생 7명으로 구성된 칠선녀 학생들이 전국체전 성화 채화를 할 때나, 참성단에서 성무를 주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참성단은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어,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천대제, 체전 성화 채화, 연말연시 해맞이 행사 할 때만 개방하고 있다.

참성단에는 소사나무(수고 4.8m, 밑동 둘레 2.74m)가 멋스럽게 우뚝 솟아있다. 150년 정도의 수령으로 규모와 아름다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사나무를 대표하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502호로 지정되었다. 소금기 잔뜩 묻은 해풍에도 불구하고 강한 생명력을 갖고 성장하는 나무로 전형적인 관목 모습에 나무갓이 단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참성단의 돌단 위에 단독으로 서 있어서 한층 돋보인다. 참성단에 서면 강화도의 사방팔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와 남으로는 서해가 훤히 벌아래 펼쳐지고 바둑판같은 강화의 들판이 시원스럽게 보이고 북한의 개풍군 땅도 가까이 보인다. 바로 옆에는 마니산 정상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고, 동그랗고 평평한 헬리포트(헬리콥터 전용 비행장)가 있어 산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동쪽은 정수사나 함허동천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암릉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마니산행의 백미는 이 구간으로 암릉을 산행하며 계속 이어지는 서해의 조망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화롭게 다져진 균육질의 너럭바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산행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다만 초보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다.

여섯 번째 만남

계단로

천사의 계단



▲ 계단로



▲ 계단로에서 바라본 간척 평야(선두평과 가릉평)

'계단로'는 2.4km로 삼국시대부터 임금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의식인 천제(天祭)를 지내려 오르내리던 길이다. 마니산 등산로 중 가장 짧은 구간으로 참성단까지 단시간에 오를 수 있지만, 계단이 많고 가파르다. 매표소에서 20분 정도 포장된 예쁜 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참성단까지 1.1km가 남았다는 이정표가 보인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돌계단의 연속이지만, 중간에 암반으로 이어지거나 널찍한 화강암으로 만든 계단을 만날 수 있다. 일부 등산로에는 그늘이 있지만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강화도의 탁트인 전망을 보면서 참성단에 오를 수 있다.

'기(氣) 받는 160계단'을 지나 다시 시작되는 1,004계단은 마니산의 특징인 경사가 가파른 화강암 지역의 등산을 돋기 위한 시설물이다.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돌계단(개미허리, 혈떡고개)을 오르면 중간마다 암릉 구간이 있어 지루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단군로로 올라가 계단로로 내려오는 길을 선호하고 있는데 하산할 때 강화의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다. 북쪽의 진강산과 마니산 사이의 넓은 평야는 간척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 후기 숙종 32년(1706년)에 강화 최대 길이의 제방인 선두포언과 가릉포언으로 갯골 수로를 가로막으면서 마니산이 있는 고가도(古加島)가 강화 본섬과 연결되었다. 강화도의 평야는 고려시대부터 800년간 바다를 메워 간척한 땅의 역사를 품고 있다. 몽골군의 침략 등

외침에 대비하여 식량 확보를 위한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차례 전란(戰亂)을 겪으면서 강화도가 임금이나 조정이 피신할 수 있는 보장지처(保藏之處·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로 주목받게 되었다.

답사활동

- 01** 민족의 영산 마니산이 품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자.

마니산	질문에 대해 상호 간 설명해 보기
마니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니산 정상에 올라 주변의 섬과 산의 이름을 말해 볼까요? 마니산이 한국 100대 명산으로 선정(산림청)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한겨레얼체험공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천마당에서 실물 재현한 참성단을 스케치해 볼까요? 단군신화를 친구들 앞에서 3분 발표해 볼까요? 천부인(天符印)이 무엇인지 말해 볼까요? 한겨레얼체험관에서 단군 할아버지에게 고조선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질문해볼까요?
단군등산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웅녀계단을 오르기 전 단군 탄생에 관해 이야기해볼까요? 등산길에 이름 모를 꽃을 만나면 이름을 검색해 알아볼까요?
능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화강암으로 된 산들을 찾아 발표해 볼까요? 돌산(마니산)과 흙산(지리산)의 특징을 비교해 볼까요?
참성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천절에 참성단에서 제천의식을 행하는 이유를 말해 볼까요? 전국체전 성화를 항상 참성단에서 하는 이유를 말해 볼까요?
계단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04계단을 개미허리, 헐떡고개라고 하는 이유를 말해 볼까요? 인천 매립의 역사가 강화도 간척으로부터 시작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 02** 단군등산로와 계단로를 산행한 후 각 등산로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발표해 보자.

답사 후 학습활동

생각해 볼 거리

관련 단원

- 고등학교 한국사 1단원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
- 고등학교 한국지리 2단원 한반도의 산지 지형

활동목표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교과서)과 이번 답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한국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과 이번 답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하기

교과서의 내용

답사 활동내용

- 활동2 :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한반도의 산지 지형)과 이번 답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하기

교과서의 내용

답사 활동내용

강화하면 떠오르는 곳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 472.1m의 마니산이다.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산 곳곳에서 흐르는 기운이 강해 대한민국 제1의 생기처로 통하는 국민관광지이다. 정상에 오르면 상고시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사적 제136호 참성단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장봉도 등의 주변 섬을 아름다운 서해와 함께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어리거나 건강이 좋지 못할 때 정상에 오르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이제는 굳이 힘들게 산에 오르지 않아도 마니산 입구에 조성된 '한겨레 얼 체험공원' 단군이야기길을 따라 단군의 역사적·시대적 의미를 알 수 있다. 실물을 재현한 참성단을 접할 수 있고 천부인광장을 둘러볼 수 있다. 한겨레얼

체험관에서는 단군이야기와 강화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으며, 치유의 숲을 따라 걸으면서 피톤치드 산림욕을 즐길 수도 있다. 산행할 때도 개천마당의 참성단 조형물, 천부인광장, 한겨레얼체험관 등을 둘러본 후 정상에 오른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광역시, 2020, 선생님이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인천역사, (주)디자인 이룸
- 최영준, 1999,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국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
- 인천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 2015

인터넷 자료

- 강화군시설관리공단 <https://www.ghss.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 인천 in <http://www.incheonin.com/>
-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3-4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 인천대공원 생태

체험코스

총거리 5.6km

교육과정

[초등학교]

- 1학년 1학기 봄(통합) 2.도란도란 봄 등산
 - 1학년 2학기 가을(통합) 2.현규의 추석
 - 4학년 1학기 과학 2.식물의 한 살이
 - 4학년 2학기 과학 1.식물의 생활

[중학교]

- ## 과학 2 식물과 에너지

역사1-Ⅱ.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고등학교]

- [1] 통합사회-Ⅱ. 자연환경과 인간

키워드



3-4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 인천대공원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자연놀이터

1996년 3월 개원하여 연간 500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원인 인천대공원은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총 4개의 출입문 중 인천대공원역과 연결된 남문으로 입장하면 만화 '뽀로로'에도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막 여우를 포함해 42종 180두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어린이 동물원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 동물원을 지나면 핑크빛 터널의 벚나무길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조금 더 오르면 다양한 들꽃이 자신의 빛깔을 뽐내는 들꽃정원이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감옥생활을 하며 불굴의 민족 항도자로 단련된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는 백범광장이 있다. 백범광장 옆에는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하는 숲체험원이 있고 맞은편에는 천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반디논과 다양한 습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습지원이 있다. 인천대공원 정문 쪽으로 들어오면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이용해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있고 그 옆으로는 인천 최대의 수목원과 장미원, 온실이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 중심에는 거대한 호수정원이 시원한 분수 물줄기를 뿜으며 시민들을 맞이한다.

종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고 함께 놀이하는 인천대공원으로 떠나보자.

첫 번째 만남

인천대공원역

생태탐방의 출입문



▲ 인천대공원역 역사 입구(위) / 인천지하철 2호선(아래)

두 번째 만남

어린이동물원

동물과 교감하는 곳



▲ 인천대공원 어린이 동물원 입구

인천대공원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이기도 한 어린이 동물원은 인천대공원 남문 방향으로 입장하면 가장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9,500m²의 면적에 사육사, 방사장, 조리실로 이루어져 있다.



▲ 어린이 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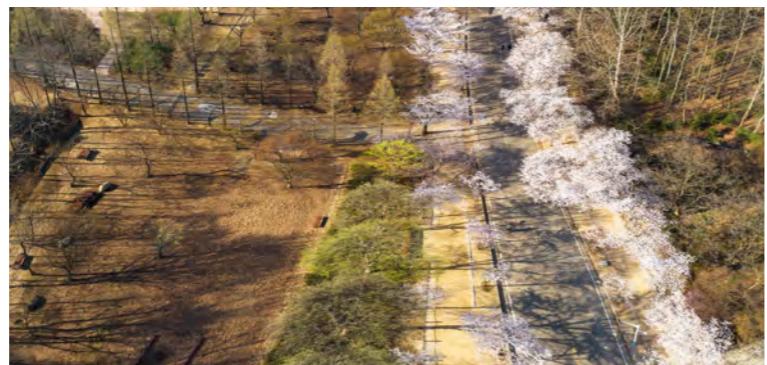
사육사는 14동 402.42m²로 원숭이사, 조류사, 앵무새사 등이 있고 방사장은 6동 809m²로 사슴사, 독수리사, 너구리사 등이 있다. 보유동물은 포유류 19종 106두, 조류 19종 69두, 파충류 4종 5두이며 이중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 마모셋원숭이 등이 있다. 운영 시간은 10:00~17:00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휴원한다.

인천대공원 어린이 동물원은 가까이에서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동물 체험공간이다.

세 번 째 만 남

벚나무길

핑크빛 터널



▲ 벚나무길



▲ 벚나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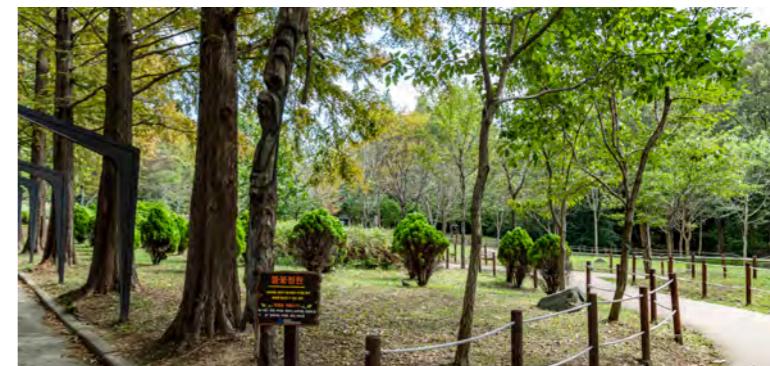
인천대공원 남문에서 호수정원 방향으로 걷다 보면 양쪽으로 늘어서 마치 터널을 이룬 듯한 벚나무길을 만나게 된다. 인천대공원의 벚꽃은 금이 울창한 관모산의 영향으로 도심보다 기온이 3도 정도 낮아 개화 시기가 다른 지역보다 늦은 편이다.

수령 40년 이상의 대형 왕벚나무 800여 그루가 응장한 자태를 뽐내며 1.2km에 걸쳐 늘어서 핑크빛 장관을 이뤄 봄이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춘객이 몰려드는 유명한 벚꽃 명소가 되었다.

네 번 째 만 남

들꽃정원

제 빛깔로 아름다운 곳



▲ 들꽃정원 전경



▲ 들꽃정원 입구 착시그림

벚나무길을 따라 호수정원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산림치유센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인다. 산림치유코스는 등산코스로 연결되는데 그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초입 우측으로 들꽃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들꽃정원은 야생화를 보면서 즐거움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조성된 정원으로 봄과 여름에는 볶꽃, 부처꽃, 원추리, 노루오줌, 둥글레 등이 개화하고 가을에는 벌개미취, 구절초, 갈대, 억새 등이 개화하여 다양한 들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초입 바닥에는 착시를 일으키는 트릭아트 가 그려져 있어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다섯 번 째 만 남

백범광장

불굴의 민족 항도자



▲ 백범광장

인천대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인 꽈냑원 여사의 동상을 모신 백범광장이 있다. 백범광장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이다.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으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일찍이 열아홉에 동학군 선봉장으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고, 구한말에는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했다. 식민지 시기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였고 해방 후 신타통치에 반대 움직임을 하며 민족분단을 막으려 애썼으나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다.

김구 선생은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 감옥에 2년여



▲ 백범 광장 입구

여섯 번째 만남

숲 체험원

도심 속 숲 체험



▲ 숲체험원



▲ 숲체험원 입구

(1896.7.~1898.3.)간 수감되었고, 이후 1911년 안악사건으로 인천 감옥에 투옥되어 인천 축항공사 강제노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겪은 수감생활에서 선생은 민중의 고통과 함께하는 불굴의 민족 항도자로 단련되었다.

이에 김구 선생의 뜻 깊은 만남을 기념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민의 뜻을 모아 김구 선생의 동상을 세웠다.

(1896.7.~1898.3.)간 수감되었고, 이후 1911년 안악사건으로 인천 감옥에 투옥되어 인천 축항공사 강제노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겶은 수감생활에서 선생은 민중의 고통과 함께하는 불굴의 민족 항도자로 단련되었다.

이에 김구 선생의 뜻 깊은 만남을 기념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민의 뜻을 모아 김구 선생의 동상을 세웠다.

일곱 번째 만남

역사원, 반디논, 습지원
생물 다양성 연구소

▲ 반디논 입구(위)(출처: 인천광역시 블로그) / 습지원(아래)

여덟 번째 만남

목재문화체험장
뚝딱뚝딱 나무놀이터

▲ 목재문화체험장 느티나무 공방(출처: 인천대공원 제공)

습지원은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며 어리연꽃, 수련 등 아름다운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습지원은 습지원 식물 전시원과 도란도란 유아숲체험원, 꼬불꼬불 유아숲체험원을 주요시설로 하고 있으며 반디논과 역사원을 갖추고 있다.

반디논 2,500㎡를 포함하여 174,497㎡의 면적으로 연꽃 등 99종 267,956본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다.

반디논과 꼬불꼬불 유아숲체험원은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이 자라고 있어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디논은 지난 2012년부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농약,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매년 시민들이 직접 벌써 소독부터 손 모내기, 벼베기, 탈곡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전통 논농사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수확한 반디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된다.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은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는 교육 체험 공간이다. 나무가 주는 따스함과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함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목재의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목공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은행나무 공방, 느티나무 공방, 구름나무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나무 공방은 초등학생부터 중고생, 성인까지 수공구와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소품 및 DIY 가구를 직접 제작해 보는 공간으로 돼지저금통, 나무 스피커, 다목적 수납함, 독



▲ 목재문화체험장 입구(출처: 인천대공원 제공)

서대, 보석함 등을 만들 수 있다.

느티나무 공방은 4~7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무를 활용한 간단한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공간이다. 문패, 피노키오, 배, 비행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구름나무 놀이터는 유아목재 놀이터로서 36개월부터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편백나무 볼 풀장, 역할놀이, 주방놀이, 공구놀이, 블록놀이, 기차놀이 등 놀이를 통해 나무를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며 ‘인천의 공원 (<https://www.incheon.go.kr/park/index>)’ 홈페이지 체험프로그램에서 선착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만남

인천수목원

인천 최대 수목원



▲ 인천수목원



▲ 인천수목원 해안사구원

인천수목원은 목재문화체험관 옆 솔문을 따라 들어갈 수 있으며 정문에서 가깝다. 인천수목원은 인천광역시 도시 해안과 육상의 주요 식물종을 수집·전시·보전·연구하고 도시녹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휴식과 자연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유관람인 공립 수목원이다. 인천수목원은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온실, 장미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목 전시원은 도시 녹화식물원지구, 희귀자생 비교식물원 지구, 테마식물원 지구인 총 3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허브 가든원, 계류 연못원, 해안 사구원, 나무백가지원, 사계림 등 1,363종 228,000본이 전시되어 있다. 산책로 안내와 길이 편안하게 조성되어 있어 나무와

꽃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열 번째 만남

장미정원

꽃의 여왕 장미정원

인천수목원 출구와 장미원이 연결되어 있어 인천수목원을 거닐다 보면 장미정원으로 이어진다. 장미원은 인천광역시의 상징인 시화 장미를 주제로 예쁜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6,059㎡ 면적에 펠로우십 등 74 종 12,000본의 장미가 전시되어 있다. 장미는 품종에 따라 5월 중순 경부터 9월 경까지 개화한다.



▲ 장미원 분수대



▲ 장미원 장미터널

열 한 번째 만남

온실

식물다양성 공간

인천수목원 온실은 장미원 왼쪽에 있다. 이곳은 열대·아열대식물과 다육식물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으로 식물유전자원의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간이다.

1,192㎡ 면적으로 유리온실 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대·아열대식물 및 다육식물 332종 6,550본을 전시하고 있다.



▲ 온실 입구



▲ 온실

열두 번째 만남

호수정원

마음이 트이는 공간



▲ 호수정원



▲ 호수정원 데크

인천대공원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정원은 계단 폭포의 시원한 물소리와 숲이 어우러진 호수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정원이다.

호수정원은 50,000톤의 담수량과 평균 수질 3급으로 붕어, 잉어, 물오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45,081m² 면적의 1~2m의 수심으로 인공섬과 1개소의 캐스케이드, 3개소의 데크, 2개소의 잔디스탠드, 분수대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호수정원에 설치된 다이아몬드반지 모양의 조형물은 연인들의 필수 사진 촬영 장소가 되었다.

답사활동

01 답사한 장소에서 관찰한 식물 3종을 골라 작성해 봅시다.

	식물1	식물2	식물3
그림			
이름			
특징			

02 답사한 장소에서 관찰한 동물 3종을 골라 작성해 봅시다.

	동물1	동물2	동물3
그림			
이름			
특징			

답사 후 학습활동

관련 단원

-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봄 : 2. 도란도란 봄 동산
-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가을 : 2. 현규의 추석
-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 : 2. 식물의 한 살이
-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과학 : 1. 식물의 생활
- 중학교 과학 2 식물과 에너지
- 중학교 역사1-II.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4. 크리스
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 고등학교 통합사회-II. 자연환경과 인간-2.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활동목표

- 계절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계절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필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답사한 장소에서 관찰한 동식물 소개하기
 - 답사한 장소에서 관찰한 동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자료 만들기
 - 계절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개하기
- 활동2 :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기
 - 과거와 현재의 동식물 수 비교자료 살펴보기
 - 동식물이 사라지는 원인 파악하기
 -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필 수 있는 방법 토의하기
 -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만들기

생각해 볼 거리

1996년 3월 개원한 인천광역시 최대의 녹지공간인 인천대공원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도심 속에서 자라 동식물을 실물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 자료로만 접했던 학생들에게 인천 대공원 체험학습을 통해 실물을 마음껏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만져보며 하는 오감을 통한 자연 관찰 학습은 학생들에게 더욱 생생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인천대공원 내 동식물은 명패가 비교적 잘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학습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점점 파괴되고 줄어 들어가는 도심 속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한 발짝! 두 발짝! 우리 마을 속으로!, 202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2019,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두근두근 인천산책, 2014, 이하람

인터넷 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https://www.namdong.go.kr/>
- 인천의 공원 <https://www.incheon.go.kr/park/index>
-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 100선 <https://itour.incheon.go.kr/main/main.do>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 자원목록 <http://www.ice.go.kr/main/do?o=town>

PART

04

인천의 공간재생 노력

- 4-1 과거와 현재의 공존으로 활기를 꿈꾸는 거리
- 4-2 공간 재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강화도



4-1

과거와 현재의 공존으로 활기를 꿈꾸는 거리

역사 | 산업 | 예술 | 문학

체험코스

- ① 흑백사진관 우리 → ② 한국근대문학관 → ③ 인천아트 플랫폼 → ④ 베텀라인, 인천여관×루비살롱 → ⑤ 브라운핸즈 → ⑥ 싸리재 → ⑦ 개항로 본부 → ⑧ 잇다 스페이스 → ⑨ 인천문화양조장 → ⑩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총거리 2.4km
도보시간 4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 3학년 미술 6. 즐기며 배우는 미술관 / 9. 생활 속 미술
6학년 미술 10. 공간을 생각하는 건축
3학년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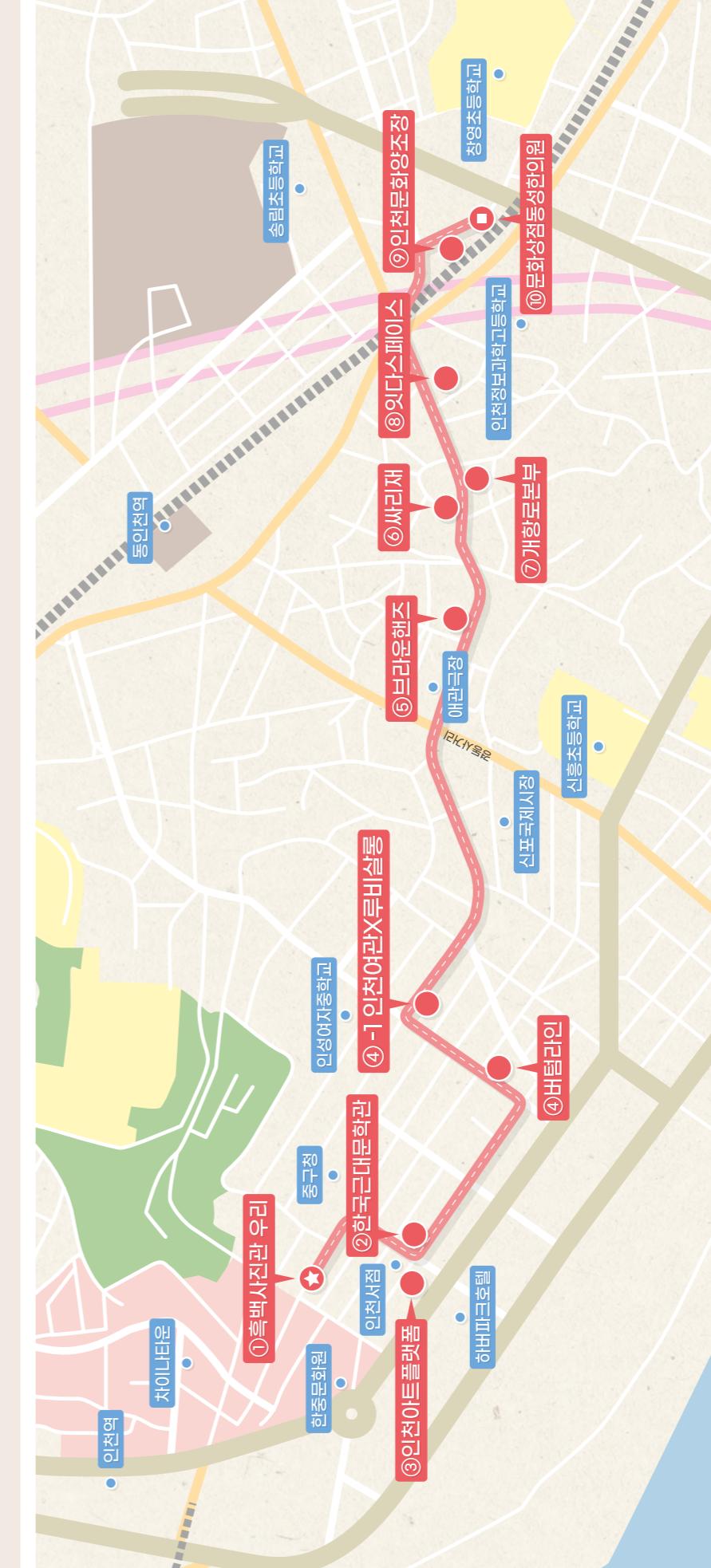
- 기술가정 1. 건설 기술과 문제 해결
미술2. 체험하는 즐거움
사회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역사1 IV.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
역사2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고등학교]

- 한국사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한국지리 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키워드

#도시재생 #배다리 #동인천 #원도심 #개항장 #근대 건축물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4-1

과거와 현재의 공존으로 활기를 끔꾸는 거리



도시 재생으로 재탄생한 개항로, 배다리 그리고 개항장 거리

인천 중구의 동인천 개항로 일대는 개항 이후 근대 건축물이 최초로 생겨나기 시작한, 즉 근대화가 시작된 곳이다. 이곳은 1960~1970년대까지 인천의 중심이었고 이후 혼수가구 골목으로 성행하였으나 점차 쇠락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다. 하지만 2018년에 시작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뉴트로 여행'의 성지가 되고 있다.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동구의 배다리 헌책방 거리 일대에서도 여러 복합문화공간과 공유공간이 들어섰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펼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개항장 문화지구 역시 개항장이라는 인천의 지역성을 살려 개항기 당시의 경관을 복원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곳이다. 1883년 개항 이후 항구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근대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오래된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역사적 가치의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듯 도시의 발전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해 재개발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과 주민 모두에게 효율적인 도시 발전의 대안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자.

첫 번째 만남

흑백사진관 우리

인천의 근현대사 현장에서 남기는 추억

인천 중구청 일대는 과거 일본 조계지로 조성된 지역이라 일본식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중구청 바로 앞의 개항장 거리는 옛 일본 조계지의 모습으로 복원해 조성한 개항장 문화지구로, 개항기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줄지어 선 일본식 건물 중 하나인 ‘흑백사진관 우리’는 일본 조계지 당시의 건물을 복원하여 2017년에 문을 열었는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흑백사진관이라고 한다.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자 빛바랜 사진으로만 여기고 컬러사진에 밀렸던 흑백사진이 최근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고 있음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 사진관의 규모는 작지만 하루 평균 30~40팀, 많게는 70팀까지 몰린다고 한다. 과거의 공간을 재현한 곳에서 흑백사진을 통해 추억을 쌓고 인천의 근현대사도 함께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만남

한국근대문학관

한곳에서 만나는 한국근대문학의 역사



▲ 한국근대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광역시와 함께 만든 전국 유일의 공공 종합 문학관이다. 1883년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 문학가 인천을 통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당시 개항장 주변에는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한국근대문학관은 당시의 중요 문학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한국의 근대 문학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상설전시장에서는 근대 계몽기(1984~1910년)에서 해방기(1945~1948년)까지의 한국 근대 문학의 형성 과정과 역사적 흐름을 전시하고 있다. 2층에서는 ‘근대 문학에 나타난 인천’을 통해 문학작품 속 인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세 번 째 만 남

인천아트플랫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 인천아트플랫폼

도시는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며 획일적 도시개발로 인해 지역성 등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쇠퇴한 도시의 공간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제작 공간으로 활용하여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일대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당시 인천항의 하역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 건물 등 일본우선주식회사(1888), 삼우인쇄소(1902), 금마차다방(1943), 대한통운창고(1948) 등을 리모델링 하여 2009년 9월에 개관한 문화예술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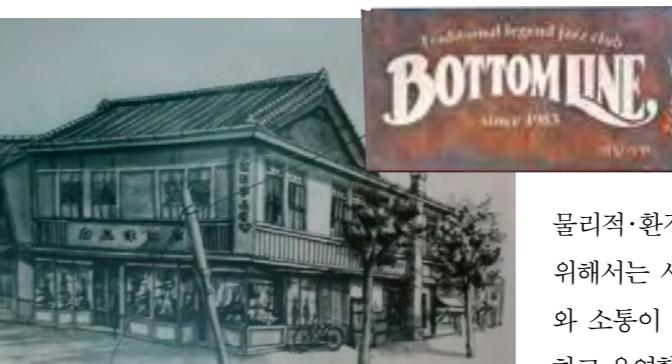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은 전시 및 공연,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이 되고, 시민에게는 예술을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의 향유 공간이 된다.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곳은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써 근대 건축물의 복원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 활성화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거점이 된다.

네 번 째 만 남

버텀라인
인천여관×루비살롱
과거와 현재의 공존

▲ 버텀라인 내부

그동안 우리는 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곳곳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재생’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

▲ 1890년대 후루다양행(잡화점)이었던 베텀라인(위)
베텀라인 현재 모습(아래)

▲ 인천여관×루비살롱 입구(위) / 여관 객실로 쓰이던 공간을 개조한 내부(아래)

개항장 일대 역시 이에 해당한다. 도시 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개항장 문화거리와 그 인근에는 이러한 도시재생으로 탈바꿈한 공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먼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목조 건물의 ‘버텀라인’은 1983년에 문을 연 재즈 클럽이다. 원래는 신발, 넥타이, 모자, 가방 등 각종 잡화를 판매하던 양품점이 있던 곳이었다. 건물 내부 천장의 목조 서까래는 100여 년 전의 역사를 엿볼 수 있게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 의미가 남다르며, 한쪽 벽에는 수많은 LP판들이 꽂혀 있어 있다. 재즈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이 이뤄지고 있다.

1965년에 문을 연 인천여관은 인천항에 선박이 정박하면서 선원들이 많이 이용했었으나 1990년대에 점차 대형 숙박시설들에 밀리면서 문을 닫고 10여 년간 빈 공간이었다. 이런 건물이 2017년에 카페이자 전시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인 ‘인천여관×루비살롱’으로 탈바꿈하였다. 무엇보다 당



시 여관으로 쓰였던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지키며 공간이 품은 역사와 의미를 살렸다. 1층은 음악감상실과 공연 공간, 2층은 전시 및 카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곳곳에는 기존 여관의 방과 화장실 등이 보존되어 있고 자개장과 낡은 가구에서 빈티지한 감성과 레트로적인 요소를 뽑아내고 있다.

다섯 번째 만남

브라운핸즈

카페로 재탄생한 이비인후과

개항로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브라운핸즈는 1960년대 말부터 2002년까지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폐건물로 남은 이 건물을 통째로 개조한 카페이다. 당시 모습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하여 이곳이 과거 오래된 병원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4층 건물의 외관은 기존 병원 건물의 노란색 벽돌을 그대로 살렸으며, 입구에 들어서면 접수창구가 바로 맞이해 준다. 환자들이 대기했던 나무 의자와 서류 수납함, 오래되고 깨진 타일과 거친 벽면은 과거의 세월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4층까지 빈티지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낡은 공간 곳곳에 싱그러운 식물을 배치하여 생기뿐만 아니라 오래됨과 새로움의 조화를 돋보이게 한다.



▲ 카페 브라운핸즈 전경



▲ 카페 브라운핸즈 내부



여섯 번째 만남

싸리재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옛 거리



▲ 카페 싸리재 전경(위) / 싸리재 내부(아래)

1920년대 말 전후 인천 중구의 신포동에서 배다리로 향하는 길목인 개항로 78번지 일대는 한때 인천의 문화와 유행을 이끌던 중심지로, 싸리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이 거리를 ‘싸리재’라 불렀다. 싸리재는 서울로 올라가는 간선도로의 시발점으로, 지금은 ‘개항로’라 불리는 약 600~700m에 이르는 거리의 옛 지명이다. 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양복점, 극장, 예식장 등 다양한 상점들이 몰려 있던 변화가로 70년대 후반까지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빛을 발하던 싸리재 골목은 80년대 들어서며 점차 쇠퇴해 낙후된 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뉴트로 열풍으로 아날로그 감성이 풍부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카페 ‘싸리재’는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LP 플레이어에서부터 옛스런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싸리재는 90여 년 전 일본식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을 개조해 안쪽은 생활공간으로 또 한쪽은 카페로 개조한 곳이다.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물건들로 가득 찬 카페에서 여유를 즐겨 보자.



일곱 번째 만남

개항로 본부

개항로 프로젝트의 심장

인천 중구의 구도심인 동인천을 중심으로 기능이 중단된 건축물을 업사이클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운영·마케팅하는 도시재생 및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인 개항로 프로젝트가 2018년부터 진행 중이다.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심장인 ‘개항로 본부’는 개항로 프로젝트의 모든 기획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천 중구 개항로의 오래된 가구점들이 즐비한 거리의 건물 3층에 있다. 프로젝트를 주로 구상하고 회의하는 이 공간의 내부에는 길쭉한 테이블과 책장, 의자들만 놓여 있는데, 기다란



▲ 개항로 본부 내부(위) / '개항로 프로젝트' 간판(아래)

한쪽 벽에는 개항로의 노포와 사장님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사진 전시회를 보는 듯하다. 실제로 이곳에서 2018년 12월에 '개항로 이웃사람' 전시회 겸 캠페인을 열었다. 12개 노포를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 결과물을 전시하여 중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하며 노포의 매력을 알리면서 젊은 소비자를 발굴했다. 개항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항로 프로젝트와 노포의 상생을 통해서 인천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 것이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카페, 갤러리, 밥집, 술집, 통닭집, 햄버거집 그리고 면 요릿집 등 총 14개의 공간을 만들었고 공간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공간을 구성할 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과거의 세월을 최대한 살려서 현재의 트렌드와 관심있는 콘텐츠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바로 뉴트로(new-tro)적 요소를 통해 젊은 사람

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SNS에 나올 것 같은 패셔니스타부터 집에서 슬리퍼 신고 편하게 오는 사람까지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한다. 이러한 공간들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외부 방문객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개항로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덟 번째 만남

잇다 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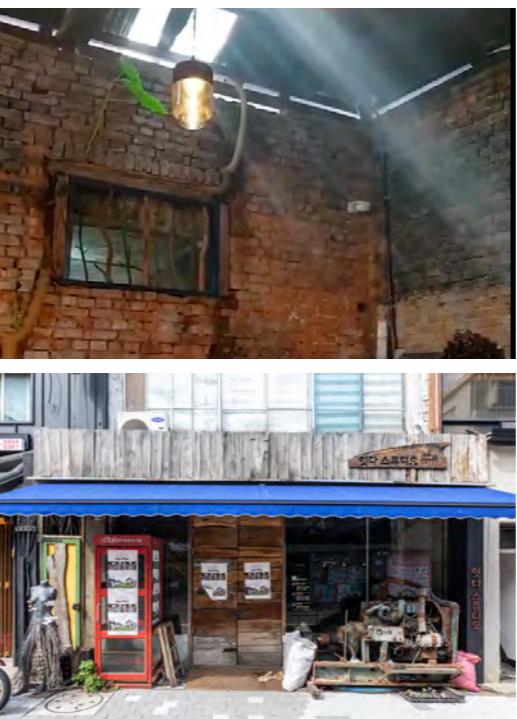
사람과 공간을 '잇다'



▲ 잇다 스페이스 입구

1920년대 일제 강점기에 화약 원료인 소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건설된 이 건물은 해방 후 1940년대에 여성 전용 일본식 한증막이 들어섰다. 이후 헌책방인 '문조사'와 '동양서림'의 창고를 거쳐 20여 년간 공터로 남겨져 있던 이곳은 현재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잇다 스페이스'로 재탄생했다.

작은 골목의 모퉁이에 붉은 벽돌로 된 건물 입구에는 '동양서림'이 커다랗게 적힌 문에 '새전과, 표준 학력고사' 등의 글자가 빛바랜 채 새겨져 있어 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기분은 마치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여는 듯하다. 원래 이 대문은 동양서림의 간판으



▲ 초대전이 진행 중인 잇다 스페이스 내부

아홉 번째 만남

인천문화양조장 (스페이스 빔)

양조장에서 문화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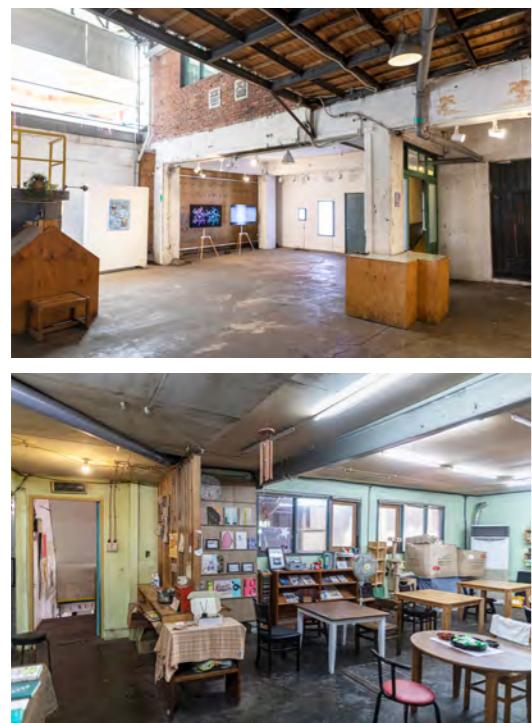


▲ 인천문화양조장 입구

인천 동구의 배다리 헌책방 거리를 걷다 보면 양철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화려한 색감의 대문 옆에 서 있다. 이 건물이 바로 과거에 양조장으로 이용되었다가 현재는 독립서점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인천문화양조장'이다. '소성주(邵城酒)'의 '소성(邵城)'은 통일신라 때 인천의 옛 지명인 소성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1926년에 인천을 대표하는 향

로 쓰였던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 '잇다 스페이스'라는 이름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을 '잇는' 문화 재생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랜 시간 방치된 건물 내부에는 오동나무가 단단한 벽에 뿌리내리며 건물 밖으로 이어져 자라고 있었다. 이 나무와 더불어 낡고 부식된 벽돌, 누렇게 빛바랜 태극기도 처음 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옛 공간의 흔적들이 온전히 남아 있다. 현재는 각종 초대전이 열리는 갤러리이자 콘서트, 공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여러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번 다른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간을 확장하여 1960년대 자개 공방이었던 건너편 3층 건물에 '잇다 스튜디오' 간판을 달고 1~2층은 공방, 3층은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다.



▲ 공장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건물 내부(위)
무인서점 '커넥더닷츠'(아래)

토 막걸리인 소성주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설립된 건물로, 70여 년간 생산하다가 1996년에 가동을 중단한 후 용도가 바뀌기를 거듭하고 방치되었다가 대안미술 공간 스페이스 빔이 2007년에 이곳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이후 도시 혁신을 위한 보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공유공간화를 위해 공간 이름을 '인천문화양조장'으로 바꾸었다. 스페이스 빔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함께 교육, 전시, 모임 등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었다. 건물의 내부 곳곳에는 과거 양조장이었던 당시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양조산업은 개항 이후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번창하였다. 마산이나 군산,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가 미곡 집산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미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미곡은 술의 원료가 되었기에 양조업 역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초반 인천에는 한국인 양조장이 14개소, 일본인 양조장이 7개 소나 될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이곳의 양조장 역시

설립자가 인천에 정착하여 정미업을 운영하다가 양조업으로 전업하여 세운 공장이라고 한다. 현재는 부평구 청천동으로 이전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인천문화양조장 약도를 볼 수 있는데, 스페이스 빔 등 해당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주체들의 이름과 '발효실' 등 과거 양조장으로 이용되었던 당시의 명칭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1층은 주로 전시 공간을 활용되며, 입구 바로 옆에는 재활용 및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운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유공간으로서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있다. 2층에 올라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커넥더닷츠'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독립 서점이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대한 안내자료, 다양한 그림 자료 등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스페이스 빔의 공간이 나온다. 이곳은 각종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각종 자료집과 도서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스페이스 빔은 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던 막걸리 제조 공장에서 이제는 공동체와 공간을 지키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장소로 변화한 옛 양조장 건물을 보면 도시재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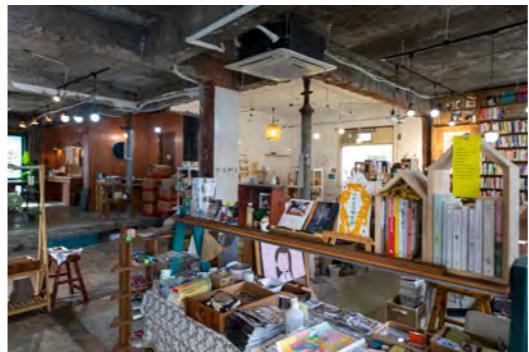
열 번 째 만 남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침을 놓지 않는 한의원



▲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입구



▲ 내부의 다양한 공간들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동성한의원'이라는 간판의 이름처럼 1973년부터 40여 년간 운영된 한방병원이었으나 병원이 문을 닫은 후 건물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 이후 2021년 7월, 상점 형태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5개의 상점이 모여 '문화상점 동성한의원'이 되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책방인 '나비 날다 책방',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숍인 '슬로슬로', 손뜨개 소품 가게인 '실꽃', 제빵 관련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지유오븐', 식물 가게인 '뒤뜨레'라는 다섯 공간이 한 지붕 아래 함께 공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넓은 의미의 도시 재생으로서, 커뮤니티를 통한 장소의 재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공유'와 관련이 있다. 공유공간은 '공간' 자체를 공유하면서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협력적 소비방식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의 한 방식이다. 같이 쓰고 나눠 쓰려면 신뢰가 기반이기에 공유공간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며, 다양한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유를 통한 공동체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

동성한의원

렇게 공유공간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 재생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문화상점 동성한의원의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나비 날다 책방'은 무인 책방이나 고양이가 지키고 있다. 누구나 잠시 머물며 한쪽에 설치된 공유책장에서 자유롭게 책을 꺼내서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책을 꽂아두고 갈 수도 있다. 책방 바로 옆의 '슬로슬로'에는 재활용 제품에서부터 천연 수세미, 나무 칫솔 등 활용성 높은 친환경 제품들이 가득하다. 판매뿐만 아니라 친환경 세제 등을 리필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 '우유갑 되살림 힘'을 통한 올바른 분리 배출 등 환경 캠페인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바로 앞 작은 공간의 '뒤뜨레'는 각종 다육식물을 비롯한 작은 식물과 화분, 씨앗, 흙 등을 판매하고 있다. 안쪽 공간의 '실꽃'에서는 모자, 방석, 가방 등 다양한 뜨개질 작품과 빈티지 소품을 판매한다. 그 옆의 '지유오븐'은 온·오프라인으로 베이킹 수업을 진행한다.

답사활동

01 답사한 장소들이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답사 장소	과거	현재
브라운핸즈		
잇다 스페이스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인천문화양조장		
버텀라인		
인천여관x루비살롱		
인천아트플랫폼		

답사 후 학습활동

생각해 볼 거리

관련 단원

- 중학교 역사2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 고등학교 한국사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
- 고등학교 한국지리 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활동목표

- 지역의 사회적·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지역 개발의 목표와 방식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지역 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의 지명 유래 및 변화 과정 조사하기
 - 싸리재, 배다리, 개항로 등 지명 유래 조사하기
 - 법정동, 행정동 등 행정구역의 변화 과정 조사하기
 -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중구와 동구의 지역성 파악하기
- 활동2 : 우리가 만드는 개항로 프로젝트
 - 개항로 일대의 상점들을 돌아보며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분석하기
 -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하기

그동안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방법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은 철거와 재건축에 기반을 둔 건설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최근에는 도시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려 문화예술 및 복합공간 등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발로 인한 혜택이 원주민보다 외부인에게 돌아갈 여지가 크나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기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를 보존하여 지역민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증진하는 선순환이 이어지면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의 개발보다

더 가치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구와 동구 일대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일대의 회생 시도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맞물리며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최근 들어 민간 차원에서 하나둘 물꼬를 트면서 배다리와 개항로 일대는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자연스레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아직은 넘어 야할 산이 남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이창길, 2021, 노포와 상생하는 인천 개항로프로젝트, 국토연구원
- 정지은, 2021, 문화적 도시재생으로서 문화예술공간 운영 활성화 연구: 인천아트플랫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
- 인천광역시, 2015,『인천역사문화총서74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인천관광 100선, 2016, 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

영상

- OBS, 2021, 공간다큐 만남 1회 ‘뉴트로의 성지, 인천 경동 싸리재’

인터넷 자료

- 인천관광공사 <https://www.ito.or.kr>
- 잇다스페이스 갤러리 <https://itta1974.modoo.at>
- 인천아트플랫폼 <https://www.inartplatform.kr>
- 한국근대문학관 <http://lit.ifac.or.kr>



4-2

공간 재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강화도

지리 | 역사 | 문화 | 경제

체험코스

- ① 담담각 → ② 조커 피랩 → ③ 소금빛 서점, 유림상회 →
- ④ 카페남문로 → ⑤ 소창체험관 → ⑥ 카페 조양방직

총거리 1.3km

도보시간 30분 차량 이동시간 2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1. 나라의 등장과 발전

5학년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2.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국어 독서단원

미술 체험(감상)

6학년 실과 생활소품 만들기

[중학교]

기술가정 VI. 건설기술과 창조

미술 2-1. 체험

사회1 VIII.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역사1 IV.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

역사2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고등학교]

한국지리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키워드

#공간 재생 # 커피 # 재생 # 관광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4-2

공간 재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강화도



공간을 재생하여 쓰임을 더하다

오래된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를 새로운 성격의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 재생'의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익숙한 건축 문화로 건물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어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공간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또한 쓰임이 다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공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재창조하는 활동은 재생 건축, 도시 재생 등의 형태로서 도시 디자인의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간 재생 활동은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이른바 '핫플'로서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흉물로 버림받아 방치되고 지역의 골치덩이였던 공간이 관광명소가 되고 낡고 오래된 지역의 이미지를 젊고 개성넘치는 이미지로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낙후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큰 장점이 있어 여러 지자체에서 공간재생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낡은 시설이나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더 나아가 옛 공간에 새 생명의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재생의 모습을 강화도에서 찾아보자.

첫 번째 만남

담담각

차분하고 편안한 한옥체험



▲ 담담각 연빈관 (출처 : 조선일보 www.chosun.co)



▲ 본채 안뜰 (출처 : 조선일보 www.chosun.com)

담담각(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285번길 14-29)은 약 5,000평(16,528m²)의 넓은 공간에 비밀의 정원, 금계정원, 덧밭정원 등 3개의 정원과 본채, 행랑채 등 2채의 한옥, 3개의 침실과 2개의 거실 등 1채의 쉼채로 구성돼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한옥체험 숙박시설로 인증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강화도 한옥스테이이다.

담담각의 주인인 지동훈 소장이 1993년부터 어머니 소유의 집을 물려받아 취미 삼아 고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모습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농가 한옥(660m²)에 불과하였지만 내부를 생활에 편리하도록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우물이 있던 마당이 부엌과 거실로 바뀌면서 집이 커지게 되었다. 쉼채는 경기도 용인의 수지 도시 개발로 철거될 예정이었던 100년은 넘는 절의 본당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한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한옥 한 채(영빈관)을 새로 지어 안방, 사랑방, 행랑채, 쉼채, 주방, 거실에 정원 셋을 갖춘 한옥단지로 규모가 커졌다.

담담각이라는 이름은 차분하고 편안하다는 '담담하다'는 뜻에서 만든 것이다. 담담각은 2013년 초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이전에는 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교관들이 이용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다가 한옥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개되었다. 가족 단위로 마음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루 한 팀만 이용할 수 있다.

두 번 째 만 남

조 커피랩

세월의 흔적을 담아내다



▲ 카페 조커피랩(출처 : 인천관광공사 '빈티지여행인천')

최근 들어 옛 건물의 정취를 그대로 살려 카페나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공간의 쓰임을 바꾸는 재생 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강화도 읍내에 위치한 조 커피랩은 수선가게와 개인 사무실로 쓰였던 1층의 두 공간을 하나로 합쳐서 카페로 만들었다. 빨간 벽돌에 흔치 않은 건물의 외관 때문에 이곳에 카페를 열게 됐다고 한다.

강화의 분위기 좋은 카페가 대부분 교외에 있는 것과 달리 조커피랩은 강화도 읍내에 있어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카페다. 작

지만 세련된 인테리어와 신선하고 맛 좋은 커피 덕분에 강화읍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카페 내부에는 두 개였던 공간의 벽을 터서 만든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흰색으로 칠해져 있던 벽을 갈아내 원색을 드러냈고, 내부에도 빨간 벽돌을 가져와, 바테이블을 만들었다. 건물 자체가 기울어진 삼각형 모양으로 지어져 있다는 점이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한 건물 모양 덕분에 작지만 특유의 분위기를 가진 공간이 만들어진 셈이다.

세 번 째 만 남

**소금빛 서점,
유림상회**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공간

강화군청 인근에 한 지붕아래 두 개의 공간이 공존하는 소금빛 서점과 유림상회가 있다.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강화에서 결혼식을 올린 젊은 부부가 대명현의 바깥채에 서점과 그릇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부부가 결혼 전 대명현에서 처음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곳에 부부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낭만적인 사연이 있다.

남편이 운영하는 소금빛서점은 본인이 선별한 책들로 채워진 작은 서점으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서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은 동네에서 독립서점으로 생계를 꾸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 옆에 그릇가게를 열었다. 5평 남짓한 그릇 가게는 폴란드, 체코, 체코, 프랑스 등 유럽에서 수입한 식기와 유리병 등의 생활 소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대명현은 서양의 건축양식을 접목한 근대 한옥이다.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2칸으로 나뉜 안방이, 오른쪽에는 사랑방과 누마루가 위치한다. 안방과 이어진 부엌 위 다락방에는 한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발코니가



▲ 소금빛 서점



▲ 유림상회

설치되어 있다. 영국식 디자인의 헤링본 스타일 마룻바닥, 스테인드글라스 등 전통 한옥과는 다른 실내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영국식 건축양식을 한옥에 접목한 건 1900년에 세운 한국 최초의 한옥 성당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의 영향이 크다. 아궁이가 잘 보존된 부엌에는 1930년대 가구와 소품 등이 놓여 있어 근대 한옥의 감성을 느끼기 좋다.

대명현은 김구 선생과 관련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1886년 치하포사건으로 김구 선생은 사형선고를 받고 인천감리서에 이감된다. 이 소식을 들은 김주경 선생님 탈옥을 권유하고, 김구 선생은 결국 탈옥에 성공한다. 김주경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갔지만, 그곳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김주경 선생을 만나러 강화도에 온 김구 선생은 그를 못만났지만, 그의 동생 김진경 집에 머무르며 인근에서 3개월간 서당을 열었다고 한다. 김구 선생이 강화를 떠나고 당시 서당이었던 자리를 강화도 부자 황국현이 구입하여

지은 것이 대명현이다.

대명현 건축에는 궁궐을 짓는 도편수를 고용하고, 목재는 모두 백두산에서 뗏목으로 실어온 잣나무를 사용하여 1918년 공사를 시작해 1928년 완공했다. 집 한 채를 짓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 중건에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 집에 들인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대명현 건물 중 별관은 한옥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숙박용으로 개방하고 있다. 별관에는 방 3개와 대청마루, 누마루, 쪽마루, 부엌이 있다. 화장실 겸 샤워실은 외부에 있다. 숙박은 하루 한 팀만 예약을 받으므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 번 째 만 남

카페 남문로7

방직공장의 변신



▲ 카페 남문로7

남문로7 카페는 소창 가내 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이다. 큰 통창이 있어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남문로7 카페의 높은 층고와 내부 곳곳에서 방직공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강화도에는 남문로7카페 뿐만 아니라 조양방직 등 방직공장을 개조한 카페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도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그중에서도 도시에 위치한 장소는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나 퇴색되기도 했다. 탈산업화(탈공업화)는 도시 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많은 장소가 낙후 시설이 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철거를 통해 낙후된 건축물들을 없애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독창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가치가 경제적 효과와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낙후 공간의 활성화는 장소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여 문화유산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공장을 예로 들어보자. 후자는 공장의 물리적 구조를 변형하지 않은 채 대중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현해 주는 박물관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반면 낙후 공간의 활성화는 공장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일부를 변형하여 주거단지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기능들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이용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낙후된 공간에 새로운 색을 입히며 지속가능성을 더한다.

강화도는 직물산업을 통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변화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여 제 자리에 안주한 나머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은 작은 소도시로 남게 되었다. 다시 기회가 왔다. 역사성을 갖는 재생 공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이다.

다섯 번 째 만 남

소창체험관

강화의 직물 역사를 품은 곳



▲ 소창체험관 입구

(출처 : 한국관광공사 <https://korean.visitkorea.or.kr/>)

소창은 목화솜에서 뽑아낸 실을 이용해 만든 23수 면직물로 일반인에게는 일회용 기저귀가 나오기 전에 사용한 천 기저귀로 알려져 있다. 강화의 대표 직물인 소창은 한 때 짜기만 하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는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강화도는 1970년대까지 직물 산업이 번성한 고장이었다. 1933년 조양방직이 문을 연 이래, 평화직물과 심도직물, 이화직물 등 직물 공장이 들어섰다. 크고 작은 직물 공장이 60여 곳이고, 강화읍에만 직물 공장 직원이 4,000명이 넘었다. 심도직물은 직원이 1,200여 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 중·후반부터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대구로 직물 산업의 중심이 옮겨 가면서 지금은 소규모 소창 공장 10여 곳만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최근 강화 소창이 부활하고 있다. 관광 상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염색공장이 있는 옛 평화직물을 2016년에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강화직물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이 2017년 12월에 개관하였다.

소창체험관은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조양방직 사진과 1,200명의 직공들이 근무하던 심도직물의 옛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소창전시관, 나만의 강화 소창 만들기를 위한 소창 체험관, 1938년 건축된 한옥에서 전통차 체험·화문석 체험·직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직조 시연관으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번 째 만 남

카페 조양방직

레트로 감성 카페

가내 수공업 형태였던 강화의 직물산업은 1933년 강화도 지주인 홍재목·홍재용 형제가 민족자본으로 조양방직을 설립하면서 근대적인 공업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34년 조양방직의 50여 대 방직기를 가동하기 위해 강화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운영하던 직물산업은 대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조양방직이 생기면서 육지의 웬만한 도시보다 먼저 전기와 전화 시설이 들어온 것은 순전히 직물 산업 때문



▲ 조양방직 카페



▲ 조양방직 내부 풍경

이었다. 이 시기 강화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인구가 살 정도로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조양방직과 함께 강화의 경제를 이끌어간 쌍두마차는 1947년에 설립된 심도직물이었다. 매일 노동자 1,200여 명이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며 직조기에 매달렸다. 당시 멋쟁이들의 필수품이었던 최고급 ‘웹블리넥타이’를 생산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외화 획득에도 크게 기여했다.

1970년대 심도직물을 선두로 강화에는 이화견직, 경도직물 등 크고 작은 직물공장 60여 개가 있었고 직물공장 종업원이 강화읍에만 4천여 명이었다. 인조견, 특수면직(광목), 소창, 넥타이류, 커텐 직물 등을 생산했다. 당시 섬유를 생산하는 대구, 나일론으로 유명한 수원과 더불어 전국 3대 직물도시로 손꼽혔다. 하지만 나일론 등 인조 직물이 등장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현대식 섬유공장이 들어서면서 강화 직물 산업은 쇠락을 길을 걷게 된다.

조양방직은 1933년 설립 후 10여 년 뒤 경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이 넘어갔고, 광복 후까지 명맥을 잇다가 1958년 문을 닫았다. 이후 조양방직은 단무지 공장, 젓갈 공장 등을 거치며 폐허가 되다 시피 했다. 조양방직이 새 주인을 만난 것은 2017년이다. 1년 남짓 보수공사를 거친 조양방직은 카페로 다시 태어났다. 시멘트 건물 외관은 그대로 살리고, 방직기계가 있던 기다란 작업대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테이블로 활용하는 등 레트로 감성의 카페로 보수공사를 하여 강화도를 대표하는 공간 재생 사례가 되었고 강화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답사활동

01 강화도 기억하기

강화도에서 기억에 남는 장소와 그 이유 적어봅시다.

기억에 남는 장소	기억에 남는 이유

02 강화도 그려보기

강화도에서 기억에 남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을 그려 표현해 봅시다.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중학교 사회2-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경쟁력
- 한국지리-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 활동목표

-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지닌 가치와 경쟁력을 조사할 수 있다.
- 지역화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재생 공간 재활용하기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생 공간을 활용한 곳을 찾아 조사해 보자.

현재 건물명	스페이스 빔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 513번길
과거의 용도	양조장
건물 소개	마을 및 도시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

- 활동2 : 재생 공간 디자인하기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찾아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해 봅시다.

내가 찾은 곳	OO역 주변의 빈 체육관
선정 이유	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 513번길
재생 공간 구상하기	누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까? 청소년과 지역 예술인
	어떤 목적으로 만들까?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활동 공간 및 전시공간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까?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 강사의 강의 지역 주민을 위한 예술 체험 활동 지역 예술인의 작업 공간

생각해 볼 거리

강화의 역사, 산업, 종교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강화 원도심 도보 여행은 강화 역사만이 아닌 대한민국 근대사와 연결돼 있기에 더욱 의미 있다.

과거 강화의 전성기를 느낄 수 있는 심도직물(터), 한옥으로 지어진 가장 오래된 교회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에서 일어난 대규모 만세 운동을 기념한 강화 3.1 독립만세 기념비, 한국 천주교가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첫 사건을 기념한 노동사목 표지석, 고려시대부터 강화읍의 한편을 지키고 있는 700년 은행나무, 강화 직물 이야기를 소개한 이화견적 담장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방직 공장이었던 조양방직, 강화의 독립운동의 현장인 강화중앙교회, 합일초등학교 독립운동길, 강화의 전통이었던 직조산업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창체험관까지 이어진다.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 조선일보 www.chosun.com
- 굿모닝 인천 www.incheon.go.kr
- 한국관광공사 <https://korean.visitkorea.or.kr/>
- 인천관광공사 www.ito.or.kr/

P A R T

5

인천의 오래된 가게

- 5-1 부평의 오래된 가게
- 5-2 ‘이어가게’를 아시나요?



5-1

부평의 오래된 가게

경제 | 산업 | 역사

체험코스

① 김용기 명과(名菓) → ② 삼천리자전거 부평성안점 →
③ 용방앗간 → ④ 남창문구사 → ⑤ 복화루 → ⑥ 대신모
자 → ⑦ 차밍 → ⑧ 국수노점 → ⑨ 만수주단 → ⑩ 신도매
고기시장 → ⑪ 신일상회 → ⑫ 영광상회 → ⑬ 은성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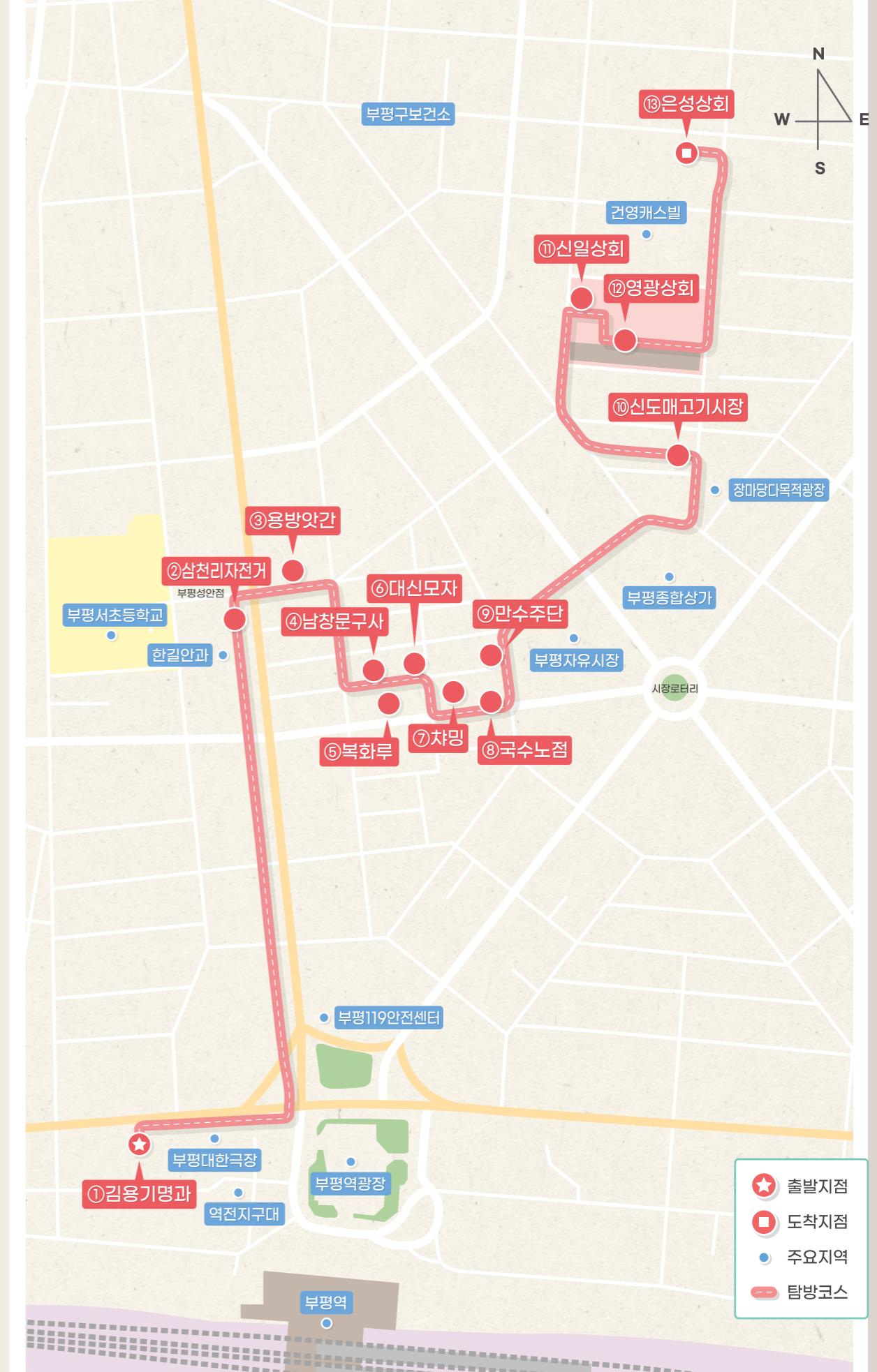
총거리 2.5km
도보시간 40분, (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상업의 입지와 변화
경제 시장과 경제활동

키워드

#오래된가게#부평시장#수출산업공단#부평역#부평문화
의거리#노점#평리단길#대형마트



5-1

부평의 오래된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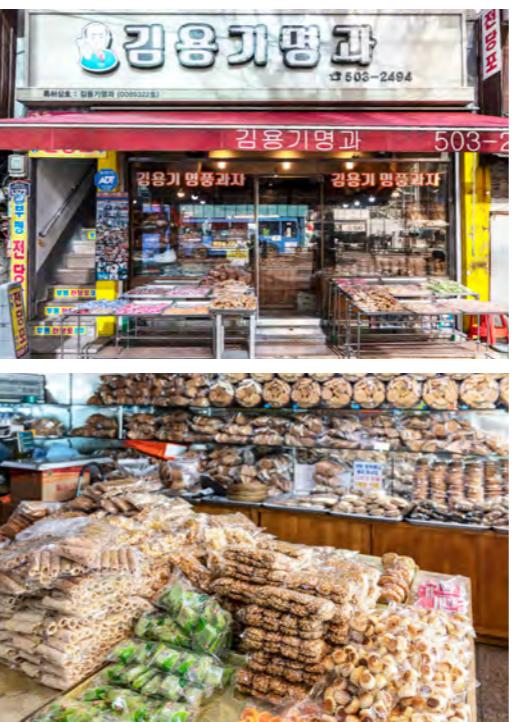
시 간 을 담 은 부 평 의 오 래 된 가 계

시장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음식과 물건을 구하기 위해 누구나 찾는 일상 공간이다. 부평시장은 근현대를 살아온 부평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삶이 녹아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부평의 변화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부평의 공업화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아지자 부평역 인근에 시장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부평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미제 물품들이 지금의 부평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암암리에 유통되었다. 부평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서며 늘어난 공단 노동자들은 진흥종합시장에서 생활용품을, 부평종합시장에서 갖가지 먹거리를, 부평깡시장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를 구매하였다. 최근에는 대형 마트, 백화점의 등장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평문화의 거리가 탄생하였고, 평리단길이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부평의 오래된 가게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생계의 공간이고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세대를 잇는 단골집이자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무엇이든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대를 이어온 오래된 가게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부평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 째 만 남

김용기 명과

추억을 파는 과자 가게



▲ 김용기명과(위) / 가게에서 만든 과자들(아래)

57년 동안 부평역 북광장 인근에서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추억의 과자를 파는 가게가 있다. 1965년도 열여섯 살부터 과자를 만들기 시작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용기 과자점'이 있다. 가게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과자 만드는 기술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설날과 추석에 장사가 가장 잘 되지만, 30년 전에는 크리스마스이브에 많은 사람이 과자점을 찾았다. 심지어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에 팔 과자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때 이 과자를 먹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이 과자를 사가는 맛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서 먹던 입맛을 기억하고 있는 30~40대가 부모님께 사드리기 위해서 사가는 것이다. 대표 과자는 전병으로 김, 땅콩, 참깨가 뿌려졌으며 부채꼴, 돌돌 말린 룰 형태 등 다양하다. 센베(せんべい)라고도 불리는 전병은 밀가루에 달걀과 설탕을 넣어 만든 반죽을 틀에 넣고 구워 만든 일본의 전통 과자이기도 하다. 과자를 구울 때 고온의 화력이 필요해 값싼 도시가스 대신 LPG(액화 석유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수동식 기계로 과자를 구웠지만, 지금은 반자동화 된 기계로 만들고 있다.

과자가 주식(主食)이 아닌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다. 한국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코로나19(COVID-19)로 과자를 사는 사람들이 크게 줄기도 했었다. 2022년에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밀가루 가격뿐만 아니라 설탕, 들깨 등 과자를 만드는 재료들의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아들 김대환(46세) 씨가 기술을 전수 받아 매일 아침 과자를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과자 색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게 나왔을 때 많이 혼나기도 했었단다. 지금은 20년의 경력으로 맛있는 과자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 째 만 남

삼천리 자전거 성안상회

자전거만 68년,
인천 자전거의 산파 역할



▲ 삼천리자전거 가게 전경

성안상회는 황해도 출신 실향민 박호영 씨가 1955년에 문을 열어 인천 자전거의 산파 역할을 한 곳이다. 자동차가 적었던 시절에 자전거는 교통수단이며 일하는 수단이었다. 당시 우체국과 주변의 부평시장 상인들이 최고의 고객이었다. 인천에서 유일한 자전거 도매상으로 이곳에서 부품을 가져가거나 조립해서 가지고 갔다. 인천뿐 아니라 부천·강화·김포·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자전거를 공급했다. 대부분의 자전거 가게가 자전거를 수리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자전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여 완성품까지 판매하는 부평에서 유일한 가게였다.

1950년대에는 대부분 배달용 자전거로 막걸리·쌀·성냥·연탄 배달이 많았는데, 60년대까지 상업용이었던 자전거가 70년대는 통학이나 통근용으로, 80년대 후반부터는 레저용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1978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자전거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던 적도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전국적으로 레저스포츠의 붐이 일어났던 시기에도 자전거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호황을 맞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외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전거가 인기였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4배 이상 팔렸다고 한다.

성안상회는 생활자전거밖에 없었던 1990년대 초반에 산악자전거(MTB)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앞장섰으며,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을 창설하고 선수단을 꾸려 국제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자전거도시가 보행 약자와 장애인에게 좋은 도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시민들과 같이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시민을 대상으

로 자전거 교육 등도 실시했다. 2019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서울·경기·인천 일대는 구매한 상품을 모두 조립해서 직접 고객에게 배달하고 판매 현장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안장 조절 등도 진행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자전거의 교통 분담이 30~40%대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텐마크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2%대에 불과하다. 창업 주에 이어 부인과 둘째 아들 그리고 지금은 네 번째로 성안상회를 운영해오고 있는 첫째 아들 박유순 씨는 자전거도로가 더 많이 만들어져 인천이 친환경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세 번 째 만 남

용방앗간

잔칫상과 식탁을 빛내주던
추억의 방앗간



▲ 용방앗간



▲ 각종 곡물을 빻는 기계

국수 가게를 하던 유해정 씨가 1963년에 용방앗간으로 개업을 하여 지금은 아들 내외가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예전에는 인천의 박촌, 검단에서부터 손수 레를 끌고 잔치 떡을 하러 왔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옛날에는 떡을 많이 했으며 잔치 때는 절편, 인절미, 시루떡, 꿀떡, 바람떡 같은 것을 빼놓지 않고 했다. 주로 농사를 짓던 예전에는 사람들이 고무대야에 불린 쌀을 이고 오기도 하고, 명절이면 손님이 너무 많아 가게 옆 차도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서 경찰이 교통정리를 해주기도 했다.

옛날에는 동네잔치가 있을 때면 잔치 떡을 하느라 방앗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뷔페나 패밀리 레스토랑이 성행하면서 떡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떡집이나 떡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떡을 간

편하게 사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방앗간을 떡집으로 생각하지만, 떡집은 방앗간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옛날 방앗간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집에서는 점점 음식을 적게 해 먹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찧고 빻아서' 음식 재료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떡을 하기 위해 쌀을 많이 빻았다면, 그 후에는 미숫가루, 지금은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 약초 등 고객이 원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곡물을 빻고 있다. 전통 방앗간의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곡물가루와 건강 보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한약재 제분 기술(곡식이나 약재 따위를 빻아서 가루로 만듦)을 개발·습득해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30여 종의 각종 기계를 보유함은 물론 50년 동안 축적된 기술을 자랑한다. 쑥이나 약재를 달여 만든 둥근 환 작업, 시골 들깨의 겹질을 벗겨 만든 기피, 호박을 말려 만든 분말, 다시마, 멸치로 만든 천연 조미료, 한약 제분 등 어떤 재료도 빻아 가루로 만든다. 요즘은 고춧가루, 미숫가루, 천연 조미료 같은 것을 빻아주거나 환을 만들어 주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계절마다 봄에는 쑥떡과 쑥차에 쓰일 재료,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실 미숫가루, 가을에는 김장할 때 쓸 고춧가루, 겨울에는 설 명절에 쓰일 떡국떡을 주로 만들고 있다. 떡은 가을 추석 송편만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앗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2대 사장 유형 씨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세월 동안 단골들과 지내다 보니 이제는 그분들의 자녀는 물론 손자들까지 대를 이은 손님들도 많습니다. 손님이라기보다 한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용방앗간의 영업 방침은 아버지 때부터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정성껏 찧거나 곱게 빻아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작업하고 있어 손님들도 100% 만족하지요. 용방앗간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요. 아무래도 그런 마음 씀씀이를 기억해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입소문이 이어져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요.”

네 번 째 만 남

남창문구

백 년의 역사를 쓰고 있는
부평 최대의 문구 백화점

남창문구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평시장에서 동네 문방구에 각종 문구류를 납품해 왔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꼭 필요한 문구류를 파는 부평의 오래된 가게이다. 1945년 광복 후 임덕용 씨가 서울에서 공



▲ 남창문구



▲ 전시되어 있는 문구류

책을 사들여 좌판 깔고 판 것이 가게의 시작이었다. 부평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학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해 공책을 팔기 시작했다. 이후 작은 가게를 얻어 ‘남쪽으로 창을 내다’라는 의미의 ‘남창상회’란 이름을 걸고 공책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을 팔았다. 1974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남창문구’로 이름을 바꾸고 문구용품만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공책 한 권을 주문해도 자전거로 배달을 해주었다. 구매금액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배달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았다. 손님이 찾는 물건이 없으면 옆 가게 물건을 빌려서라도 구해주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느덧 부평 최대의 문구류 도·소매점으로 다양한 품목을 갖춘 문구백화점으로 불린다.

고객 편의를 위해 매장 구조를 고민하고 상품·크기별로 물건을 진열하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오래된 가게로 선정되었다. 수많은 문구용품이 있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수월하다.

최근에는 관공서나 학교들이 조달청을 통한 대량 일괄 납품 제도로 물건이나 학용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현재 운영을 하는 며느리 조광자 씨는 손님들에게 “남창문구사의 물건으로 공부하여 성공했다”, “여기오니까 다 있네?”, “외국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왔는데도 그대로 있네?”라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다섯 번째 만남

복화루(福華樓)

현존하는 인천의
가장 오래된 중식당



▲ 복화루(위) / 많은 사람이 찾는 대표음식 간짜장(아래)

중국 산둥성 출신의 화교(華僑) 이복충 씨(창업주)가 1945년에 창업한 중국음식점으로 3대가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1987년부터는 아들 본위 씨가 주방을 맡았고 손자 장제 씨도 주방일을 배우는 중이며 현재 대표로 있다. 부인 왕수영 씨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1970년대 중화요리는 최고의 외식으로 서민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인천이 원조이고 국민음식이 된 자장면을 입학식이나 졸업식 또는 생일날 먹었던 행복한 기억을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다. 1957년 화교 상인들의 대의 무역을 금지하는 규제로 수입을 잃은 중국 상인들이 음식점을 차리면서 중국음식점 숫자가 5배로 껑충 뛰었다. 6·25전쟁 후 미국이 보내준 임여농산물 원조 중 가장 많았던 값싼 밀가루와 정부의 혼분식 장려 운동의 영향으로 자장면이 대중화되어 갔다. 미군부대 ASCOM이 부평에 주둔하고 부평수출산업단지가 생기면서 회식이 많아졌으며, 특히 미군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중국식으로 하는 닭요리를 많이 찾았다. 지금도 예전처럼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 와 아빠 그리고 손주가 함께 찾아와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는 즐거움은 시대나 세대의 구분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은 오래전부터 화교(華僑)들과 이웃하며 함께 살아왔다. 개항기와 근대 시기에 인천으로 이주해온 화교들은 상업, 농업, 무역업을 하며 그들의 삶을 이어왔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에 온 그들에게도 아이들의 교육은 숙제였고 절실한 문제였다. 부평 화교 학교는 1951년에 개교를 하여 1986년 폐교될 때까지 35년간 부평 화교 어린이들의 배움터였다. 6·25전쟁으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학교까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부평 지역 내에 학교 설립을 하게 되었으며, 화교들이 인천중산학교 부평분교 설립과 운영에 자발적 후원과 모금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은 부평지역에서 음식점, 잡화업을 하는 화교들의 아들, 딸들이었다. 부평분교는 복화루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복화루 대표인 이본위 사장이 부평분교 출신이며 외할아버지는 부평분교 설립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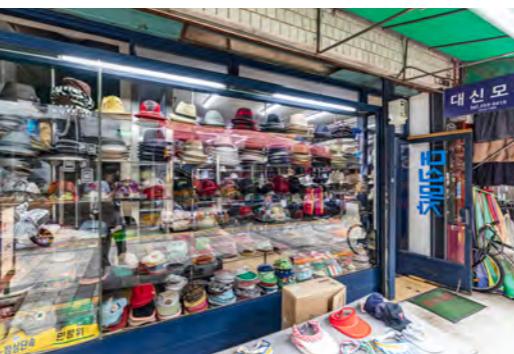
했으며 아버지는 학교 이사 중 한 명이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음식점으로 프랑스의 미슐랭과 같은 국내 최초의 음식점 평가서인 '블루리본 서베이'에 8년 연속 선정되는 등 중국 음식 문화 발전에 힘쓰고 경영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에서 30년 이상 경영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백년가게'에도 선정되었다.

여섯 번째 만남

대신모자

부평의 변화를 담고 있는
대신모자



▲ 대신모자(위) / 시대의 유행을 뽐내던 모자들(아래)

부평시장 최초의 모자 전문 가게이다. 1960년 김현중 씨는 부평시장에 모자가게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대신모자를 개업하였다. 모자는 주로 직접 손으로 만들었으나, 주문이 많을 때는 서울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에서 구매해 오기도 하였다. 모자를 팔아 3남매를 교육했다는 자부심과 모자판매업이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가게를 운영해오고 있다. 오래된 가게의 주인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이다. 어린 나이에 6·25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학교 공부를 해야 할 시절에 돈벌이에 나서야 했다. 내일을 위해서라기보다 오늘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였다.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도 낳아 가르쳤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고 뒤통아보니 역사가 되어 있었다.

모자는 예의를 갖출 경우나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쓰는 물건이었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옷과 판을 반드시 갖추어 입던 예의 민족이었다. 개업 초기, 1960년대에는 남자들이 외출할 때 꼭 중절모자를 써서 많이 팔렸는데, 그때는 미국에서 구호품으로 보낸 옷을 받아다가 다시 재단해서 모자를 만들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부평에 인구가 증가하고 학교가 들어나면서 학생 모자의 주문이 주를 이루었다. 부평 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선 후에는 작업모자 주문이 밀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1990년대 스포츠 브랜드 모자와 기능성 모자가 유행하면서 대신모자의 전성기는 끝이 났고, 이후에는 각

종 완장류를 판매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한 값싼 모자와 단체 맞춤 모자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목까지 헷빛을 가릴 수 있는 등산용 모자가 인기 품목이다.

일곱 번째 만남

챠밍

단골의 신뢰를 중시하는
사랑방



△ 쳐밍(위) / 단골손님들의 사랑방(아래)

1968년 부평 문화의 거리에 처음 옷가게를 냈을 때는 유아복과 아동복을 판매하였다. 지금은 여성복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중 엄마 옷 전문으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아동복을 판매할 당시 그 옷을 입고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는 40대 어른이 됐고, 그 아이에게 옷을 사 입혔던 엄마들도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 여전히 쳐밍의 단골손님으로 오가고 있다. 이제는 옷을 사지 않아도 지나는 길에 들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에는 한복이 아닌 서양 옷을 파는 곳이라고 해서 양품점(洋品店)이라 불렸는데, 20세기 양품점, 경희양품점, 유신양품점 등 세 군데가 있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때는 옷을 사러 부평시장에 나오

는 사람들이 많아 가게마다 붐볐다고 한다.

가게에서 팔 옷을 남대문시장에서 구해 왔는데 옷을 사러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었다고 한다. 서울역에서 삼화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 버스 기사들이 짐이 많다며 안 태워 주기 일쑤라 사정을 해야 하고, 아니면 총알택시를 타고 내려왔었다고 한다. 지금은 옷을 구하러 서울로 올라가지 않는다. 남대문시장 옷가게에서 보내주는 상품안내서(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하면 택배로 옷을 받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상품안내서가 없는 옷가게는 쳐밍이 단골이기에 직접 전화를 하여 구매 안내를 해주고 있다.

“오랫동안 옷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그걸 자신이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남들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법입니다”라고 창업주 김애희 씨(85세)가 전했다.

여덟 번째 만남

국수노점

마음 졸이던 노점에서
문화의 거리로



△ 부평문화의 거리의 국수노점의 음식들(위)
대표 음식 국수(아래)

문숙희(1947년생) 씨는 1967년부터 부평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철 나물과 과일, 생선 등 계절마다 품목을 바꿔가며 사계절을 시장에서 보냈다. 고무대야를 머리에 이고 나물을 구하러 수인선을 타고 소래포구까지 다녀오고, 사과는 서울까지 가서 구해와 부

평시장에서 팔았다. 큰 아기는 등에 업고, 막내 아기는 뱃속에 품고 그렇게 장사를 했었다.

그때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노점단속반에 붙잡혀 가고 물건을 압수당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그러다가 이웃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상인의 권유로 1970년대 후반부터 국수를 팔기 시작했다. 값싼 가격에 국수를 찾는 사람은 많았지만, 급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하루에 20~30그릇만 팔 수 있었다. 1996년, 부평문화의거리 조성 계획이 세워지면서 노점 철거가 결정되었고, 장사를 그만둬야 하는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상인회와 부평구에서는 생계가 어렵고 부평에 주소를 둔 노점 주인을 선정해 허가를 내주고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을 지어주었는데, 이때 허가를 받아 현재의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인천을 대표하는 변화가 가운데 하나인 부평문화의 거리는 낡고 지저분한 재래시장을 관(官)이 아닌 상인들 손으로 변신시킨 전국 최초의 상가 재생 사례로 알려져 있다. 1996년 당시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낡고 오래된 건물과 노점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어수선했던 시장 거리는 1998년 차 없는 상가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2000년대 들어 길거리 공연장이 들어서고 프리마켓도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또다시 변신한 문화의 거리는 20여 년간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에서 수년째 가장 비싼 땅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강제화 부평점 건물도 문화의 거리 입구에 위치해 있다.

현재 국수노점에서는 국수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는 메뉴를 다양화하여 순대, 떡볶이, 튀김, 어묵 등 분식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다. 얼핏 분식집 같아 보이지만, 처음에 국수 가게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

수를 판매하기 때문에 ‘국수할머니’로 불린다. 전문 분식점의 경우 반조리 상태로 만들어진 튀김 제품을 사용하지만 부평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고구마와 각종 채소를 재료로 튀김을 만들고 있다.

아 흡 번 째 만 남

만수주단

전통한복을 만드는 집



▲ 만수우리옷



▲ 2대째 가업 이어받은 한복집

만수주단은 1959년에 시작하여 60여 년간 2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단(綢緞)은 품질이 빼어난 비단을 말하는데, 한국의 전통미(美)를 상징하는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화려하고도 단아한 자태를 풍긴다. 부평수출산업공단이 생기고 나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설 명절 때 입고 내려갈 한복을 맞추거나 사서 갔다. 또는 부모님께 드릴 한복을 사가는 경우도 많아 1970년대에 한복집 거리가 형성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한복이 명절이나 결혼식 폐백, 칠순이나 팔순 등 가정에서 큰 잔치가 있을 때 주로 입는 예복이 되었으나, ‘생활 한복’, ‘퓨전 한복’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입고 활동할 수 있거나, 개성을 살리고 예쁜 퓨전 한복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한복을 입은 사람은 서울 시내 고궁을 야간 개장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복 입기 열풍이 한층 탄력을 받았다. 고궁만큼 한복 입은 모습을 가장 예쁘게 담아낼 수 있는 장소는 드물어서 1020 세대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복을 찾는 이들이 하나둘씩 줄어들면서 한복 가게는 현재 5~6개로 줄어들었다. 결혼문화가 바뀌면서 예복으로 한복을 입는 비중

이 줄어들고, 결혼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COVID-19)로 결혼식도 크게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복, 커튼 등의 매장이 주를 이루는 곳에 2016년 이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 카페가 처음 문을 연 이후 매장의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카페와 음식점 등 독특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평리단길’로 유명해지고 있다. 낡고 오래된 가게 건물에 20, 30대의 청년 창업가들이 아담하고 예쁜 커피숍들을 차리고, 뒤를 이어 디저트 카페, 특색 있는 메뉴의 유립풍 레스토랑, 개성 만점의 웃이나 액세서리 가게, 사진관, 꽃집, 공방 등의 가게 문을 속속 열고 있다.

열 번 째 만 남

신도매고기시장

전국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의 매장



▲ 부평종합시장 신도매고기시장

신도매고기시장은 축산물 도소매 업소로 1979년에 문을 열었다. 2001년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단일매장으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의 매장이었다. 최성복 대표는 1991년에 일반 사원으로 시작하여 30여 년째 근무 중이다. 입사 초기에는 이곳 부평시장에서 경매를 부르는 깡시장이 있어 사람이 엄청 많았고 인천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 뼈 제거팀, 갈비포 뜨는 팀, 판매팀 등 10여 명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온종일 분주했으며, 인천 전 지역을 넘어 서울, 안산, 수원까지 고기를 배달했다. 몇백 명씩 찾아가는 고기부페가 생기던 1996년도에는 고기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었으며, 차로 고기를 배달하는 경우가 적었던 시절에 ‘송광호철판요리’라는 가맹점에 고기를 납품할 때는 부산까지 배달 판매를 했었다. 고기를 주메뉴로 한 프랜차이즈 식당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도매가로 고기를 적당하게 손질까지 하여 배달까지 해주

니 인기가 높았다. 1997년 외환위기(IMF) 때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기를 값싸게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장사가 더 잘되었다. 1998년부터 제주도 축산농장 고기를 도축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하루미'라는 브랜드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2010년 구제역 파동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람들이 고기 먹기를 꺼리게 되고 가축 이동이 금지되면서 돼지고기가 들어오지 않아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수입고기는 냉동차로 들여오는데, 시장에는 노점이 생기고 상가들이 많아져 5톤 트럭이 들어올 수 없어 삼산동에 냉동창고를 따로 만들었다. 집에서 잔치할 때마다 시장에서장을 보던 예전에는 고기 판매가 많았다. 핵가족이 진행되면서 사가는 고기의 양은 적어졌지만, 비계를 잘라달라는 등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 직원을 더 고용하게 되었다. 현재 직원 수는 50~60명으로 차가 막히지 않는 인천 지역 800여 개 업소에만 고기를 배달하고 있다. 부평깡시장의 경매기능이 구월동과 삼산동으로 넘어가면서 새벽에 시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오전 5시 50분에 가게 문을 열던 것도 7시로, 최근에는 다시 9시로 바뀌었다. 신도매시장도 40여 년을 부평종합시장에서 장사해오며 변화에 적응해가는 중이다.

열 한 번 째 만 남

신일상회

그릇부터 반찬까지
공단사람들의 생필품을
책임지다



▲ 신일상회

신일상회 신원범 씨는 1970년에 부평깡시장 인근 노점에서 그릇 장사를 시작했다. 1968년 7월, 부평수출산업공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그릇이나 이불과 같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세탁기와 냉장고가 없던 시절, 그릇과 가재도구가 불티나게 팔렸다. 도자기나 유리 제품과 달리 깨지지



▲ 각종 식료품

않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열전도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양은그릇이 1970~1980년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1971년에 전물형 상가인 부평진홍종합시장이 개장하자 작은 점포를 분양받아 '신일상회' 간판을 걸었다. 그릇을 팔았지만 부평깡시장에서 나온 배춧잎에 양념을 묻혀 내놓으면 연장작업, 휴일 특근 작업, 36시간 교대 작업 등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공단 노동자들에게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새벽부터 반찬을 사려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기다렸고, 점점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새우젓, 멸치, 콩장 등 반찬 판매 비중을 늘려나갔다.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판매 물품을 그릇에서 식료품으로 완전히 바꾸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후 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부평시장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소득이 높아진 이 시기에는 즉석식품인 3분 카레, 맛살, 치즈, 천하장사 스틱소시지 등이 출시되어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인접해 있던 부평깡시장도 인천 각지에서는 물론 김포, 검단, 영등포 일대에서도 장을 보러올 정도로 큰 시장이었지만, 1994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 생기고, 2001년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깡시장이 축소되었고 그 자리에 건영캐슬아파트가 생겼다. 이렇듯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현대화된 쇼핑문화가 젊은 세대를 불러 모으고 온라인, 홈쇼핑의 등장으로 전통 재래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일상회도 예전보다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50년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생긴 단골손님들과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 사랑방 역할을 겸하고 있다.

열 두 번 째 만 남

영광상회

최고의 건어물을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

새벽 6시면 진홍종합시장에 자리한 '영광상회' 매장의 불이 켜진다. 도매업도 겸하는 영광상회가 전국각지에서 모은 맛있는 건어물을 인천의 소매점으로 납품하는 시간이다.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은 김호섭 대표와 그의 아내가 함께 건강하고 품질 좋은 건어물을 부지런히 구매·판매해오고 있다. 건어물은 저장과 운반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사용된 먹거리다. 냉장 시설이 잘 안되었던 시절 어패류의 공급원으로 건어물이 자주 이용되었다. 명태를 말린 볶어는 제사상에 필수



▲ 진홍종합시장의 영광상회(위) / 영광상회 건어물(아래)

로 올랐던 음식이었고, 북어포나 대구포는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애용되었다. 특히 조기를 말린 굴비는 고급 반찬 취급을 받았다.

영광상회를 처음 개업한 김호섭 사장은 전라남도 영광이 고향이다. 부평 미군기지에서 일하였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장사하기로 결심하였다.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해서 팔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고향 근처의 '목포역'을 떠올렸다. 그 후 건어물을 봇짐에 담아 목포역과 서울역을 오가며 1년 동안 장사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품목은 건어물로 굳어졌다. 부평 굴포천이나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에서 오징어와 같은 건어물을 파는 노점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구청의 노점단속으로 장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홍종합시장이 문을 열자, 그동안 모은 종잣돈으로 4평짜리 조그만 가게를 얻었다. 1971년에 고향의 이름을 따서 '영광상회'라고 상호를 정했으며, 진홍종합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건어물 가게가 되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되었다. 영광상회를 개업하기 이전부터 쌓아온 정보와 인맥으로 옮기로 중부시장에서 신선한 건어물을 구해왔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 대관령 황태포도 김호섭 대표가 발품을 팔아 판로를 개척한 상품이다.

영광상회는 지금도 주변 시장과 소매점에 건어물을 공급하는 중간 도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김낙현 사장 또한 판매하는 건어물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곁에서 일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좋은 품질로 신뢰를 쌓은 거래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력 상품은 오징어채와 미역, 김 등이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견과류 등의 건강식품도 판매하고 있다. 시장을 다니며 영광상회, 청주떡집, 부안닭집처럼 지명이 담긴 상호를 살펴보면 전국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평시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세 번 째 만 남

은성상회

가장 일찍 깡시장의
불을 밝히고,
오랫동안 켜놓은 가게



▲ 부평깡시장 입구

부평깡시장의 '깡'은 경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큰 경매장이 있었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수원, 강화, 안산, 시흥에서 온 상인들이 각종 채소와 과일을 사갔다. 1994년 구월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기고, 1995년 삼산동에 인천 제2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면서 깡시장의 경매기능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제 경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주로 판매하는 170여 개의 노점을 포함해 360개 도·소매상인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요 품목은 채소·청과 등이며 현지에서 바로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품 회전율이 높고, 신선하고, 가격이 싸서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봄에는 새순이 돋은 두릅 등 봄나물, 여름에는 고추와 마늘, 가을은 김장거리 배추와 무, 겨울에는 월동 배추와 무 등 사시사철 신선한 채소를 판매하고 있다.

1996년부터 채소를 판매해오던 김명수(1958년생) 씨가 2000년 8월 부평깡시장 내에 도소매를 겸하는 은성상회를 개업하였다. 도매시장이 가진 특성 때문에 20여 년간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고 있다. 자정 무렵에 가게 문을 열고 새벽 1시~2시 사이에 지방에서 각종 채소류를 실은 차들이 들어오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채소와 과일 상자들을 품목별로 잘 정리해 놓는다. 새벽 3~4시쯤에는 주로 부평, 김포 등지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소규모의 전통시장 상인이 도매가로 물건을 사간다. 중·대형 식당처럼 바빠서 못 오거나 오랜 단골의 경우 전화주문을 넣어주면 무료로 택배 배달을 해주고 있다. 신선한 물건과 친절한 서비스로 한번 찾은 손님은 꼭 다시 찾아 단골이 된다는 김명수 사장은 "정직은 어디서나 통한다. 오직 진심 하나로 고



▲ 부평문화의거리

객들을 맞이했고 고객과의 보이지 않는 끈끈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라며, 고객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오전 9시가 되면 도매 장사를 마무리하고 부인과 아들이 오후 7시까지 소매 장사를 하기 위해 출근한다. 도소매를 겸하기 때문에 부평시장을 통틀어 가장 일찍 시장의 불을 밝히고 오랫동안 불을 켜놓는 가게가 되었다.

답사활동

01 오래된 가게를 찾아 부평사람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설명해 보자.

김용기명과

- 밀가루에 달걀과 설탕을 넣어 만든 반죽을 틀에 넣고 구워 만든 대표 과자는?
- 30~40대가 부모님들께 사드리기 위해서 과자를 사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삼천리성안점

- 시대별로 주로 사용되었던 자전거의 용도에 대해 말해 볼까요?
① 1950년대 ② 1960년대 ③ 1970년대 ④ 1980년대 후반

용방앗간

- 최근 용방앗간에서 떡을 많이 하지 않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볼까요?
- 계절별로 빵아주거나 만들어 주고 있는 품목을 이야기해 볼까요?

남창문구사

- 처음에 문구류를 팔기로 결정한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해 볼까요?
- 남창문구사를 운영하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는지 말해 볼까요?

복화루

- 복화루 가업과 관련이 깊은 학교는 무엇이었는지 말해 볼까요?
- 복화루에서 가장 맛있는 대표 메뉴가 무엇인지 검색해서 알아 볼까요?

대신모자

- 모자를 쓰는 이유에 대해 말해 볼까요?
- 1960년대 이후 많이 팔린 모자들을 시대별로 말해 볼까요?

차밍

- 판매할 옷을 어떻게 구매해 왔는지 발표해 볼까요?
- 나의 개성(또는 옆에 있는 친구)이 무엇인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볼까요?

국수노점

- 길거리 노점 생활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발표해 볼까요?
- 부평문화의거리가 조성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발표해 볼까요?

만수주단

- 만수주단 주변에 다른 한복집과 커튼 가게들을 찾아보자.
- 평리단길에 어떠한 종류의 상점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해 볼까요?

신도매고기시장

- 많은 사람이 매장을 찾은 이유를 한가지씩 찾아 서로 발표해 볼까요?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장단점을 비교해 발표해 볼까요?

신일상회

- 혼자 자취를 한다면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10가지를 작성해 발표해 볼까요?
- 재래시장을 위축시킨 새로운 쇼핑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해 볼까요?

영광상회

- 건어물을 한가지씩 골라 어디에서 주로 생산되는지 검색해 발표해 볼까요?
- 지명(地名)으로 된 시장 상점의 이름을 조사해 고향이 어디였는지 발표해 볼까요?

온성상회

- 부평깡시장의 뜻을 알아보고 주요 기능이 사라진 이유를 발표해 볼까요?
- 요즈음 주로 판매되는 채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절별 주요 품목을 조사해 발표해 볼까요?

02 많은 사람이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향후 재래시장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발표해 보자.

03 오랫동안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물건 3가지를 정해 보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고등학교 한국지리 : 상업의 입지와 변화
- 고등학교 경제 : 시장과 경제활동

■ 활동목표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교과서)과 이번 답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상업의 입지와 변화)과 이번 답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하기

교과서의 내용	
답사활동 내용	

- 활동2 : 경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시장의 의미와 종류)과 이번 답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연결하여 작성하기

교과서의 내용	
답사활동 내용	

생각해 볼 거리

부평의 오래된 가게들은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급격한 부평 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 시기 에 장사가 잘되던 호시절을 누리기도 했었지만, 사회변화와 새로운 쇼핑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가게가 끝내 문을 닫기도 했지만, 손님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팔겠다는 신념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왔다. 부평의 오래된 가게들은 이처럼 시대를 극복하거나 변화하며 부평의 역사와 부평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 오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익숙한 학생들은 재래시장이 매우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부평의 오래된 가게를 찾아가는 길은 부평의 시간과 변화 그리고 기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가게들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재래시장이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부평문화의거리, 평리단길 등 새로운 시장 변화에 관심을 둔다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부평역사박물관, 2020, 삶의 터전, 부평시장 I II,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 서8
- 국립민속박물관, 2020,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 팝니다
- 부평사편찬위원회, 2021, 부평사3-2권, 부평의 산업과 사회
- 정진오, 2015, 세월을 이기는 힘 오래된 가게, 한겨례출판

인터넷 자료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인천in <http://www.incheonin.com/>

5-2

'이어가게'를 아시나요?

전통 | 산업 | 사회변화 | 문화 | 공동체

체험코스

① 중앙치과 → ② 한양지업사 → ③ 용신상회 → ④ 대동학
생백화점 → ⑤ 신신옥 → ⑥ 성광방앗간 → ⑦ 의흥덕양화점
간 → ⑧ 양지사 → ⑨ 신성루 → ⑩ 수인상회 → ⑪ 평양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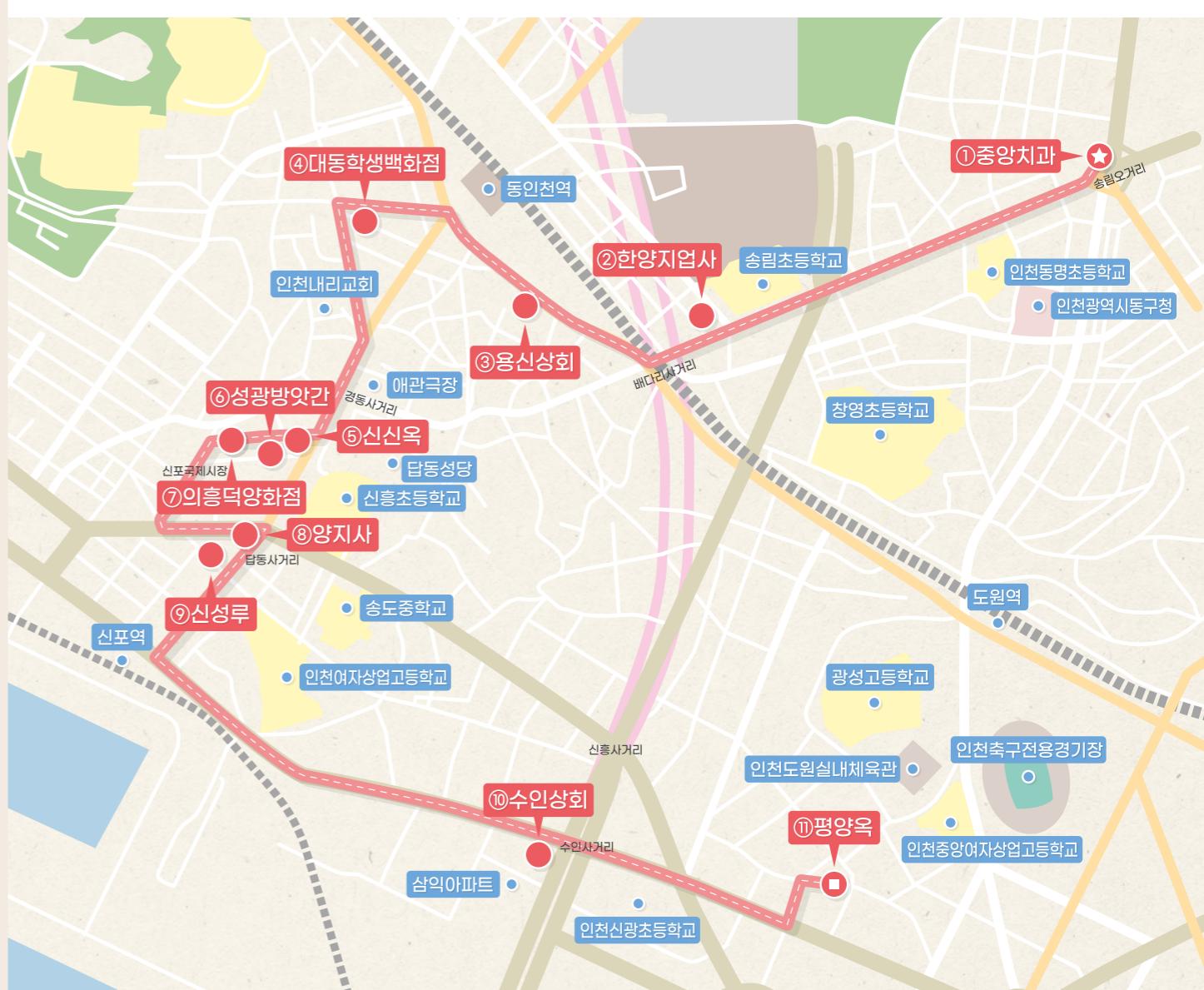
총거리 4.55km
도보시간 1시간 30분, (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3 문학에 담긴 어제와 오늘
사회 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도덕 2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키워드

#백년 #전통 #추억 #단골손님 #이어가게 #공동체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5-2

‘이어가게’를 아시나요?



유럽이나 일본 못지 않게 가업을 이어오는 가게들이 참 많은 인천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대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가게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어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다. 오래된 가게를 부를 때 보통 노포(老舗)라는 명칭을 많이들 쓰고 있지만 일본식 한자어 표기이기에 시민들의 공모 속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이름이 바로 ‘이어가게’이다.

중·동구 지역과 부평 등 이른바 인천의 원도심에는 이런 터줏대감과 같은 ‘이어가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인천의 오래된 가게를 하나씩 찾아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일 것이다. 또한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www.ito.or.kr)에는 다양한 주제로 인천의 여러 명소나 가게를 소개한 내용이 많으니 참고해 보자.

첫 번째 만남

중앙치과

3대째 이어오는 치과



▲ 중앙치과의 역사

동구 송림동 예전 문화극장 부근에 위치한 중앙치과는 1934년에 개원한, 무려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병원이다. 처음에는 ‘중앙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그 까닭은 초대 원장이신 이시찬 원장이 치과의와 내과의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 이시찬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의 뿐리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인천에 내려와 개원하였다고 한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무료 진료를 해 주어 항상 환자가 봄비었다고 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치과의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고위층 환자들도 많아 일본인들이나 고위층에 연을 대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고 한다.

2대 이익원 원장은 1968년부터 2000년까지 병원 업무를 보셨는데 조금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다. 치과의사이였지만 동시에 공무원이기도 했다. 바로 개원 의사가 되기보다는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방에서 보건소장 업무를 오래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병원을 물려받은 후에도 대한적십자사 병원선을 타기 위해 시간이 나면 전남 목포로 향하곤 했다. 아마도 개인의 영리보다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이 강해 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아닐까 싶다.

현재는 3대 이창수 원장이 진료를 보고 있다. 주변에서는 병원의 이전이나 확장, 기업형 네트워크 등으로 변신을 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다만 “영리를 외면할 순 없지만 조부, 선친에게 배운 것이 있어 앞으로 크게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말에서 그의 우직함을 염볼 수 있다. 과연 4대로 이어져 100년을 넘어가는 ‘백년 병원’으로 탄생 할까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만남

한양지업사

60년 노하우의
인테리어를 만나는 곳

동구 송림로 배다리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한양지업사는 지물포라는 명칭에 맞게 온갖 종이와 최근에는 인테리어, 조명까지 겹하는 가성비 좋은 가게로 이름이 높다. 60년 이상의 노련함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시공의 깔끔함과 꼼꼼함이 돋보이는 가게이다.



△ 한양지업사

세 번 째 만 남

용신상회

성실로 이어 온 100년



△ 용신상회

중구 용동에 위치한 건어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처음의 이름은 ‘용인상회’였으나 1965년 전임 이용기 사장이 믿을 신(信)자를 써서 개명하였다. 다른 가게와 달리 조금 특이한 점은 보통 가업의 개념으로 자식들에게 가게를 넘기곤 하였지만 이 가게는 종업원의 성실함을 보고 가게를 넘긴 특이한 경우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황현구 사장은 1986년 가게의 트럭운전수로 입사하여 이 가게와 인연을 맺었다. “새벽 2~3시에 일어나 서울로 가 건어물 박스를 가득싣고 아침이 되기 전 돌아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는 말에서 성실함으로 이어온 가게의 전통을 염볼 수 있다. 대형마트의 탄생과 인터넷 판매, 건어물 수요에 대한 전체적 감소 등 여러 악재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또래 사람들이 정년퇴직 등으로 다른 일을 찾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한다.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성실한 모습을 배워 뿌듯하다는 말과 함께 성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는 사장님의 말씀은 꼼수나 잔머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한때 화재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워낙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어서 주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가게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가게 건너편에는 영화 ‘극한 직업’과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한 일명 배다리 헌책방 골목이 위치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네 번 째 만 남

대동학생백화점

인천 문방구의 대명사



△ 대동학생백화점의 전경

7~80년대에 태어난 이들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문방구의 대명사와 같은 곳이 대동학생백화점이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으레 찾아가 신학기 문구류를 잔뜩 사 오던 이곳은 1959년에 문을 열었다. ‘부평에는 칠성문구사, 동인천엔 대동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학생 물품이 없는 것이 없던 곳이다. 특히 미술을 전공하던 사람들에게 학교 앞 작은 화방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동인천역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 원편(현재 대동학생백화점 맞은편에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다.)에 있는 이곳은 그 시절 동인천역 앞 대한서림, 동인서관과 함께 학생들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이자 핫플레이스였다. 특히 대동 2층 분식집은 학생들로 늘 붐비던 곳이었다. DJ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노래도 신청하고 썰면이나 우동 등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곳이었다.

지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보다는 기관이나 업체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도매업 중심으로 변모하였지만 아직도 ‘대동’은 4·50대 중장년들에게는 청춘을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이다.

다섯 번 째 만 남

신신옥

진한 멸치 육수의 튀김우동

신포국제시장에 들어서면 구수한 멸치 육수의 냄새가 유혹하는 작은 맛집이 있다. 1958년에 문을 연 신신옥이 그곳이다. 한때는 ‘신신분식’이란 이름의 만두 가게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단출한 메뉴들인 튀김우동, 장어튀김, 물만두, 오징어데침만으로 그 옛날의 기억을 이어가고 있다.

진한 멸치 육수를 바탕으로 튀김가루와 고춧가루, 그리고 다른 가게



▲ 신포국제시장 안 신신육의 외관

의 우동과는 다른 쫄깃한 국수 면발이 자랑인 튀김우동은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이다. 국수 면발은 하얀 면발이 아닌 약간 쫄면에 가까운 면발이다. 그래서 쉽게 퍼지지 않고 쫄깃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가게 안에는 옛날 영화 포스터와 신문 스크랩이 벽면을 가득 채워 이 가게의 역사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 신신육 벽면에 있던 신문 스크랩

여섯 번째 만남

성광방앗간

행복 가득 꿀설기의 맛집



▲ 성광방앗간의 이색 간판

사람들로 가득 찬 신포국제시장의 중심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광방앗간은 1947년 1대 이건석 사장과 그의 부인 김아가다 여사로부터 시작한다. 처음에는 시장 안에 위치한 전형적인 방앗간의 형태로 백설기, 인절미, 가래떡 등 명절이나 잔치 떡과 고춧가루, 기름을 팔았다. 그러나 떡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자 이건석 사장의 막내 아들인 이종복 사장은 시대와 고객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고 질 좋은 떡을 개발하면서 단골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떡은 꿀설기이다. 속에 견과류가 들어있고 낱개로 포장되어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또 이종복 사장은 8~90년대 신포동 일대의 고등학생들에게는 ‘떡집 아저씨’로도 유명했는데 예술가의 포스가 느껴지는 차림새에다 인천의 전통과 향토문화를 알리는 〈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명사이다. 오늘 달콤함과 아삭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꿀설기를 먹어보자.

일곱 번째 만남

의흥덕양화점

여성들의 마음을
홀리는 예쁜 신발



▲ 의흥덕양화점의 모습



▲ 의흥덕양화점의 구슬 꽃신들

중구 신포국제시장 안에 위치한 의흥덕(義興德)양화점은 이름 그대로 서양식 신발을 제작하는 곳이다. 1946년(추정) 화교인 제1대 곡유의 사장은 가업으로 중국식 수놓은 신발을 팔기 시작한다. 귀했던 구두만큼이나 인건비도 비쌌기에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게 된다.

의흥덕양화점은 남성 구두, 여성 구두, 아동화 등의 다양화 수제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 플랫슈즈이다. 이 신

발은 검은색 우단(벨벳)에 큐빅과 구슬로 꽂 수를 놓아 화려함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현대식 꽃신이다. 지금은 제2대 곡덕성 사장의 형수께서 이 작업을 하신다고 한다. 현재 70년대까지의 인기와는 비교할 순 없지만 아직도 그 옛날의 단골손님이었던 분들이 대를 이어가며 찾아주곤 한다.

‘겸손, 친절, 표정 관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손님을 맞이하는 의흥덕 양화점. 그 옛날 화려했던 구슬 신발을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할 곳이다.

여덟 번째 만남

양지사

인천의 지도는 여기에서



▲ 1960년대 양지사의 전경

종이가 귀했던 시절, 필기구가 봇에서 연필과 펜으로 바뀌면서 종이의 수요도 한지에서 서양 종이로 바뀌게 된다. ‘서양 종이를 파는 가게’라는 뜻의 양지사(洋紙司)는 1948년 당시의 변화가였던 본정통(중구 중앙동)에서 지물포를 시작한 후 사업의 번창에 따라 종이류는 물론 일반 문구류까지 취급하며 품목을 다양화하였다.

이후 1961년 국립건설연구소에서 민간용 1/50,000 지도를 발행하는 소식에 창업주 최용주 사장은 지도 판매 대행점 허가를 따내게 된다. 그 후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천에서 지도를 구하려는 사람은 양지사를 이용해야만 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지도 제공 서비스를 받지만 당시만 해도 건설업이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도는 꼭 필요한 물품이었다. 지금도 부동산에 가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지도를 볼 수 있지 않은가?

‘믿음과 신뢰’라는 장사의 기본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어오던 그 명성도 어쩌면 곧 사라질지 모른다. 현재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하시던 딸과 사위, 두 노부부에게는 넓은 매장의 관리와, 이제는 사양산업이 되어 버린 지도 판매가 벽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만남

신성루

짬뽕 국물의 내공 그대로

1947년에 창업된 신성루는 중구 답동네거리에 위치한 중화요리점이다. 입구는 사동 쪽과 신포동 쪽으로 두 군데가 있다. 그 입구만 보면 허름하기 짝이 없고 작아 보이지만 안으로 중국 도자기와 그림들, 그리고 길게 뻗은 복도를 사이사이의 룸과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은 소모임을 하기에 딱인 곳이다.



▲ 신성루의 사동 방면 입구 모습

중국 산동성 출신 화교인 제1대 장적방 사장에 이어 지금은 2대 장덕영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삼선고추짬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미식회에도 소개된 짬뽕의 맛은 도저히 다른 곳에선 맛보기 어려운 진하고 구수함, 뒷맛의 깔끔함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찾는 이 집은 그 옛날의 수동식 도르레가 있어 1층의 주방에서 2층 식당으로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곳이기도 하다.

‘정성’이 가득한 음식과 늘 웃는 모습으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곳은 심심찮게 50년 이상의 단골손님들을 만날 수 있는 추억 가득한 곳이다.

열번 째 만남

수인상회

고소한 참기름 냄새 가득한 수인역의 그곳



▲ 수인곡물시장 입구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께는 ‘수인역’이라는 명칭으로 더 알려진 중구 신흥동 2가 수인곡물시장. 이곳 수인곡물시장은 선로 폭이 좁은 협궤열차를 이용했던 수인선의 종착역이었다. 궤간 간격이 76.2cm(열차 표준 궤간 거리는 143.5cm)에 불과했던 수인선은 일제가 소래, 남동, 군자 등지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수산물을 수탈하기 위해 부설한 선로이다. 사람과 물자가 몰리던 이곳에 시장이 열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이곳에 자리 잡은 수인상회는 6·25 전쟁 이후 좌판을 깔고 미곡 장사부터 시작한다. 1대 안계득 사장의 두 가지 철학, ‘한 번 거래를 튼 가게와는 큰 일이 없는 한 계속 거래한다.’와 ‘마친 은 남지 않아도 재고는 남기지 않아야 한다.’를 바탕으로 싸고 질 좋은 곡물로 번창하기 시작한다. 이후 미곡매매업 신고제로

열 한 번 째 만 남

평양육국물이 개운한
해장국이 일품

▲ 평양육의 일품 메뉴 해장국

대형마트와 경쟁하며 위기를 맞지만 짧은 유통 과정으로 물건을 값싸게 팔면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지금도 묵묵히 기름과 견과류, 곡물을 취급하며 단골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중구 신흥동 3가 도원축구전용구장 근처에 위치한 평양육은 1945년 만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부부가 재산을 빼앗기자 인천으로 와 작은 가게를 열게 된 것이 그 시작이다. 지금은 2대 사장을 거쳐 3대 사장이 1991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평양육의 최고 음식은 뛰니뛰니해도 시원한 국물의 해장국이다. 인천에서 '국밥집'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해장국 때문이다. 50년이 넘게 거래하고 있는 인영정육점에서 고기를 납품받아 육수를 18시간 깊게 우려내고 신선한 식재료를 농산물시장에서 공수해 오는 것이 그 비법이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많은 노동자와 손님을 위해 아침 5시에 문을 여는 평양육은 분점을 내자는 많은 유혹에도 맛이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도 손수 음식을 만들고 있다. 이른 아침 평양육에서 따끈한 해장국과 부드러운 우거지로 아침을 여는 맛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답사활동**01** 네임 카드 완성해보기**문제 1**

- Q1. 신성루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다.
Q2. 일반적인 짬뽕이 아니야.
Q3. 갖은 해물과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지.

내 이름은 () 이야.

문제 2

- Q1. 신포국제시장 안에 있어
Q2. 서양식 신발을 만드는 곳이야.
Q3. 꽃신으로 유명한 곳이지.

내 이름은 () 이야.

문제 3

- Q1. 동인천역 근처에 있어.
Q2. 어마, 아빠가 학생 때 자주 오던 곳이야.
Q3. 문구용품이나 미술용품을 파는 가게야.

내 이름은 () 이야.

문제 4

- Q1. 수인선하고 관련이 있어.
Q2. 윤후명의 소설 제목이기도 해.
Q3. 다른 열차보다 궤가 좁아.

내 이름은 () 야.

문제 5

- Q1. 성광방앗간과 관련이 있어.
Q2. 백설기의 형태야.
Q3. 떡 안에 꿀과 견과류가 함께 있어 달콤, 아삭하지.

내 이름은 () 야.

문제 6

- Q1. 아마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치과일걸?
Q2. 동구에 위치하고 있어.
Q3. 3대째 내려오는 치과야.

내 이름은 () 야.

02 SNS로 이어가게 소개하기

답사한 가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가게의 이름과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또 그 가게를 소개할 때 사용할 해시태그를 5개 이상 써 보자.

가게 이름**인상 깊었던 이유**

해시태그

답사 후 학습활동

생각해 볼 거리

관련 단원

- 중학교 사회 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 중학교 도덕 2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활동목표

- 도시 개발로 나타나는 이로운 점과 문제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도시 균형 발전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 도시 균형 발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도시 균형 발전의 조건
 -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나는 원인 찾아보기
 - 원도심 마을 재생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 활동2 : 전통을 이어가는 가게
 -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전통과 역사를 가진 가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 구옥을 개조한 가게 인테리어 만들어보기
 - 원도심에 가게 창업 상상해보기

흔히 ‘노포’라고 불리는 오래된, 전통 있는, 역사 깊은 가게들은 대부분 예전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다. 외국을 보면 100년을 넘어 몇 대째 가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 우리는 프랜차이즈와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신흥 맛집들이 꽤나 많은 편이다. 과연 이런 신흥가게들과 ‘이어가게’들과의 차별점을 둘 수는 없을까?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 속에서 아마 오래된 가게들의 문제점과 개선점, 발전 방향들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와의 호흡,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지금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창업에 대한 생각, 차별화를 하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수업 활동이 되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자리교사연구회 「터사랑」, 2005, 인천땅 ‘이만큼 알기’, 다인아트
- 강덕우 외, 2010, 인천역사문화총서61, 인천상식문답,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 장양기 외, 2015, 인천사랑 테마형 체험학습 길라잡이, 인천시교육청

인터넷 자료

- 인천광역시 동구청 www.icdonggu.go.kr/
- 인천일보 www.incheonilbo.com
- 인천시 인터넷 신문 I-view
- 인천 in www.incheonin.com
-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 인천관광공사 www.ito.or.kr

P A R T

06

항만도시 인천

6-1 새롭게 변화하는 항만도시 인천

6-2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 인천



6-1

새롭게 변화하는 항만도시 인천

지리 | 역사 | 교통

체험코스

① 인천역 → ② 인천내항8부두 → ③ 인천내항재개발 열린홍보관 → ④ 신포역

총거리 4.0km

도보시간 1시간 10분, (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사회 1. 우리 고장의 모습

4학년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4학년 사회 3.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5학년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키워드

#항만도시 #8부두 #1부두 #홍보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내항 #인천내항재개발사업 #사일로슈퍼그래
픽 #곡물창고 #갑문 #신포역 #수인선 #신포국제시장



6-1

새롭게 변화하는 항만도시 인천



관광과 물류의 허브로 거듭나는 미래 도시의 중심 인천역과 인천항

인천역과 인천항은 인천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적인 교통과 물류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과 최초의 종점역인 인천역을 시작으로 부두의 역할을 넘어 스마트팩토리, 복합레저단지를 꿈꾸는 인천내항까지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최초의 철도역 중 하나로 시작된 인천역은 근대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수인선 수원 ~ 오이도 구간 개통으로 분당선과 직결됨에 따라 인천과 다른 도시를 잇는 종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역은 역 부근의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월미도 등 인천의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발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 내항의 8부두 홍보관을 통해 변화해가는 인천내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홍보관에서 갑문의 과학적인 원리와 인천내항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송도와 청라 뿐 아니라 중구에도 새로운 관광 및 주거지구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코스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항만도시 인천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것만으로도 내 고장 인천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만남

인천역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지나는 기차역



▲ 인천역사 전경



▲ 인천역 주변 관광지도(위)

인천역 과거사진(아래)(출처 : 인천광역시 블로그)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시발역이자 수도권 전철에서 가장 오래된 역이다. 1900년 5월 건평 91평의 역사(驛舍)에서 운수영업을 시작했으며, 현재의 역사는 1960년 6월에 신축된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건평 774.9㎡이다. 특히 인천역은 여객 취급 설비라기보다는 인천항을 통하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부두를 따라 선로가 부설되어 있어, 전용선(專用線)·지선(支線)을 포함하여 총 1,315량의 화차(貨車)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내(構內)가 넓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에 있는 인천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의 동시 시·종착역이자 환승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인철도는 1897년 3월 22일 인천에서 착공하여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인천역을 연결하였으며, 인천역은 경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역으로, 한국 최초로 생긴 8개 철도역 중 한 역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그리고 서울 지하철 최초의 노선

수도권 전철 1호선 둘 다 최초의 시발역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인천역은 경인선 일반열차(비둘기호)가 다니던 시절인 1960년에 지어진 건물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수도권 전철역답지 않게 간이 역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역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인선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의 시종착역이며 1호선의 경우 대한민국에는 드문 두 단식 승강장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지역을 하인천, 동인천역 일대를 상인천이라고 불렀으며, 1948년 6월 1일에 인천역으로 역명을 환원하였다. 1950년 6월 30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역사가 소실되었으며, 1960년 9월 17일에 현 역사가 준공되었다. 2020년 9월 12일 수인선 수원~오이도 구간 개통으로 분당선과 직결이 되어 수인·분당선이 되면서 역 번호가 K264에서 K272으로 변경되었다.

인천역 주변에는 인천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자유공원, 인천중구청, 월미바다열차, 인천항 등 관광자원이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편이다. 한국에서 차이나타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인천 차이나타운이며, 인천역에 내리면 건너편 현판에 중화가(中華街)라고 쓰인 차이나타운의 패루가 자리하고 있다. 월미도는 그 안에 위치한 놀이동산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두 번 째 만 남

인천항 내항 8부두

인천항 내항 그 변화의 시작



▲ 갑문의 원리

인천항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으로, 부산항, 부산신항과 함께 한국에서 손에 꼽히게 큰 무역항이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요 관문항이자 수도 서울의 외항(外港)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천항은 조선 초기에도 제물포로 불리며 항구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인천항이 본격적으로 항구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로 부산항, 원산항에 이어 세 번째로 개항되면서부터이다.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 항만을 건설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성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개항지로 낙점되었다. 1974년 월미도와 소월미도를 잇는 현대식 갑문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내항 전체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게 되었다.



▲ 내항 근처에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고차

1883년 일본인 거류지가 설치되고, 1884년 청나라 거류지, 기타 각국 거류지가 설치되었다.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일본인 거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일본인 거류민회의 주도로 앞바다를 매립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역, 인천세관, 만석동 일대 등에서 대대적인 매립이 개시되었다. 1918년 10월 인천항의 이중갑문식 독이 완공되었으며, 동양에서는 최초로 건설된 이중갑문식 독이었다(현 내항 1부두 일대). 비록 갑문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이전보다 하

역 작업이 훨씬 간편해지면서 하역 수수료도 절반으로 줄었다. 또한 경인선과 항만이 직접 연결되면서 수출입액이 부산항 다음가는 대외무역항으로 거듭났다. 인천항은 세부적으로 북항, 내항, 남항, 신항 등으로 나뉘는데 동시에 126척까지 접안이 가능하다.

갑문이란 최대 10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24시간 가능하게 한 선거의 출입문을 말한다.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항구 내부의 수위를 조절하며, 내항 입항을 원하는 선박이 내항 밖 해역에서 대기하다가 항구 바깥쪽 첫 번째 갑문이 열리면 도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항구 밖의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갑문과 갑문 사이의 수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 수위가 높아지면 바깥쪽 갑문을 닫음으로써 안쪽 갑문이 열려 내항과 같은 수위가 유지돼 안전하게 내항으로 이동해 하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갑문은 1974년에 완공되었으며, 완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문식 도크라는 별칭이 있다. 갑문 입구는 월미도 남쪽 인천해사고등학교 인근에 있으며 갑문 관리는 인천항만공사가 맡고 있다.

인천항 내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자동차, 양곡, 잡화를 취급하는 항만으로 인천항 갑문을 통해 들어간다. 특히 갑문이 있어서 파도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선박들의 피해가 되기도 한다. 인천광역시 측에서 신포역 인근의 1부두와 월미도 입구 인근 8부두를 개방했으며 추후 원도심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세 번 째 만 남

인천내항재개발 열린홍보관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청사진



▲ 1·8부두 미래 사진



▲ 홍보관 전경

인천역 앞에 위치한 인천항 제8부두는 제1부두와 함께 철재와 목재 등을 하역하던 장소였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으나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인천 개항장 곳곳을 누비는 ‘인천 개항장 골목 버스투어’가 시작됐으며, 인천항 제8부두 임시주차장에서 출발해 동화마을과 차이나타운, 제물포구락부, 신포시장 등을 운행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인천항 재개발 사업 인천 원도심 관련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인천항은 대규모 항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계속된 용량 포화에 시달려왔다. 이에 지속적으로 신항만 건설 및 기존 인천항의 기능 축소 요구가 있었고, 이에 인천시는 인천 신항을 건설하고 인천 내항을 재개발하여 인천광역시 구도심 지역(중구)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자 한다. 한적한 어촌이었던 인천항은 1883년 개항 이후 조선대외무역 50%까지 성장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아픔을, 한국전쟁 때에는 인천상륙작전의 본거지로, 산업화 시대에는 수출기지로 국가발전 도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천내항의 경우 송도 신항이 개발되고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화물처리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내항의 하역작업 및 화물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공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계속되었고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인천내항을 5가지 특화지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5대 특화지구는 도심형 리조트와 월미산을 연계하고 글로벌 관광 클



▲ 홍보관 내부



▲ 사일로 슈퍼그래픽

러스터로 육성하는 관광여가지구, 해양역사와 문화를 테마화하고 체험형 도심 관광 명소화를 기획하는 해양문화지구, 신규일자리 창출 거점화 및 복합용도 개발로 효율을 제고하는 복합업무지구, 스마트팩토리 산업단지화 및 점진적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혁신사업지구, 매립형 수변 정주공간화 및 산업유산을 보전한 수변공원을 건립하는 열린 주거지구로 구성되어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지역을 글로벌 해양문화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5,003억을 투입해서 42만 8천㎡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인천항 내항에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4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8부두에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 홍보관이 설치되어 인천내항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홍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보관은 1층 홍보관, 2층 홍보관 및 다목적실, 3층 휴게공간 및 포토존, 옥상전망대로 구성되어있다. 홍보관은 인천내항의 역사와 갑문의 원리가 전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대여 가능한 다목적실 공간이 조성되어있다. 3층은 인천 내항의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휴게공간과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으며 옥상전망대에 오르면 인천 내항 전경과 중구의 명물 사일로벽화를 볼 수 있다.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4-251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람일은 화요일~토요일(월, 일요일 휴무)로 관람시간은 10:00~17:00이다.

인천항 7부두 사일로는 건립 40년이 지난 거대한 회색빛 콘크리트의 투박한 시설이었으나 슈퍼그래픽 사업을 통해 인천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고 2018년 11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벽화'로 등재됐다. 이 사일로는 길이 180m, 너비 32.5m, 높이 48m, 둘레 525m, 외벽 면적 25,000m²로 기네스북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순수 외벽 면적 23,688.7m²로 기록됐다. '인천항 사일로 슈퍼그래픽'은 2019년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FINALIST)을 수상했다.

네 번 째 만 남

신포역

신포국제시장과 수인선을 이어주는 지하철역



▲ 신포역 외부사진



▲ 수인선 노선도(위) / 신포시장 외관(아래)

신포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선의 복선전철화 과정에서 신설된 역이다. 공사 당시 가칭은 인근에 위치했던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따온 국제여객터미널역이었으나, 이후 역이 위치한 신포동과 신포닭강정으로 유명한 신포국제시장을 고려해 신포역으로 역명이 확정되었다. 신포역 공사 당시 이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송도 통합 이전이 계획 중이었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신포국제시장도 도보로 5~10분 정도로 가까워 역명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월 27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2020년 9월 12일 수원~오이도 구간의 개통으로 분당선과 직결운행을 개시하였다. 특히 2번 출구의 외관은 신포역 근처에 위치했던 인천세관부속창고를 모델로 디자인하였으며, 출입구뿐 아니라 환기구와 엘리베이터 입구도 비슷한 형태를 지닌다.



▲ 개화산책 스템프 투어사진

신포역 부근에는 신포국제시장과 인천항 제 1부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도 있었으나 지금은 연안부두에 있던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합쳐 송도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했다. 신포역과 약 400m 떨어진 곳에 신포지하상가의 종착점인 담동사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인천역에서 시작된 총 연장 600m의 동인천역 지하광장~중앙로지하상가~신포지하상가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신포역까지 지하상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포지하상가가 연장되면 동인천역에서 지하로 걸어서 신포역까지 갈 수 있다.

신포국제시장은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개항이 시작되기 전에는 '터진개'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개항 이후에 '새로운 항구'를 의미하는 '신포'라는 이름을 얻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신포시장'에서 '신포국제시장'으로 개칭하였으며, 시장 내 쉼터에 조성된 푸성귀 시장 조형물을 보면 19세기 말 과거의 시장 풍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푸성귀전 안에는 20여 개의 채소가게가 있었는데 주로 중국인 화농들이 일본인 고객에게 양파, 당근, 토마토, 피망 등의 새로운 채소를 팔았다. 푸성귀전 외에도 어시장에서 기존의 상인들과 일본인 상인들이 경쟁을 벌이며 점차 거대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개항기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인천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으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모두 인정받은 시장이다.

신포역 인근에는 인근에 자유공원, 담동성당, 홍예문, 차이나타운 등 관광지가 많아 코스를 짜서 둘러보기 좋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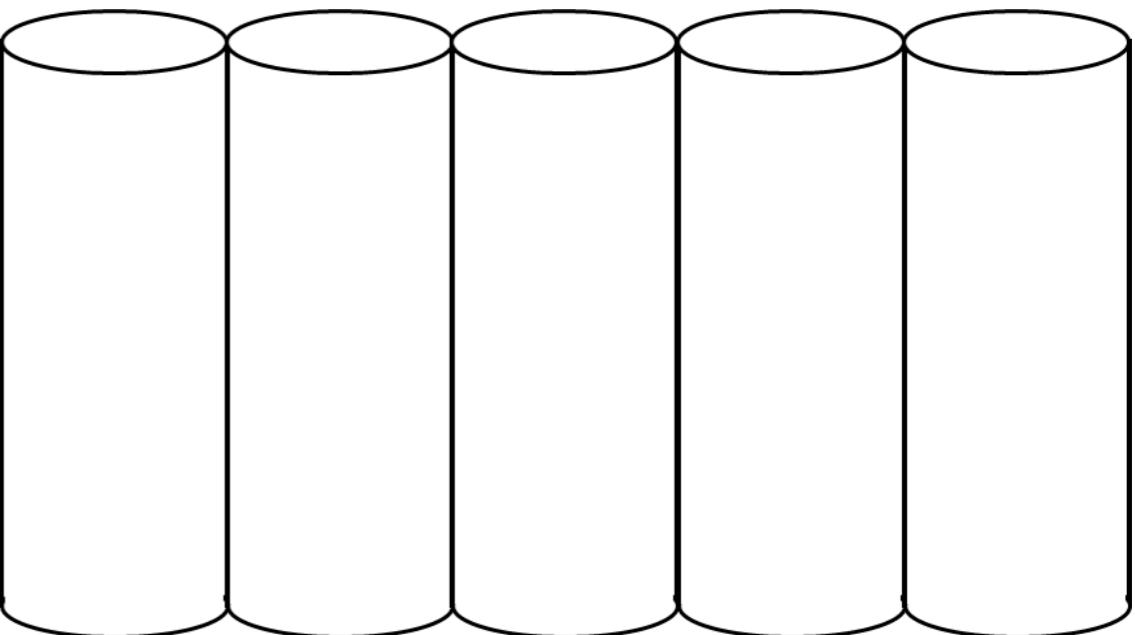
족이라면 신포국제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화산책 스템프 투어' 코스 5곳(트릭아트스토리-짜장면박물관-인천개항박물관-눈꽃마을-신포 국제시장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화산책 스템프투어 코스대로 여행하며 리플렛에 스템프를 찍으면 마지막 코스인 신포국제 시장 지원센터에서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답사활동

01 다음은 인천역과 인천내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O, X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인천역은 수도권 전철에서 가장 오래된 역이다. ()
2. 인천항은 부산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설된 항구이다. ()
3. 인천내항에서 항만재개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부두는 2부두, 8부두이다. ()
4. 갑문은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수위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만들었다. ()
5. 예전에는 인천역 일대를 상인천, 동인천역 일대를 하인천이라고 지칭하였다. ()
6. 인천항은 크게 북항, 남항, 서항, 동항으로 나뉜다. ()

02 기네스북에 오른 7부두 슈퍼그래픽 벽화처럼 나만의 곡물창고를 디자인해 봅시다.



답사 후 학습활동

생각해 볼 거리

관련 단원

- 초등학교 3학년 사회 1. 우리 고장의 모습
- 초등학교 4학년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활동목표

-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를 말할 수 있다.
-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아 정리할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장소의 의미 이해하기
 - 장소의 의미 알기
 - 사진의 장소 이야기하기
- 활동2 : 우리 고장의 장소 살펴보기
 - 내가 조사하고 싶은 장소 탐색하기
 - 친구들에게 내가 조사한 장소 공유하기
 - 친구의 발표를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기
- 활동3 :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찾아 정리하기
 - 우리 고장의 주요장소를 정리할 기준 정하기
 -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우리나라 개항과 철도의 시작이자 근대적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인천역은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역으로 여객 수요가 크지 않고 해외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석탄을 전국 각지로 보내는 역할이 가장 크다 보니 점점 구도심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1979년 일 평균 이용객이 최고치인 21,543명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도 2만 명 선을 찍었으나 1979년의 기록을 넘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여 2020년 기준 15년 전인 2004년의 1만 명 선마저 붕괴되었다. 2020년에는 1호선과 수인 분당선의 이용객 수를 합쳐도 7,315명으로 줄어들어 아쉬

움을 감추기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인천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아트플랫폼과 가깝고, 근대 개항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인천역의 모습은 아직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인천내항 1,8부두를 시작으로 상상플랫폼과 변화되는 내항의 재개발로 중구에도 청라와 송도 못지않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조민선 외, 2012, 선생님과 떠나는 즐거운 인천 여행, 인천남부교육지원청
- 장양기 외, 2015, 인천사랑 테마형 체험학습 길라잡이, 인천시교육청
- 이영민, 2005, 『경인선 철도와 인천의 문화지리적 변화』, 인천학 연구 제4호
- 인천지리의 재조명, 2014, 인천역사자료관
-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계획, 2021, 인천항만공사

영상

- 인천광역시 youtube. 사일로 슈퍼그래픽 작업 2018.10.16,
- YTN, 근대화의 상징 인천역, 117년만의 변신 2016.08.10.

인터넷 자료

- 인천항만공사 <https://www.icpa.or.kr/>
-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 통계자료실 <https://info.korail.com/>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 <https://www.icjg.go.kr/tour/>
- 나무위키 <https://namu.wiki/>
- 인천시 인터넷신문 <https://enews.incheon.go.kr/>

6-2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 인천

지리 | 문화 | 교통

체험코스

①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 → ② 연안여객터미널(옹진행)
→ ③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 → ④ 역무선부두 → ⑤ 역무선방파제 등대

총거리 2.8km
도보시간 4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 3학년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 3학년 사회 3.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 4학년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 6학년 사회 3.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키워드

#항만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 #러시아 #연안부두
#연안여객터미널 #해룡이 #해린이 #해벗이 #빨간등대
#역무선부두 #옹진 #제주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6-2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 인천



서해의 섬을 잇는 새로운 무역의 중심 인천항

연안부두로 인천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개항과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연안부두는 과거 100여 개의 인천의 섬들은 물론 제주도와 해외까지 연결하는 국제항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송도의 국제여객터미널이 해외 운항을 담당하면서 제주행과 옹진행의 항로만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저렴하고 싱싱한 수산물들을 제공하는 인천종합어시장과 분수대와 동물원을 포함하는 친수공원, 해양 전망대 타워, 한려 교류의 기념물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까지 관광도시 인천으로서의 새롭게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인천항과 서해 도서지역, 제주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인천항의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이해하고 인천시민으로서 고장에 대한 역사적인 자부심을 고취하여, 역사교육과 마을교육을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만남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인천에서 만나는
러시아 문화



▲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입구

2011년 10월 14일, 연안부두 해양광장에는 러일전쟁 100주년을 맞아하여 인천광역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가 교류 협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고, 서로에 대한 우호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로의 이름을 딴 광장을 조성하였다. 러시아 도시의 이름을 딴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들을 추모하는 추모비와 마트료시카 인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러시아의 북서쪽에 있는 연방시로써 네바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넬타지대에 형성된 자연 섬과 운하로 인해 생긴 수많은 섬 위에 세워진 도시로써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린다. 러시아 제국의 차르 표트르 대제가 1703년 설립한 이 도시는 1713년 모스크바에서 천도하여 1918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으나, 1918년 수도는 다시 모스크바로 옮겨졌다. 2010년 기준으로 5백만 명이 살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수도 모스크바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모스크바에 이은 러시아의 대공업도시로 복잡



▲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두



▲ 광장 전망대

한 정밀기계(선박, 터빈, 발전기, 엔진 등)의 제조가 특색이다. 또한 인천에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이 있듯 러시아에는 ‘인천광장’이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슈타트에 1,000m² 규모의 인천광장이 개원하였으며, 인천광장의 러시아식 명칭은 ‘인천 스크베르(도심에 있는 작은 공원)’이다. 인천광장은 인천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안내판, 우정의 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인천광역시가 연안부두에 조성한 12,000m²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조성됐다. 인천의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에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 바다에서 일본함대와 전투를 벌이다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한 러시아 바랴크함 승조원의 추모비가 있다. 이 광장에서는 매년 2월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최로 추모식이 열리며, 2013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방문해 전몰장병을 추모했다.

광장의 한쪽에는 야외공연장과 물놀이 시설, 음악분수대가 있다. 물놀이 시설은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며 여름 외에는 일반 놀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음악분수대는 서해를 배경 삼아 가리비, 문어, 섬, 음악, 갈매기, 물보라, 해초를 분수와 조형물로 형상화되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이 환상적인 분수대는 가족들과 연인들로 늘 북적인다.

두 번 째 만 남

연안여객터미널 (옹진행)

서해 도서지역과
인천항의 연결고리



▲ 국제여객터미널 전경(송도)

연안여객터미널(옹진행)은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482.88m²의 크기로 1995년 9월 15일에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총 3층의 건물로 지상 1층에는 매표실, 편의점, 커피숍, 식당, 약국, 물품보관함, 무인민원발급기, ATM, 해상안전체험관

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고객라운지, 선사사무실이 있고, 지상 3층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무실로 자리 잡고 있다.

옹진군의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와 덕적도 등지를 오가는 여객선이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며, 같은 곳에 있던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송도로 이전되었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옹진행)은 백령도, 덕적도, 이작도, 연평도, 육도, 풍도의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제주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로 중단되었던 제주행 여객선이 2021년 12월 10일부터 운항하고 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여객항만이다. 연안여객터미널이 국내 도서지역과의 해운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국제여객터미널은 국외와의 해운을 담당한다. 인천 남항 이전 전에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 있었고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구 사동 인천항 내항 제 1부두 쪽에 있었다. 2020년 6월 15일부터 인천 남항 새 터미널로 이전하였으며 2개로 나뉘어져 있던 터미널이 1개로 통합되었다. 현재는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산둥성 옌타이시,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스다오, 랴오닝성 단둥시 등강, 산둥성 웨이하이시, 산둥성 칭다오시, 중국 텐진시 빈하이, 중국 장쑤성 웠원강시 등 중국으로 가는 선박을 운행 중이며, 반대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일본 방향의 선박만 운행 중이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정식명칭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며(이하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행과 옹진행으로 터미널이 분리되어 있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옹진행)은 오랫동안 연안부두라는 이름으로 인천시민



▲ 연안여객터미널 전경사진 외부



▲ 연안여객터미널 내부

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인천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연안부두는 1960년대 후반에 급증하는 무역량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 내항 개발을 하면서 나온 흙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곳이다. 싱싱한 생선과 젓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천종합어시장과 수협에서 직영하는 회센터,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남항부두와 해수탕이 있어 최근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우렁찬 뱃고동 소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곳인 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 중구의 상징이며 미지의 섬으로 떠나고 싶은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은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사시사철 문전성시를 이룬다. 인천 앞바다 일대는 황금어장이라는 찬사가 부끄럽지 않은 바다낚시 천국으로 불리며, 덕적도, 풍도, 승봉도, 자월도, 이작도, 육도, 삼도, 창서, 부도, 백암, 영홍도를 모두 아우른다. 남항부두는 바다낚시 배들이 출항하는 곳으로, 개인적으로 출조하는 것은 물론 배 위에서 해상 세미나, 캠프, 해양 레포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선박을 빌려 주기도 한다. 연안부두 친수공원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과 마트료시카 인형 조형물, 물놀이 공원이 조성되어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에는 7층 규모의 해양광장 전망대 타워가 있으며, 이 건물에는 팔미도로 가는 유람선 매표소, 카페,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연안부두의 전경과 서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어시장의 활기와 연안 항로를 떠나는 부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연안부두에는 특별히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신세계(2012)’, ‘만신(2014)’, ‘차이나타운(2015)’, ‘시티헌터(SBS)’, ‘아이리스2(KBS2)’, ‘천하장사 마돈나(2006)’, ‘피도 눈물도 없이(2002)’, ‘꾼(2017)’, ‘댄서의 순정(2005)’ 등이 있다.

세 번 째 만 남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행)

인천과 제주를
연결하는 다리



▲ 연안여객터미널(제주) 외부 전경



▲ 인천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선박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옹진행)’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이 위치하고 있다.(이하 연안여객터미널)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88(항동7가)이며, 연면적 1,775m²(터미널 1층 대합실)로 2021년 12월 10일에 운영을 개시하였다.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은 인천항과 제주도를 다니는 수도권 시민, 제주도민 관광객과 기업·화주 고객에 대하여 편리한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의 1층 대합실은 운영사무실과 선사사무실, 선사매표소, 대합실, 수유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수유실겸 유아 휴게실은 기저귀 갈이대,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유아와 보호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훈체어와 목발 대여 서비스도 가능하다.

제주행 승선절차는 출발시간 2시간 전부터 터미널 대합실 1층 매표창구에서 종이 승선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승선권 소지자는 개찰구에서 모바일 승선권 확인 후 종이승선권 없이도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 모바일 승선권 미소지자는 당일 종이승선권을 매표소에서 발급받아 개찰구에 제시해야 하며, 승선권 발급 및 승선 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승선 시 차량, 화물, 자전거의 선적, 일반 승객이 유아, 장애인과 함께 타는 경우 사전에 선사에 문의해야 하며, 인천에서 제주까지 일반적인 이동시간은 13시간이 소요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사랑한 세계인의 관광도시로써 산과 바다, 오름, 돌, 물, 바람에 스민 제주의 멋과 정취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

을 매료시키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을 통해 인천에서도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 휴양관광지, 제주도로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만남

역무선 부두

인천에서 가장 긴 방파제



▲ 역무선 부두 입구



▲ 역무선 부두 벽화

'역무선'이란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주는 예선과 도선을 말한다. 역무선 부두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길이 약 610m의 방파제로 역무선을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축조되었으며, 인천에서 가장 긴 방파제이다. 역무선 방파제는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개방하며,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방파제 중간에는 조위관측소가 있으며 이는 바닷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국가해양관측시설이다. 조위, 수온, 염분, 기압, 기온, 바람 등의 해양관측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해수면 상승감시를 통해 해양레저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역무선 부두는 항만시설이며, 선박의 운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에서 낚시나 채취, 양식을 할 수 없으며, 음식물 취사와 노점판매가 금지된다.

인천항 역무선 부두는 입구에서 등대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 방파제 벽면에는 인천의 명물, 역사, 관광지, 어류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과 각양각색의 산호초,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돌고래, 형형색색의 물고기 등이 등장하는 벽화로 꾸며져 있으며, 바닥면에는 물

고기 형상의 돌의자가 관광객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한다. 역무선 부두 주변 관광지로는 인천종합어시장, 월미바다열차, 인천개항 누리길, 신포국제시장, 자유공원, 인천항 갑문, 월미도 등대길, 한국근대문학관 등이 있다.

다섯 번째 만남

역무선 방파제 등대

인천항을 비추는
빨간등대



▲ 연안부두 등대

바다에 가면 보게 되는 등대와 방파제. 배들에게는 밤 바닷길을 환히 밝혀주는 길잡이로서,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사진 촬영 명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인천 서해에도 무수히 많은 등대가 있지만, 길이 610m로 인천에서 가장 긴 역무선 방파제 끝에 가면, 빨간색의 연안부두 입구 등대를 볼 수 있다. 이 등대의 공식 명칭은 '인천항 역무선 방파제 등대'이며 1994년 12월 30일 망대형 철탑조 형태로 임시 설치되어 최초 점등을 한 이래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지금까지도 부둣가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홍색 불빛을 5초에 한 번씩 반짝이며, 약 15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항해자들이 불빛을 볼 수 있게 비춘다. 등대

를 등지고 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인천대교를 볼 수 있으며,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와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인천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조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역무선 방파제 등대를 2022년 5월의 등대로 선정하였으며, 높이 14m의 홍색 원형 콘크리트 구조로 우아한 곡선과 곧은 직선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등대의 모습을 뽐낸다. 역무선 방파제 등대에 도착하면 인천항의 마스코트인 해룡이와 해린이 동상이 관광객들을 맞이해주며, 관광객들을 위한 QR코드 등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위치 및 기능, 최초 점등일 등 등대와 관련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해룡이와 해린이는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위해 2006년 최초로 개발되어 2012년 한차례 개편된 바 있으며 그간 인천항만공사(IPA)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얼굴 역할을 맡아 왔다. 2022년을 맞아 인천항만공사는 10년 만에 리뉴얼된 해룡이와 해린이 캐



▲ 해룽이, 해린이(2012)



▲ 해룽이, 해벗이, 해린이(2022)

답사활동

01 다음의 질문을 듣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역무선 방파제 등대, 역무선 방파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연안부두, 해룽이와 해린이

1.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길이 약 610m의 방파제로 인천에서 제일 긴 방파제는 무엇일까요? ()
2. 러일전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와 친교를 기념하여 연안부두에 세워진 광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3. 서해 5도를 비롯한 서해의 섬들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이 모이는 이 곳의 공식명칭은 무엇일까요? ()
4. 붉은색 원형 콘크리트 구조로 15km 떨어진 해상에서도 바닷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5. 인천항의 마스코트로 푸른색과 붉은색의 용을 상징하는 이 캐릭터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6. 연안여객터미널의 옛 이름으로 해양광장과 친수공원을 포함하는 이 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02 인천항의 마스코트 해룽이, 해린이, 해벗이처럼 우리 동네를 나타내는 동물 마스코트를 만들어보세요.

우리동네를 나타내는 동물		 예) 해룽이, 해벗이, 해린이
내가 만든 캐릭터 이름		

답사 후 학습활동

■ 관련 단원

- 초등학교 3학년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 초등학교 3학년 사회 3.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 활동목표

-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고장의 환경에 따라 고장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활동

- 활동1 : 고장의 환경에 따른 교통수단 알아보기
 - 고장의 환경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교통수단의 종류 알기
 - 관광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되는 교통수단 알아보기
- 활동2 : 옛 우리 고장에서 사용한 교통수단 알아보기
 - 우리 고장의 특징과 그에 따른 교통수단 조사하기
 - 지역의 특성과 교통수단에 공통점 알아보기
- 활동3 : 우리 고장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안하기
 - 현재 우리 고장의 변화된 환경 알아보기
 - 우리 고장에 필요한 교통수단 조사하고 발표하기

생각해 볼 거리

인천시민들에게 연안부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다. 바로 1979년 연안부두를 소재로 김트리오가 노래한 '연안부두'이다. '연안부두'는 인천시민이 뽑은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대중가요로서 당시로선 세련된 멜로디와 연주로 미국발 디스코를 한국에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9년에 나온 이 노래가 40년 이상 유명세를 치르고 연령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배경은 이 노래가 인천광역시 연고 스포츠팀의 전통적인 응원가로 사용되면서 경기장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팀들(삼미-청보-태평양-현대-SK-SSG)이 이 노래를 응원가로 활용해왔다. 2021년 신세계그룹으로 인천 연고 야구단의 주인이 또다시 바뀌게 됐지만 이 노래가 인천야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 대중가요가 결합되면서 인천의 연안부두는 인천시민들에게는 장소 그 이상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 인천의 문화 유산을 찾아서, 200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200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장양기 외, 2015, 인천사랑 테마형 체험학습 길라잡이, 인천시교육청

영상

- 중구 TV, 인천 중구 투어 코스
-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

인터넷 자료

- 인천항만공사 <https://www.icpa.or.kr/index.do>
- 인천항여객터미널 <http://icferry.or.kr/>
-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 인천시 인터넷신문 <https://enews.incheon.go.kr/>

P A R T

7

스마트 인천탐방

7-1 스마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개항장 일대

7-2 인천 개항장 거리 스마트 탐방



7-1

스마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개항장 일대

역사 | 산업

체험코스

① 인천역 → ② 짜장면박물관 → ③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 ④ 카페 팟알 → ⑤ 중구청 → ⑥ 자유공원

총거리 1.2km

도보시간 30분, (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4학년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3.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5학년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중학교]

기술가정 II. 정보 통신 기술과 소통

역사1 IV.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
VI.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역사2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고등학교]

한국사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
IV. 대한민국의 발전

한국지리 VI.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키워드

#개항장 #조계지 #근대문화유산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e지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7-1

스마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개항장 일대



140여 년 전 개항기의 역동적인 모습을 간직한 인천 중구 일대

인천은 1883년 개항을 통해 서양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국제도시인만큼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다양한 역사 및 문화자원을 곳곳에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조계지가 형성되어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개항기의 격동적인 역사적 물결이 일었던 인천은 그 시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마치 흑백 사진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공간들이다. 최근 뉴트로(새로움의 'New'와 복고인 'Retro'를 합친 신조어)의 열풍을 타고 옛 건물과 경관의 모습을 간직한 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면서 중구 개항장 거리가 인천 뉴트로의 선두주자로 뜨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역사문화 공간들은 인천의 근현대사를 느낄 수 있기에 인천시는 개항의 역사를 살린 스마트 관광도시로서 개항장의 매력을 새로이 알리고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인천역 관광안내소와 '인천e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19세기의 개항장을 21세기의 AR/VR 등의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개항장 일대에는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되며, 어플을 통해 인천시티투어버스 등 개항장 투어 서비스 역시 쉽게 예약 및 결제할 수 있어 스마트폰으로 광범위한 관광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역사자원을 넘어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역사자원으로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있는 개항장의 발자취를 인천e지와 함께 스마트하게 따라가 보자.

첫 번째 만남

인천역

한국철도 탄생역



▲ 한국철도 탄생역'을 알리는 조형물이 세워진 인천역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관광도시 인천

● 인천역 관광안내소 내 대형 AR 스크린(위)과 'AI 맞춤 여행 코스'와 '인천 AR사진관' 서비스 제공하는 터치 스크린(아래)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역으로, 인천역과 차이 나타운 일대가 2021년 7월 1일 부로 북성동과 송월동이 통합 개편된 '개항동'에 포함된다. 인천역 앞에는 '한국철도 탄생역'이라 새겨진 증기기관차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종착역이자 수도권 전철역 중 가장 오래된 역이다. 1897년 3월 22일, 인천에서 착공한 경인철도는 1899년 9월 18일에 인천~노량진 구간이 개통되었고, 이로써 도보로 12시간 걸리던 서울과 인천을 1시간 30분으로 줄이면서 서울과 인천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과 함께 전철역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수인선(수원~인천)이 재개통되면서 노선이 확장되었다. 인천역은 1960년에 지어진 건물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타 수도권 전철역과 달리 간이역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경인선과 수인선의 시발역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개항에 대한 근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행을 안내하는 관광안내소도 인천역에 위치한다. 이곳의 AR사진관에서는 주제별(최초 우체통, 최초 철도 경인선, 모던 걸/모던 보이, 초기 짜장면 배달)로 사진을 촬영하고 QR코드를 통해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AI 맞춤 여행코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AI가 추천

해준 여행 코스는 바로 옆 대형 AR 스크린에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경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층 버스로 운영하는 ‘인천시티투어’의 순환형 노선인 ‘인천 레트로노선’을 통해 개항장으로서의 인천을 여행할 수 있다.

두 번 째 만남

짜장면 박물관

이곳에서 시작된 국민음식



▲ 옛 공화춘 건물인 짜장면 박물관 전경



▲ 공화춘 주방(위)과 짜장면을 먹는 노동자 쿨리(아래)를 재현한 모습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대중음식의 대명사인 짜장면의 원조는 바로 이곳, 인천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공화춘이다. 인천의 개항 이후 중국인의 청국조계 지역이 형성되면서 청관 거리가 조성되고,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 일대에 중화요리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청관 거리는 번화가로 음식점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인 공화춘(共和春)은 ‘공화국 원년의 봄’을 맞는다는 의미로 1912년 문을 열었다. 1890년대를 전후하여 인천의 부둣가는 외국과의 무역이 한창이었다. 배에서 내리고 싣는 물건을 나르기 위해 고용된 수많은 짐꾼과 인력거꾼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산동 지방 출신의 노동자인 ‘쿨리(苦力)’였다. 당시 이들은 별다른 재료 없이 춘장에 수타면을 비벼 즉석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고향의 메뉴인 작장면(炸醬麵, 자장미엔)을 먹었는데, 이를 개량하여 값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 중화요리점을 통해 보급되면서 이것이 한국식 짜장면의 시초가 되었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짜장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음식으

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당시의 짜장면은 주요 재료는 중국산이나 일본의 단무지나 한국의 김치, 서양의 캐러멜까지 첨가되는 다른 국적 음식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항장이었던 도시 자체가 문화융합의 공간이었던 때문이다. 인천은 개항과 더불어 중국, 일본, 유럽의 조계지가 설치되어 각국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짜장면을 식당에서 처음 팔기 시작한 공화춘이 있던 이 건물은 청나라의 건축 양식을 가진 근대 건축문화유산으로, 2006년에 국가 등록문화재 제246호로 지정되었다.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공화춘을 개조하여 2012년 4월 28일, 짜장면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짜장면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국내 최초의 짜장 테마박물관으로 지상 2층 규모에 총 6개의 상설 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짜장면의 유래와 역사, 문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1층에는 1960년대 공화춘 주방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짜장면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박물관에서 짜장면의 역사를 만나고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보면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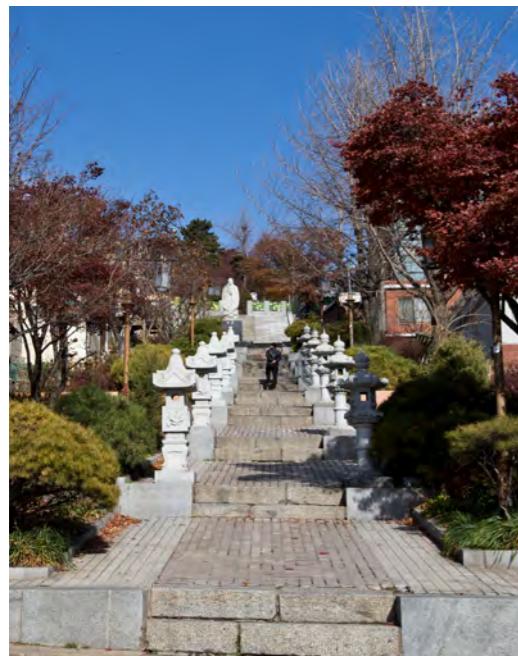
이곳에서는 인천e지 앱에서 오디오 가이드와 해당 장소에서만 구동되는 VR무비인 ‘리얼타임 드라마’를 체험해 보자. 개항장 인천이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던 20세기 초, 인천의 국제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재현한 360° VR무비를 통해 모바일로 19세기 시간여행을 떠나 보자.

세 번 째 만남

청 일조계지 경계계단

이국적인 경관에 담긴
슬픈 역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로, 일본인 거주 지역인 일본조계와 중국인 거주 지역인 청국조계의 경계에 있는 석조 계단이다. ‘조계지’란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이다. 계단을 중심으로 우측의 일본조계는 1883년에, 좌측의 청국조계는 1884년에 설정되어 계단을 사이에 두고 확연하게 다른 청국과 일본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어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계단의 양 옆으로 이어진 좌측과 우측의 석등 역시 모양이 다르다. 한국식 석등은 기본적으로 평면이 팔각형 형태이나 좌측의 석등은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식 석등, 우측의 석등은 옥개석의 맨 끝에 고사리 손처럼 말



▲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위)



▲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앞에서 체험 가능한 파노라믹 AR

려 올라간 궐수가 붙어 있는 일본식 석등의 형태를 보여 역사적인 상징성을 높이고 있다. 이 경계계단은 역사성 및 장소적 측면의 가치가 높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었다. 계단의 좌우로 나타난 이국적인 공간이 당시에는 외부인들이 우리나라의 생활 영역을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경계를 나눈 슬픈 역사가 담긴 현장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자.

계단을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청국조계 지역에 중국 청도에서 기증한 공자상이 세워져 있다. 이 공자상 옆에 서면 인천항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으니 잠시 숨을 고르며 감상해 보자. 올라온 계단을 뒤로한 채 나서면 공자상 뒤편으로 자유공원과 연결된 길이 나온다.

계단을 오르기 전 바닥에 ‘인천스마트관광도시 AR·VR 체험존’이라 표시되어 있다. 이곳에서 ‘인천e지’ 앱을 실행해 오디오 가이드로 현장에서 비대면 도슨트도 가능하다. 또한, 중국식 건축물과 일본식 건축물이 대비되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과거의 모습을 인천 e지 앱의 파노라믹 AR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네 번 째 만 남

카페 팟알 보존의 미학이 담긴 카페



▲ 일본식 목조 건물인 카페 팟알 전경

개항기 일본식 목조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에서 팔죽과 팔빙수, 일본식 나가사키 카스테라를 먹으며 인천의 역사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카페 팟알(Cafe pot_R)은 2012년 8월, 개인이

매입하여 원형복원에 가깝게 보수공사를 마치고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이 건물은 근대 개항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인천항에서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던 하역 회사의 건물로, 건물 입구에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인천의 일본 조계지에 현존하는 근대 일본 점포 겸용 공동 주택의 마치야 양식으로,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에 지어진 3층 규모의 건물이다. 1층은 사무소, 2~3층은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립 초기인 19세기의 모습이 남아 있어 근대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567호로 지정되었다. 인천시 등록문화재 중

유일하게 민간이 소유한 건물로, 독특한 외관은 물론 실내 다다미방, 당시 노동자들의 낙서, 창고까지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하역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 또한 남다르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 적산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패 인지도가 높은 카페이다. 최근에는 인천의 근대 역사를 품은 다양한 굿즈도 판매하는 카페로 변화하여 인천의 옛 모습과 이야기를 간직한 기념품점도 볼 수 있는 ‘솝인솝(매장 안의 매장)’이 되었다. 기념품점에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엽서, 지도, 노트, 자석, 포장지, 머그컵, 텀블러 등 일명 ‘인천 굿즈’로 불리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카페 내부의 한쪽 벽에는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엽서들이 전시되어 있어 옛 인천의 모습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만남

중구청

식민통치기관에서 구민의
품으로



▶ 중구청

인천 중구청은 개항장 거리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주변에 개항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시설들이 많다. 개항 후 일본은 가장 먼저 조계지 내의 일본인을 보호하고자 일본 영사관을 현 중구청 자리에 설치하고,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이른 1883년 10월 31일에 문을 열었다. 일본조계지가 조성된 지역이었기에 지금은 문화관광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현 중구청 주변의 건물들을 일본식 경관으로 정비해 개

항 당시의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구 일본 영사관 건물은 1906년에는 이사청으로,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에는 인천부 청사로 사용되어 부속 경찰서와 감옥을 두어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으로 쓰였다. 광복 이후에는 인천시청으로 활용되다가 시청의 이전으로 1985년부터 중구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의 변천사를 볼 때, 이 지역이 개항 당시부터 인천의 행정 기능을 담당한



▶ 건축 당시 유행했던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한 외관(위)과 중구청 앞 전시 패널(아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개항 당시에 구 일본 영사관 건물은 전부 일본에서 수입한 건축 자재로 지어진 서양식 2층 목조 건물이었다. 이후 1933년에 지상 2층 건물로 신축되었는데 중기난방과 수세식 화장실 등 당시로서는 최신 설비를 갖춘 것이다. 1964년에 3층으로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건물이 발전하였다. 전체적으로 1930년대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특징을 나타내며, 지금은 찾기 힘든 스크래치 타일로 외관을 구성하여 당시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249호로 지정되었다.

중구청 앞에 설치된 패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대불호텔 등 ‘근대 최초 사례로 보는 중구’를 소개하며 사회제도부터 문화생활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천에 도입된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의 거류지 문화로 보는 중구’, 문화유산으로 보는 중구,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중구, 사라진 건축물로 보는 중구’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되고 있는 패널을 통해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여섯 번째 만남

자유공원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은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인천 중구 시가지와 인천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4월에는 ‘자유공원 벚꽃축제’가 열리는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1883년 개항된 후 5년 뒤인 1888년에 조성되어 처음에는 ‘각국공원’으로 불렸으며, 인천의 각국 조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



● 인천e지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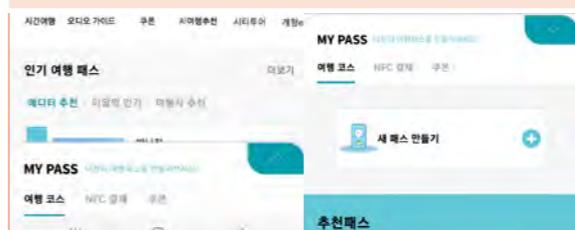
하는 공원이었다. 당시 공원이 자리한 곳은 일본과 청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조계가 설정된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각국의 조계 제도가 철폐되면서 ‘서공원’이라 불렸다. 이 공원은 1919년 3·1 만세운동의 현장이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근간이 된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가 시도되었던 역사적 공간이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 1957년 10월 3일부터 ‘자유공원’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 기념비적인 사건들의 장소이기도 하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맥아더 장군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기도 하다. 맥아더 장군 동상을 비롯하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기념 현수비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자유공원 광장의 전망대에서 인천항을 바라보며 인천e지 앱을 실행하면 인천항의 전경을 총 3개의 시대(1883년, 1900년, 1918년)로 각각 선택하여 당시의 개항장 전경을 파노라믹 AR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개항장 및 해안선의 모습과 비교하여 과거의 개항장 인천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3개의 연도 버튼을 눌러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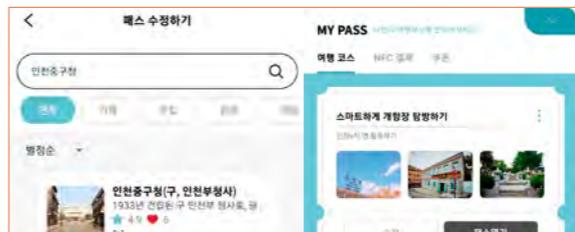
답사활동

01 답사 시작 전 인천e지 앱에서 여행 패스(MY PASS)를 만들고 답사를 준비해보자.

1단계: 인천e지 앱에서 나만의 여행패스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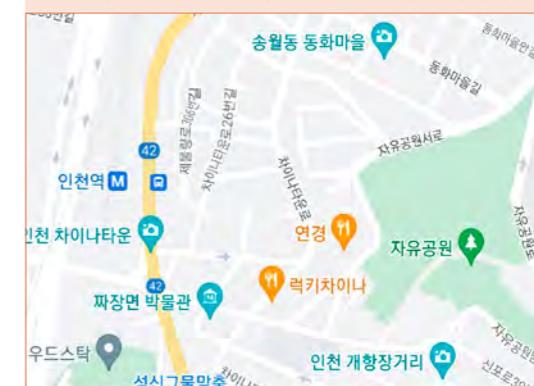


- ① 인천e지 앱의 홈 화면 하단
- ② ‘새 패스 만들기’를 눌러 패스명 입력하기



- ③ 답사 장소를 검색하여 ‘내
- ④ MY PASS의 ‘패스열기’를
- 패스에 추가하기’ → ‘저장
- 눌러 가이드북, 지도 확인하기’

2단계: MY PASS의 지도를 보고 답사 준비하기



- ① 인천e지 앱의 MY PASS를 보고 답사 경로를 그려보자.
- ② 답사 지점에 답사 순서를 숫자로 표시하자.
- ③ AR, VR 체험이 가능한 답사 지점(인천역(인천역관광안내소), 짜장면박물관,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자유공원)은 별표(☆)로 표시하여 답사 시 체험해 보기

02 답사 장소에서 사진 촬영 미션을 수행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해시태그 형식으로 작성해보자. 그중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소 한 곳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자.



답사 장소	사진 촬영 미션	해시태그 (해당 장소에 대한 핵심 키워드 3개 이상으로 작성하기)
1. 인천역	인천역관광안내소에서 AR사진관 촬영 후 QR 코드로 핸드폰에 사진 저장하기	
2. 짜장면 박물관	인천e지 앱의 리얼타임 드라마 VR무비를 실행한 후 ‘SELFIE’ 버튼 눌러서 개항장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기	
3.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계단 아래에서 인천e지 앱의 파노라믹 AR을 실행하여 현재 모습과 화면 속 모습을 비교하며 사진 캡처하기	
4. 카페 팟알	2, 3층의 다다미방 사진 촬영하기	
5. 중구청	건축 당시 유행했던 외벽 재료인 밝은 갈색 스크래치 타일을 찾아 사진 촬영하기	
6. 자유공원	자유공원 전망대에서 인천e지 앱의 파노라믹 AR을 실행한 후 현재 모습과 비교하며 인천항의 전경을 3개 시대별로 캡처하기	

답사 후 학습활동

관련 단원

- 고등학교 한국사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
- 고등학교 한국지리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활동목표

- 개항 이후 인천항 일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시대상을 반영하여 역할극을 발표할 수 있다.
- 개항장 관련 근대 문화유산과 지역 특화 정책을 조사하여 홍보 리플릿을 만들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개항 이후 인천항 일대를 배경으로 한 역할극 대본 작성 및 발표하기
 - 인천항 일대의 개항 이후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조사하기
 - 짜장면 박물관에서 체험한 '리얼타임 드라마 VR무비'를 참고하여 대본 작성하기
 -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소품 등을 준비하여 역할극 발표하기
- 활동2 :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개항장 일대를 홍보하는 리플릿 제작하기
 - 개항장 문화지구 내 근대 역사문화유산 조사하기
 - 스마트 관광 플랫폼 '인천e지' 어플 등 다양한 관광 서비스 조사하기
 - 역사적 관광 요소와 이용 가능한 기술 요소를 종합하여 홍보 리플릿 제작하기

생각해 볼 거리

오늘날 중구 개항장 일대는 단순히 관람만 하는 역사자원을 넘어 직접 즐기고 체험하며 역사적 의미를 체감하는 콘텐츠로서의 역사자원과 더불어 기반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이는 '개항'이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을 토대로 형성된 인천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기에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 더불어 첨단 기술을 도입한 관광 플랫폼과 서비스의 시도는 도시 재생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언택트 시대의 관광산업을 이끄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기에 답사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나 새로운 개발 요소 등을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건의하였으면 한다. 학생들과 함께 이를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의사 소통 및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인천을 품고 세계로 2
- 문화재청, 2014, 서울·경기·인천 문화유산 이야기 여행

인터넷 자료

- 인천광역시청 <https://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중구청 <https://www.icjg.go.kr/>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 <https://www.icjg.go.kr/tour>
- 인천시티투어 <https://citytour.ito.or.kr>
- 인천중구문화재단 <https://ijcf.or.kr>
- pot-R <http://www.pot-r.com/>



7-2

인천 개항장 거리 스마트 탐방

역사 | 문화 | 건축

체험코스

① 인천역 → ② 한중원 → ③ 인천아트플랫폼 → ④ 근대 건축전시관 → ⑤ 중구청 → ⑥ 누들플랫폼 → ⑦ 제물포 구락부&청일조계지 계단

총거리 1.2km
도보시간 30분(휴식 및 해설시간 제외)

교육과정

[초등학교]

- 3학년 2학기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3·4학년 미술 1. 미술과 생활
2.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5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5·6학년 미술 1. 자신과 대상

키워드

#개항장 #근대 건축물 #고스트도슨트(우리탕, 아펜젤러, 김란사, 헬버트, 김구, 사바틴)



-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주요지역
- 탐방코스

7-2

인천 개항장 거리 스마트 탐방



인천e지 앱
하나로 통하는 인천 개항장 거리 역사 여행

인천 개항장 거리는 1883년 개항 이후 14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한 근대역사문화의 보고(寶庫)이다. 1883년 제물포항 개항 후 지금의 인천광역시 중구 일대에는 일본과 청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조계지가 형성되었다. 서해안 작은 포구‘제물포’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항구가 되었고, 최초의 근대식 공원, 은행, 호텔 같은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인천 개항장 거리에는 개항기 한국 최초·인천 최고의 근대 건축물과 조형물이 거리 곳곳에 녹아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개항기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인천e지’ 앱을 활용하면 다양한 스마트 탐방을 즐길 수 있다. 본 코스는 AR 고스트 도슨트를 따라가며 개항장 거리의 주요 건축물을 둘러보고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스마트 역사 탐방 코스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의 종착역인 인천역에서 출발하여 중국 전통정원 한중원에 도착하면 인천이 개항될 당시 관료로 스카웃된 청나라 사람 우리탕을 만날 수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조선의 기독교 보급과 근대 교육에 헌신했던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를, 근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근대건축전시관에서는 인천 출신의 한국 여성독립운동가 김란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1933년에 건립된 중구청 건물 앞에서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헐버트를 만날 수 있으며, 복합문화시설인 누들플랫폼에서는 독립 운동의 산증인 김구 선생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인천과의 인연을 들을 수 있다. 제물포구락부와 이어지는 조계지계단에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을 설계한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을 만나 조선 역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천 개항장 거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만남

인천역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역



▲ 인천역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과 수인선의 종착역이자 수도권 전철에서 가장 오래된 역이다. 역사는 1900년 5월에 단층 흙벽돌조, 아연철판 경사지붕의 연면적 약 300m² 규모의 건물로 지어졌다. 한국 철도의 탄생역인 인천역은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되어 한동안 임시역사를 사용하였고, 1960년 9월 17일 현재의 역사가 준공되었다. 경인선 일반열차(비둘기호)가 다니던 시절인 1960년에 지어진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 수도권 전철역답지 않게 간이역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인천역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철도역으로 운행을 시작해 1980년 초까지 수많은 화물과 승객이 오갔던 물류중심지로 전성기를 누렸다.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과 함께 전철역이 되었다. 2016년 2월 27일에는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수인선이 1973년 폐쇄 이후 43년 만에 재개통하여 운행하고 있다. 역사 앞 돌을 깎아 만든 증기기관차 조각물은 인천역이 ‘한국철도 탄생역’이란 사실을 알려준다. 인천역을 통해 월미도,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자유공원, 인천항 등을 둘러볼 수 있어 인천 관광의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

두 번째 만남

한중원

이국적인 중국 전통 정원



▲ 한중원

한중원은 중국의 4대 정원 중 졸정원(拙庭園)과 유원(留園)을 모티브로 하여, 청나라시대 중·후반기 소주지역 문인들의 정원양식을 활용해 조성한 야외문화공간이다. 중국 전통정원에 사용되는 영벽(影壁), 조

벽(照壁), 정자, 목교와 연못, 용기와를 얹은 담장으로 중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e지」 앱의 시간여행 AR 고스트 체험에서 인천이 개항될 당시 관료로 스카웃되어 조선에 오게 된 청나라 사람 우리팅과 인천에 얹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1883년 인천 해관이 창설될 당시 스카웃 되어 인천에 오게 되었소.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은 후 조선의 외교사절단인 ‘보빙사’에 동행하여 통역관 역할도 수행했었고, 해관일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인천에 살았다오. 이렇듯 나는 청나라 출신이지만 스페인 출신의 아내와 결혼했고, 인천에서 일을 하다 은퇴했고, 죽어서도 인천에 묻혔소. 어떻소? 충분히 국제적인 삶이지 않소?”

세 번 째 만 남

인천아트플랫폼

오랜 역사와 젊은 예술이 함께 숨 쉬는 곳



▲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 문화재 및 1930~19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구역은 당시의 근대 건축 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지니고 있어 건축적, 조형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러한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적 의미를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자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광역시의 의지가 모여 탄생한 공간이다. 구 일본 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국가등록문화재)을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물 및 1930~1940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인천생활문화센터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했다. 지역 예술가와 작가들을 위해 조성한 공간인 만큼 작가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창

조물을 걷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영감의 바다’라고 할 수 있으며,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13개의 건물들은 예술적인 감각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인천e지」 앱의 시간여행 AR 고스트 체험에서 조선의 기독교 보급과 근대 교육에 헌신했던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으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알려졌고, 그때부터 나는 운명처럼 내가 가야할 곳은 조선이라고 생각했소. 나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서양식 근대교육을 실시하고,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탑’을 월미도 입구에 세웠다오. 한번 방문해보시지 않겠소?”

네 번 째 만 남

근대건축전시관

개항기의
근대건축물 여행



▲ 근대건축전시관

근대건축전시관은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이 있었던 곳이다. 1902년에 지어져 전형적인 일본식 모임지붕과 금고, 금고의 출입문 등 은행으로 사용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제18은행은 일본이 한국의 금융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어 세워진 아픈 과거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광복 이후에는 한국홍업은행, 카페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6년 근대건축전시관으로 변신했다. 개항기 인천 중구 모습을 담은 디오라마와 1897년 건립된 벽돌 구조의 인천 담동성당(사적), 인천의 랜드마크로 유명했던 유럽풍 석조 건물 존스턴별장을 비롯해 각국 외교관사, 관공서, 외국인 주택 등 현존하거나 소실된 다양한 근대 건축물을 재현한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인천e지」 앱의 시간여행 AR 고스트 체험에서 인천 출신의 한국 여성독립운동가 김란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화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비밀여성독립단체인 ‘이문화’를 지도하였는데 그중 학생 한 명이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며 ‘조국의 등불이 되거라’하고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앞날을 개척할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남

중구청

인천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해온 역사적 건물



▲ 중구청

인천 개항 후 가장 먼저 영사관을 설치한 일본은 전용 주거지인 조계지 내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1883년 2층 목조 건물의 일본영사관을 준공하였다. 당시 목재 등 건축 자재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1906년 이사청이 설치되자 청사로 사용되었고,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에는 인천부청사로 사용되었으며 부속 경찰서와 감옥을 두었다. 1933년 지상 2층으로 신축되었는데 중기난방과 수세식 화장실 등 당시로서는 최신 설비를 갖추었다. 광복 후 인천시청으로 사용하다가 1964년 3층으로 증축하였다. 시청이 구월동으로 이전하면서 1985년부터 중구청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249호로 지정되었다. 「인천e지」 앱의 시간여행 AR 고스트 체험에서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헐버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조선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만들었고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최초로 기록하기도 했다오. 1907년 고종황제의 명을 받아 헤이그 특사들을 지원하였다가 결국 일본인들에 의해 조선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한 번도 이 나라를 잊은 적이 없다오. 1949년 해방된 대한민국에 초대받아 왔고, 소원대로 양화진에 묻혔다오.”

여섯 번째 만남

누들플랫폼

오감으로 체험하는 누들



▲ 누들플랫폼

인천은 짜장면과 쫄면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누들 플랫폼은 면을 주제로 한 전시, 교육, 음식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1층에선 짜장면과 쫄면의 탄생을 비롯해 화평동 냉면과 새집 칼국수 등 인천 시민들에게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하는 전시가 이뤄진다. ‘쫄면 제1호 공장’인 광신 제면소에서 기증한 사출기 등 다양한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선 모형이나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면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세계의 향신료가 전시돼 직접 그 향을 맡아볼 수 있다. 「인천e지」 앱의 시간여행 AR 고스트 체험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산증인 백범 김구 선생과 인천의 숨겨진 인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나 백범 김구가 이곳 인천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소이까? 나는 두 번이나 이곳 인천에서 수감생활을 했었다 오. 그때 이곳 인천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대한독립에 목숨을 바치는 ‘김구’로 거듭날 수 있었소. 그리고 『백범일지』에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지대’라고 적어놓았다고. 두 번째 수감 때는 저 바다 아래 인천 내항 제1부두 축항공사의 강제노역에도 참여했었다 오. 지금도 남아 있는 저 부둣가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주시오.”

일곱 번째 만남

**제물포구락부&
조계지 계단**
개항기 삶의 흔적

제물포구락부는 1883년 인천이 개항되면서 인천 제물포에 거주하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외국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류를 하기 위해 지어진 사교 조직의 건물이다. 1901년에 지어



▲ 제물포구락부(위) / 각국 조계지계단(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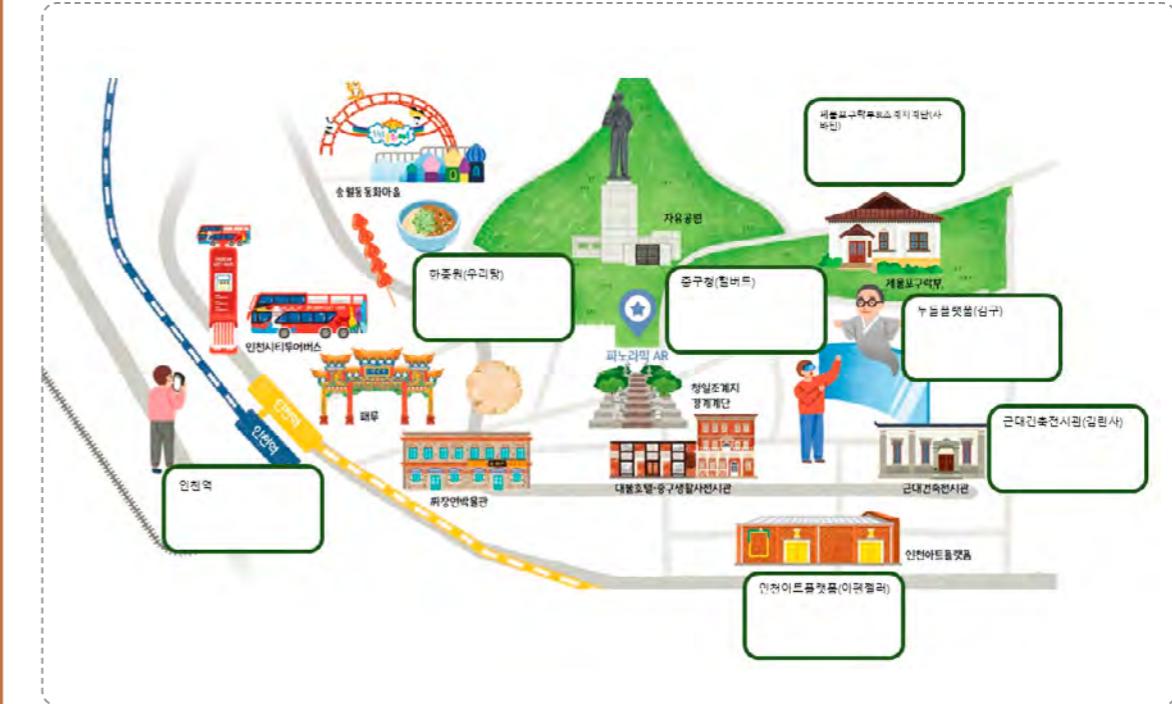
“1883년 9월 조선에 와서 나는 인천 해관에서 근무했다오. 이곳 인천의 만국공원은 내가 설계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공원이라오. 인천 제물포 조계지를 측량하여 조계지도를 완성하기도 하였소. 제물포구락부와 독립문, 손탁호텔, 덕수궁 중명전·정관헌, 경복궁 내 관문자, 러시아공사관이 내가 건설에 참여했던 건물이라오.”

진 이 건물은 벽돌로 된 2층 건물로 지붕은 양철로 덮었으며, 내부에는 도서실, 사교실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제물포구락부의 원래 명칭은 제물포클럽이 있는데 클럽(Club)을 일본식으로 구락부(俱樂部)라고 표기한 것이 굳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근대 개항기 인천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인천항 주변에는 조계지가 들어서고, 응봉산 정상에는 각국공원(현 자유공원)이 조성되면서 곳곳에 여러 개의 계단이 만들어졌다. 각국 조계지 계단은 통로 가운데에 석조계단과 돌로 포장한 계단참을 번갈아 배치하여 가파른 경사를 큰 어려움 없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구조물에 표현된 장식적 요소는 찾을 수 없으나, 보행로에 석조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흔하지 않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면 각국 조계지 계단의 중요성과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인천e지」 앱의 시간여행 AR 고스트 체험에서 조선 역사에 많은 부분을 함께 한 러시아인 사바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답사활동

- 01 개항장 거리를 탐방한 내용을 지도에 정리해보자.



- 02 「인천e지」 앱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선택해 리얼타임 드라마 또는 파노라믹AR을 체험하고 느낀 점을 적어보자.

리얼타임드라마 체험 장소 : 제물포구락부, 짜장면 박물관
파노라믹AR 체험 장소 : 자유공원전망대, 청일조계지경계계단

체험 장소	느낀 점

답사 후 학습활동

관련 단원

-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2.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초등학교 5,6학년 미술 1. 자신과 대상

활동목표

- 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나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탐색할 수 있다.
- 개항기 사회 변화를 위한 옛 사람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옛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건축물을 감상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학습활동

- 활동1 : 개항장거리 답사지도 만들기(답사활동 관련)
 - 답사지도를 만들 장소 선정하여 자세히 조사하기
 - 답사활동 때 기록한 내용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장소별 소개 자료 만들기
 - 개항장거리 지도 위에 장소별로 자료를 붙여서 답사지도 완성 하기
 - 제작한 카드 뉴스를 학교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기
- 활동2 : 개항장거리 AR고스트 인터뷰하기
 - 「인천e지」 앱의 시간여행 AR고스트 체험에서 만난 인물 중 인터뷰 대상 선정하기
 - 해당 인물의 역사적 업적, 인천과의 인연 등을 자세히 조사하기
 - 가상 인터뷰 대본 만들기

생각해 볼 거리

인천 개항장 거리는 19세기 후반 개항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이다. 학생들과 개항장 거리를 소개하는 안내자료를 보면서 구석구석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인천 e지」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 탐방을 하는 것도 좋다. 'AR·VR 시간여행' 메뉴에는 가상현실로 과거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리얼타임 드라마', 증강현실로 19세기 제물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파노라믹AR', 역사 속 인물을 증강현실로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는 'AR고스트' 체험 등이 있다. 'AR고스트' 체험은 개항장 곳곳에서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템을 모으는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다. 6개의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인천e지」 앱을 통해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탐방 전에 「인천e지」, 「인천e지AR」 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 자료

도서 및 논문

- 선구지 인천의 근대 풍경,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터넷 자료

- 인천관광공사 <https://itour.incheon.go.kr/>
- 인천광역시청 <https://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중구청 <https://www.icjg.go.kr/index>
- 인천개항장거리 <https://www.incheonopenport.com/>
- 지방공기업 웹진 <https://www.erc.re.kr/>

기획 이종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과장
장인숙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공존교육팀 장학관
신미경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공존교육팀 장학사

1차 집필 이경아 인천가현초등학교 교감
정찬진 동인천고등학교 교감
박소현 강화교육지원청 파견교사
박희라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손호영 송도중학교 교사
이기석 송도중학교 교사
이재웅 인천경원초등학교 교사
정고은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정혜선 인천봉화초등학교 교사
조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장학사
조한솔 석정여자고등학교 교사
최원길 부개여자고등학교 교사

2차 집필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관장
장희숙 인천향토사 연구사

지도제작 이유진 프리랜서
현장검토 이동열, 김창길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사진 홍승훈, 이동열

인천을 품고 세계로3

인천탐방길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전화 (032)420-8259

홈페이지 <http://www.ice.go.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다인아트

